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2018.5.11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2018. 5. 11 1:30pm

Koreana Hotel, Seoul
코리아나호텔, 서울

※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Korean-English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주 최 ORGANIZE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참여기관 PARTICIPANTS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AAFP
Hanns Seidel Stiftung
UNEP NOWPAP
PEMSEA
YSLM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KAOSTS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KIMST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OST
KOEM
생태지평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워크숍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TIME	PROGRAM
12:00 – 13:30	샌드위치 & 커피 / 등록 Registration with Sandwich and Coffee
13:30 – 13:50	**개회 Opening Ceremony**
	개회사 Opening Remarks **양창호 Chang-ho Ya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President, KMI)
	환영사 Welcoming Remarks **설훈 Hoon Sul**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hairperson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 Fisheries Committee)
13:50 – 14:00	단체사진 촬영 Group Photo
14:00 – 15:40	**국제기구의 북한협력 경험 및 향후계획 Sharing Experiences and Identifying Issues**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를 위한 YSLME의 경험과 제안 The Suggestions from Experiences of YSLME for Sustainable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Yinfeng Guo** (YSLME 사무국장 / Chief Technical Adviser and Project Manager, YSLME)
	연안생태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남북협력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Ecosystem **Lew Young** (EAAFP 사무국장/ Chief Executive, EAAFP)
	북한 연안통합계획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Progress and Plan for ICM Implementation in DPRK **이재영 Jae-Young Lee** (PEMSEA 부국장 / Deputy Head, PEMSEA)
	UNEP과 NOWPAP의 북한 협력 경험의 교훈과 시사점 UNEP and NOWPAP Past Experie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DPRK: Lessons Learned and Ideas for the Future **Lev Neretin** (NOWPAP/UNEP 사무국장 / Coordinator, NOWPAP/UNEP)
	한스자이델재단과 북한의 환경 협력: 과거, 현재, 미래 HSF and Environment Cooperation with DPR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ernhard Seliger** (HSF 한국사무소 대표 / Resident Representative, HSF Korea)
15:40 – 16:00	휴식 Refreshment with Coffee/Tea
16:00 – 16:30	**한반도 주변해역 현황 및 남북협력 방향 Sharing Experiences and Identifying Issues**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Status of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round the Korean Peninsula **김종성 Jong Seong Khim** (서울대학교 교수 / Professor, SNU)
	연안해양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 방향 Inter-Korea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Areas **남정호 Jungho Nam**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 / Research Fellow, KMI)
16:30 – 18:00	**종합토론 Drafting Recommendation and Suggestions to RO Korea Government**
	좌장 Chairperson: 고철환 Chul-Hwan Koh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Professor Emeritus at SNU, Former Chairman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토론자**(가나다 순) **Discussants**(in the order of Korean alphabet) **강성길 Seong-Gil Kang**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사무총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 Secretary General, KAOSTS, Researcher, KRISO) **김광용 Kwang-ryong Kim**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 Manager, Marine Environment Policy Division, MOF) **목진용 Jin-Yong Mok**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 Director General, KMI) **박병직 Byoung Jik Park**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제도관리실장 Director, KIMST) **변상경 Sang-Kyung Byun** (전 UNESCO-IOC의장,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Former Chairman of IOC/UNESCO, Former President of KIOST) **장지영 Jiyoung Jang** (생태지평 협동처장 / Secretary General, Eco Horizon Institute) **최진용 Jinyong Choi**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 Director General, KOEM)
18:00 – 19:30	만찬 Dinner

개회사 환영사

Opening Ceremony

YANG, Chang-Ho

Korea Maritime Institute

#26, Haeyang-ro 301beon-gil, Yeongdo-gu, Busan,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Background

Aug. 1998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 Doctorate thesis: Measurement of Shipping Cycle Changing Model for Capsized Dry Cargo Carriers
Feb. 1981	M.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Feb. 1979	B.A. in Biochemistry at Yonsei University
Feb. 1975	Graduate from Daegwang High School, Seoul, Korea

Career

Aug. 2016 - Present	The 9th President of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Mar. 2008 - Aug. 2016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ug. 2016 - Present	A member for the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ug. 2015 - Present	A panel member of advisors for Budget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ug. 2014 - Present	Civilian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Land Policy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Secretariat
May. 2013 - Aug. 2016	Member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Jun. 1987 - Feb. 2008	Senior Researcher of Korea Maritime Institute
Mar. 1982 - Jun. 1987	Senio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conomics and Technology(KIET)

Tel: +82-51-797-4301 Fax: +82-51-797-4309 Email: chyang@kmi.re.kr

개 회 사

오늘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을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워크숍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공동으로 이 회의를 주최하신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실 고철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철환 교수님은 과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 남북한 해양협력을 국정과제로 발굴하셨습니다.

이 국제워크숍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발표를 해주실 Lev Neretin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UNEP NOWPAP) 사무국장님, Yinfeng Guo 황해 광역생태계사업(YSLME) 사무국장님, Lew Young 동아시아-호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EAAFP) 사무국장님, 이재영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 부국장님,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님, 김종성 서울대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남북한 해양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기관의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여 귀중한 의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변상경 전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의장님, 해양수산부 김광용 과장님을 비롯하여 최진용 본부장님, 장지영 처장님, 강성길 사무총장님, 박병직 실장님, 목진용 본부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변화는 그저 그런 변화가 아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과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때로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합의하여 선언한 판문점 선언문에서 서해에서 평화수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선언문의 다른 조항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남북관계의 생산적 발전에는 해양에서 평화가 먼저 선행되거나 적어도 해양에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남북관계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900년경 그리스의 서사시인인 호머는 '바다는 모든 것의 근원(The ocean, who is the source of all)'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명언을 바다는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류생존의 공간이자 우리가 함께 가

꾸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한반도의 바다는 남한 북한의 주민이 함께 관리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이룰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관광개발, 개성공업단지 재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육상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공동어로, 해운합의서 등 기존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등 해양분야 경제협력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만큼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심이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기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공간적으로는 육상과 해양에서 남북한 협력의 균형적 발전, 해양자원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양자원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남북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워크숍은 최근 남북한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나타날 역동적인 환경변화과정에서 장래 한반도의 해양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 내빈 여러분

이 워크숍을 통해 발표되고 논의될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은 남북한 해양협력을 통해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공존과 상생번영의 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정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할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앞으로 국내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해양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및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양 창 호

SUL, Hoon

Member, 20th National Assembly

#948, 1,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Background

2000	B.A. in History, Korea University
1972	Masan High School, Masan City

Career

Sept. 2017 – present	Chairman, Committee on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National Assembly
Jul. 2017 – Sept . 2017	Member,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Jun. 2016 – Jul. 2017	Member,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Jun. 2016 - present	Member, 20th National Assembly
Jul. 2015 - Dec. 2015	Chairman, Special Committee on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National Assembly
Jun. 2014 - Jul. 2015	Chairman, Committee on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Assembly
2013 - present	Co-Executive Chair,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un. 2012 - May. 2016	Member, 19th National Assembly
2010 – present	Chairman, Democratic Party Bucheon City Wonmi-gu(eul) Office
2004 - 2005	Visiting Scholar, Asia-Pacific Research Institute, Peking University
2003 – 2009	Co-Chair,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un. 2000 - May. 2004	Member, 16th National Assembly
Jun. 1996 - May. 2000	Member, 15th National Assembly
1992	Executive Assistant to Kim Dae-jung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Tel: +82-2-784-8570 Fax: +82-2-788-0229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입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해양보전을 위한 남북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숍에 오신 국내외 귀빈, 전문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국제워크숍을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양창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워크숍은 남북한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간 대북 협력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연안해양생태계의 협력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매우 뜻 깊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최초로 국제기구 전문가와 함께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에 관한 주제로 국제워크숍이 개최되는 것만큼, 앞으로의 남북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역사적인 행사와 병행하여, 국제기구와 국내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남북한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과정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간 회담의 역사를 보면, 남북협력의 과정은 자연가치의 보전보다는 눈앞의 경제개발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수요만을 고려한 남북협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남북협력이 유지되려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세대의 번영까지 염두에 둔 균형과 조화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남북협력관계로 유지되었던 과거의 육상중심 남북협력 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양개발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남북협력 발전방향이 도출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남북한 접경지역인 경기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양수산분야의 남북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바쁜 시간을 내주시어 좌장을 맡아주신 고철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 머나먼 곳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국제기구 전문가, 그리고 국내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 훈

국제기구의 북한협력 경험 및 향후계획

Sharing Experiences and Identifying Issu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O, Yinfeng

UNDP/GEF YSLME Phase II project
Chief Technical Adviser and Project Manager
5th floor, G-Tower, 175 Art center-daero, Yeonsu-gu, Incheon 22004, Republic of Korea

Mr. Yinfeng Guo, a Chinese national,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managing and supervising all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DP/GEF Phase II Project.

Mr. Guo has over 25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s in policy analysis, advisory service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management of GEF and donor projects and partnership development in PR China,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in the areas of biodiversity, integrated river basin and coastal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waters. He specializes in trade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wildlife in traditional medicine, environmental strategic plann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environmental mainstreaming and result-based management of GEF and other donor projects.

In his professional career, Mr. Guo served as Deputy Director in Endangered Species Scientific Commission of PR China, Biodiversity Specialist of China GEF Office, Leader of water team in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Office of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 Manager of UNDP China Office overseeing biodiversity and water governance, and Head of Planning and Partnership Development of PEMSEA. He is a founding member of the annual Xiamen World Ocean Week.

Mr. Guo earned a B.A degree in English literature at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and Master Degree in law in Beijing University Law School.

Tel: +82-(0)70-4161-2241 Fax: +82-(0)70-4157-4898 Email: yinfengg@unops.org

Restoring Ecosystem Goods and Services of YSLME – Ecological Linkages an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DPR Korea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11th May, 2018, Koreana Hotel, Seoul, RO Korea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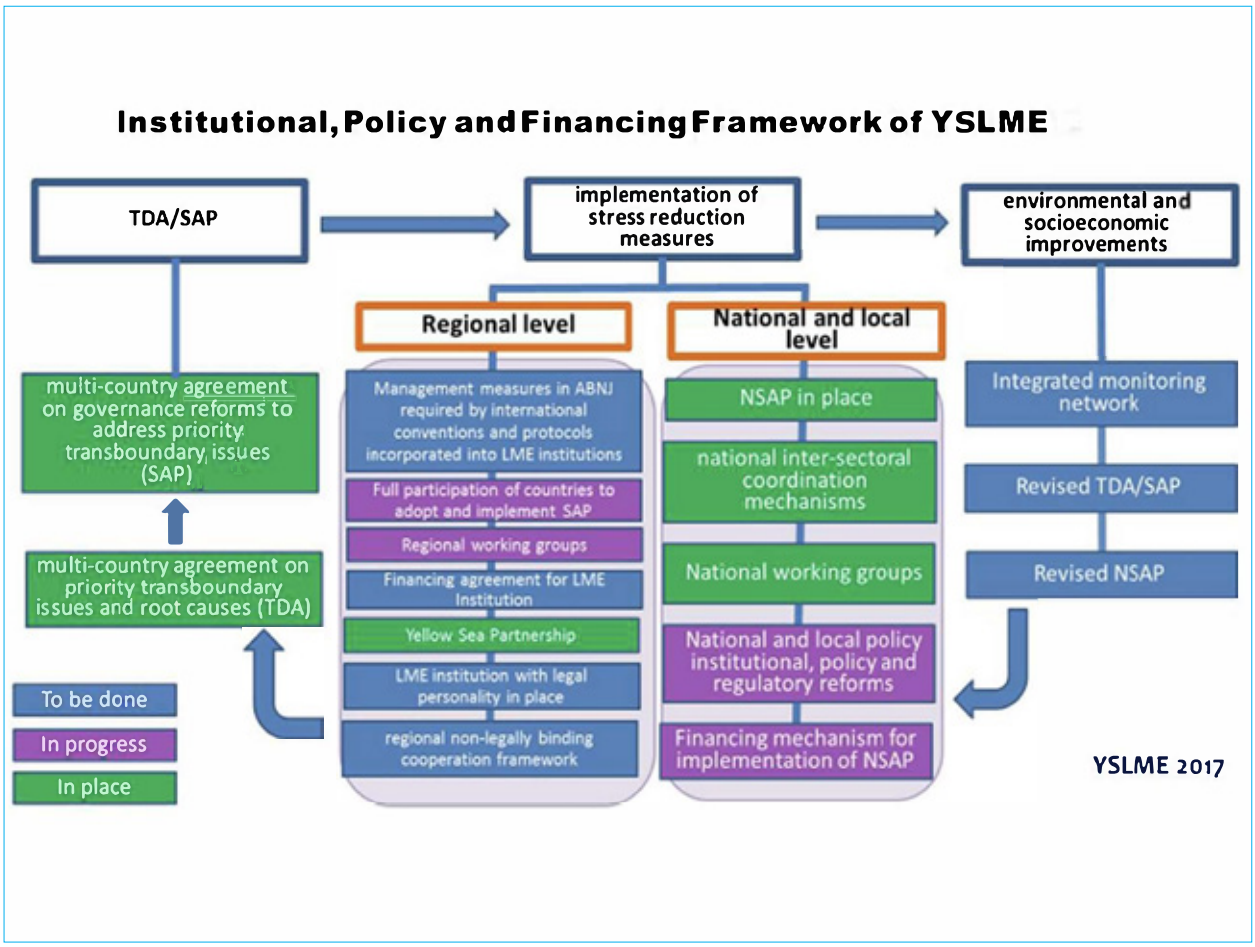
www.yellowseapartnership.org

Snapshot of Yellow Sea LME

- 400,000 km²
- Bordered by PR China, RO Korea, and DPR Korea
- Tens of millions of people in five large cities in three 3 countries
- Vulnerable: 7 years flushing time
- highly productive ecosystem, providing 1m tons of capture fisheries and 14 m MT of mariculture per year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DPRK's Involvement

During the 1st Phase of YSLME Project

Major Activities

- **Visit to Pyongyang, DPRK by CTA** to find ways DPRK to be involved in (July 2005)
- **Received official letter showing intention of participation as a member** (Nov. 2006)
- **Meeting with State Hydro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MA)** to discuss possible collaborative activities (August 2007)
- **Not approved as a full member** because of UNDP Pyongyang Office withdrawn (Nov. 2007)
- **Conducted training course on TDA and SAP** for DPRK experts (Aug. 2008)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DPRK's Involvement

***Training Course** on Analysis of Metals and Nutrients in Marine Environment*
Workshop on Introduction of the TDA and SAP Concepts

Representatives of DPR Korea participated in several important meetings as observers

- *The 4th RSTP and PSC meetings*
- *The Special Meeting of the PSC on SAP*
- *The 1st and 2nd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for preparing relevant documents for the 2nd phase of the project*

YS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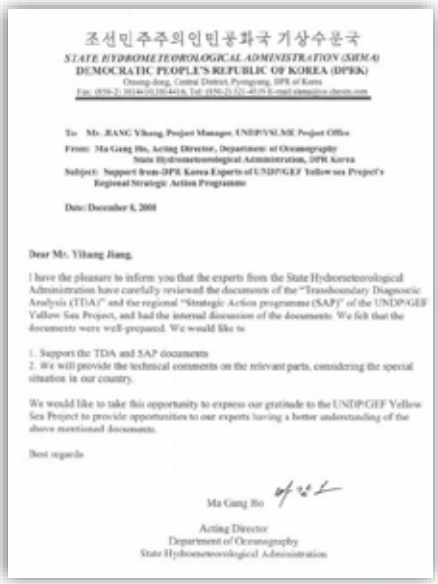
www.yellowseapartnership.org

DPRK's Involvement

During the 1st Phase of YSLME Project

Major Activities

- **SHMA Supported the TDA and SAP documents;** (Dec. 2008)
- **GEF National Focal Point formally submitted to UNDP endorsement letter for PIF** of the 2nd Phase (Aug. 2010) – **expressed officially participation in the 2nd phas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국
STATE HYDRO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M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Mr. JIANG Yihang, Project Manager, UNDP/YSLME Project Office
From: Ma Gang Ho, Acting Director, Department of Oceanography
State Hydro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PR Korea
Subject: Support from DPR Korea Experts of UNDP/GEF Yellow sea Project's Regional Strategic Action Programme
Date: December 8, 2008

Dear Mr. Yihang Jiang,

I have the pleasure to inform you that the experts from the State Hydro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ave carefully reviewed the documents of the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TDA)" and the regional "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 of the UNDP/GEF Yellow Sea Project, and had the internal discussion of the documents. We felt that the documents were well-prepared. We would like to

1. Support the TDA and SAP documents
2. We will provide the technical comments on the relevant parts, considering the special situation in our country.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UNDP/GEF Yellow Sea Project to provide opportunities to our experts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Best reg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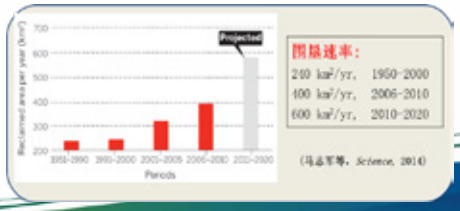
Ma Gang Ho
Acting Director
Department of Oceanography
State Hydro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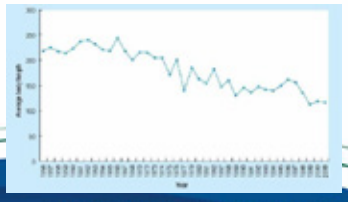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Transboundary issues

- Pollution and contaminants;
- Eutrophication
- Harmful algae blooms (HABs)
- Fishing efforts exceeding ecosystem carrying capacity
- Unsustainable mariculture
- Habitat loss and degradation
- Jellyfish blooms
- Change in ecosystem structure
- Climate change-related issues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Responses

- 25-30% reduction in fishing efforts
- Rebuilding marine living resources
- Improving mariculture techniques to reduce environmental stress

-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current populations and distributions of genetic diversity of living organisms including endangered and endemic species
- Habitat maintenance according to 2007 standards
- reduction of risks of introduced species

- Meeting international requirements on contaminants

11 YSLME SAP Targ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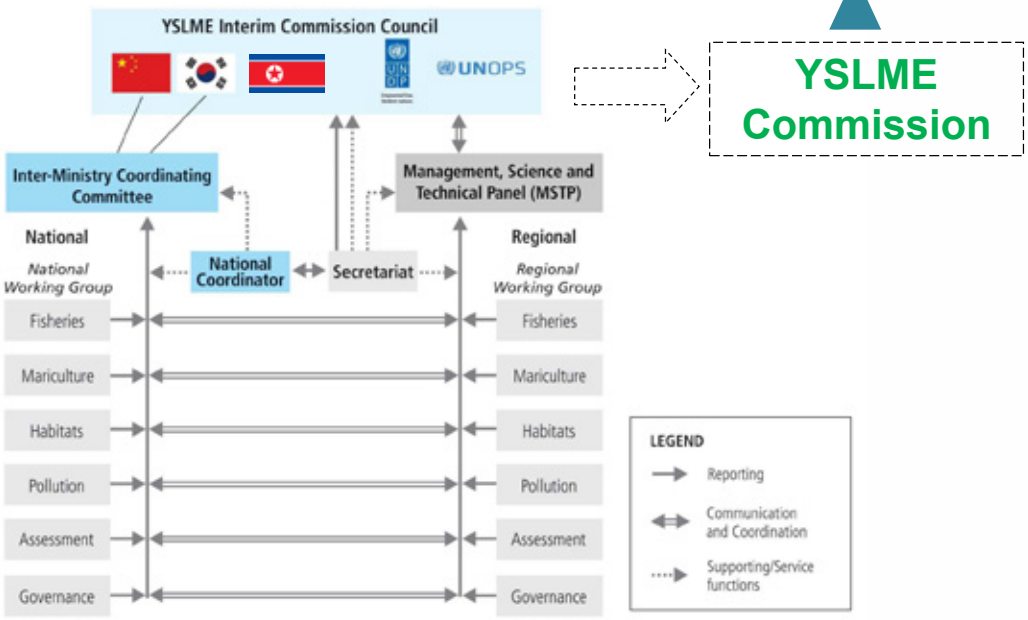
- Reduction of total loading of nutrients from 2006 level
- Reduced standing stock of marine litter
- Reducing contaminants in bathing beaches and other marine recreational waters

- Better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ecosystem changes for adaptive management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Yellow Sea Partnership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Status of Inter-Ministerial Coordinating Committee (IM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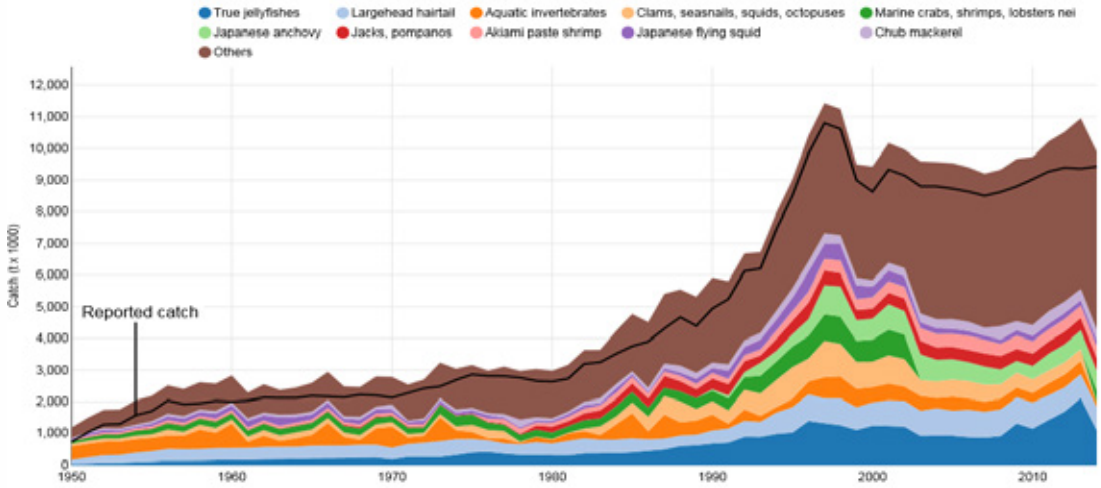
Membership of IMCC		
RO Korea	**PR China**	**DPR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Ministry of Finance (MOF)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Other relevant ministries	Liaoning, Shandong and Jiangsu provincial governments	?

Processes, schedule and TOR for review of implementation of NSAP have been agreed at the RWG-G meeting. Draft reports are to be completed in 2018.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Catches in the Yellow Sea increased from 120,000 tones in 1950s to more than 1.1 million tones around 2015



Annual catches (tonnes) reported from 1950 to 2015 in the YS (SAU,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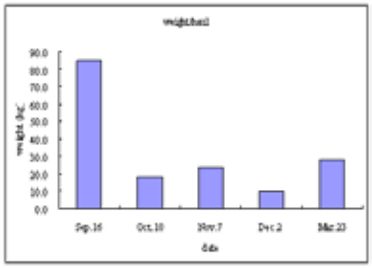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Expand closed seasons and areas; reduce fishing efforts and total catch

Country commitments and progress:

- From 2017 on, Yellow Sea is closed to fishing for 135 days (May 1 to Sept. 16) (PR China);
- From 2015 to 2020, 20,000 fishing vessels with a total capacity of 1.5 million kW will be reduced through implementation of buy-back scheme (PR China).
- From 2015 to 2020, nearly 15% of total catch in China EEZ is to be reduced (PR China).
- From 1994-2013, fishing vessels have been reduced to 18,560 with costs of 1.6 trillion KRW (RO Korea)
- From 1990 to 2007, capture fishery in RO Korea decreased by 27% (SOC repor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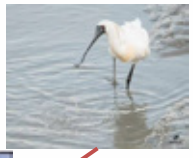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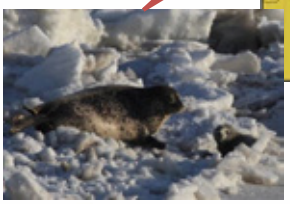
During YSLME Phase II, after fishing closure there is increase in capture immediately after the lift of closure, but sharp decrease one month after. The harvest species changed from dominant fish species to crustaceans and cephalop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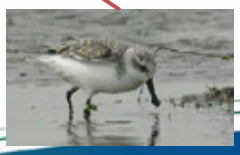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Level of ecological connectivity in expansion of the Yellow Sea MPA system - endangered migratory species habitats (Spoon-billed Sandpiper and Black-faced Spoonbill and spotted seal); fish spawning, nursery and feeding grounds; YSCWM







PP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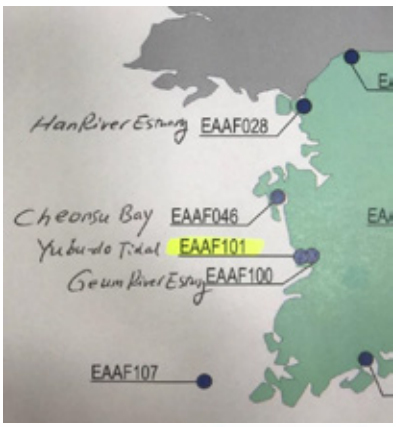
1. Zhoushan Islands
2. Yangtze River Estuary Wetland
3. Southern Jiangsu Coast
4. Northern Jiangsu Coast
5. Haizhou Bay
6. Qingshi
7. Yanwei
8. Yellow River/ Laizhou Bay
9. Bo Hai
10. Qinhuangdao
11. Liaohe River Estuary
12. Haiyangdao/ Changxing
13. Changshandao
14. Yalu River Estuary
15. Baengnyeong Island/Yeonpyeong Island
16. Gyeonggi Bay
17. Cheonsu Bay
18. Geum/Mangyeong/ Dongjin River Estuary
19. Heuksan Island
20. Yeongsan River Estuary
21. Boseong/Yeoja Bay
22. Jeju Island
23. Yellow Sea Cold Water Mass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Level of ecological connectivity in expansion of the Yellow Sea MPA system – EAAFP members

- YSLME is in contact with East Asia and Austr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Secretariat to facilitate Xiaoyangkou of Rudong to become a site of the 21-country network, and to increase to 9 sites in YSLME (excluding Bohai Sea).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Meetings, workshops and trainings in 2018 for participation by DPR Korea

- May 20-21, IMTA training in Weihai, Shandong Province, PR China
- June 25-26, China-Korea Joint WS & RWG-A, June 25-27, Kunming, PR China
- July, Stock Assessment Training, July, Tongyoung, RO Korea
- July, RWG-G meeting, PR China.
- July, MPA Connectivity Training, RO Korea
- Exchange of experts to China, July 11-13, PR China
- August, Study visit to HELCOM (Helsinki)
- August, GAP of IMTA & RWG-M, Jeju, RO Korea
- September, YSLME BD WS & RWG-H, Qingdao, RO China
- September 12-14, Regional WS on Nutrients & RWG-P, Busan, RO Korea
- October 10-12, License system WS China & RWG-G, Jeju, Korea
- November, MSTP to review legal documents & TDA review, ocean governance workshop, PR China
- November, ICC-3, RO Korea

Challenges

- Inaccessibility of DPR Korea to GER resources
- Partnership-based approach – HSS, EAAFP, etc
- Time needed to refresh trust, build interest and see mutual benefits
- Small-sized PMO vs heavy workload with delivery
- Need to innovate ways to engage DPR Korea

YSLME
www.yellowseapartnership.org

Yellow Sea:

- Sea of Friendship
- Sea of Peace
- Sea of Cooperation
- Sea of Prosperity

Thank you!

YOUNG, Lew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3F Bon-dong G-Tower, 175 Art center-daero, Yeonsu-gu,
Incheon, RO Korea (2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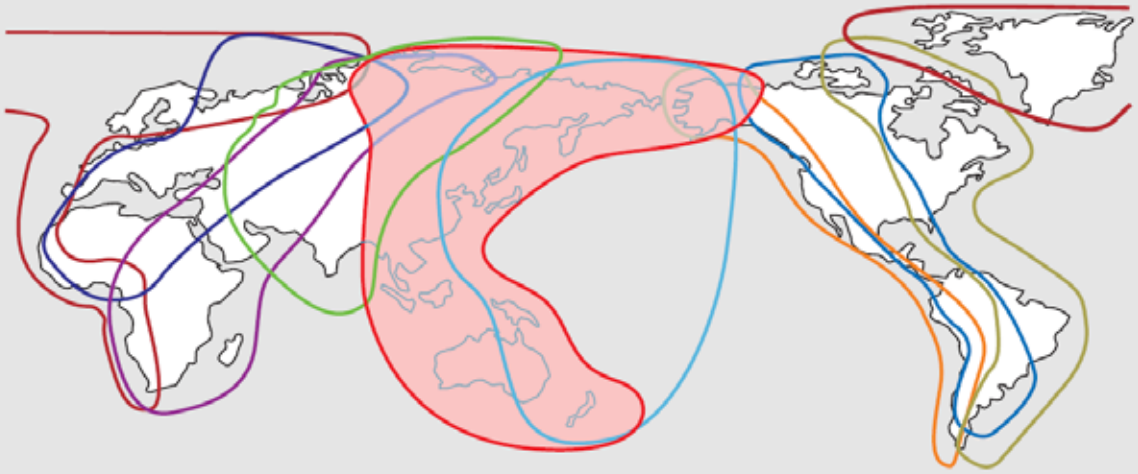
Lew Young worked in Africa, Asia and Europe on a variety of social development and wildlife conservation projects before studying for his Ph.D. at Hong Kong University on habitat use by herons and egrets at the WWF Hong Kong Mai Po Nature Reserve (Hong Kong). Afterwards, he was employed as the manager of the MPNR where he worked with the Hong Kong Government to designate the site as Hong Kong's first Ramsar Site. He also worked closely with private developers who held land around the Ramsar Site to put forward 'green' development proposals that would minimize their impact on the Ramsar Site and to provide areas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public education. From there, he moved to work with the Secretariat of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where he provided technical support to the 41 Ramsar Contracting Parties in the region. He is currently Chief Executive of the EAAFP which currently has 36 Partners made up of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region, working to conserve the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in the EAAF.

Tel: +82-32-458-6509 Fax: +82 32 458 6508 Email: chief@eaaflyway.net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 Wise Use of their Habitats in Inter-Korean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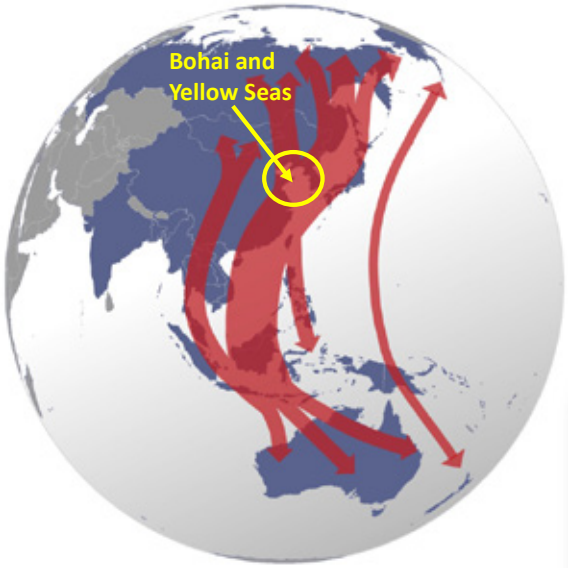
Lew Young, Chief Executiv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chief@eaaflyway.net

Global Migratory Bird Flyways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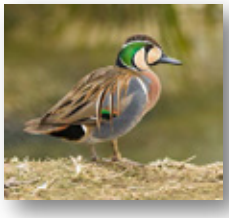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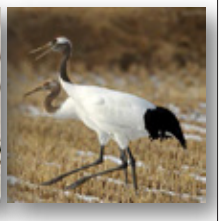


Minimum **50** million individuals of **200** waterbird species

Highest number of IUCN threatened bird species: **33**

Highest number of declining species (annual declines of **9%** for some shorebirds)





Importance of the Bohai/Yellow Seas for Migratory Waterbirds

Bohai/Yellow Seas
The tidal-flats supports:

- > 2 million shorebirds on northward migration and > 1 million on southward migration;
- At least 9 critical sites with > 100,000 shorebirds on migration;
- Up to 40% of the shorebirds from Australia stop-over along the Bohai/Yellow Sea tidal-flats to rest and refuel during northward migration

Importance of the Bohai/Yellow Seas for Migratory Waterbi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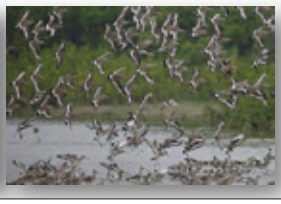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for migratory waterbirds around the Bohai/Yellow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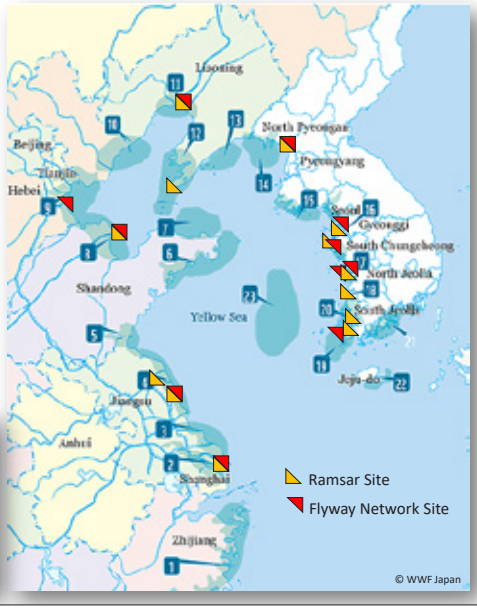
DPR Korea:

- 1 Ramsar Site
- 1 Flyway Network Site

RO Korea

- 6 Ramsar Site
- 5 Flyway Network Site





Sister Site Network

Sister Sites

Brings together sites that share similar habitats or migratory waterbird species

- Promotes sharing of information and good practices;
- Mutual support fo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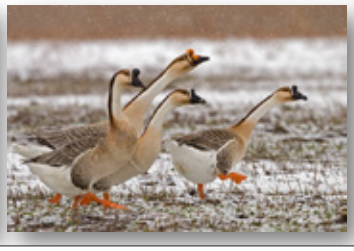
Examples

- Firth of Thames (New Zealand) - Yalu Jiang (China)
- Sungei Buloh (Singapore) – Yubu-do tidal flat (Korea)
- Swan Bay (Australia) – Fujimae (Japan)

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DPRK)

Mundok MBR:

- Located by the Chongchon and Taeryong Rivers
- 2,921ha
- 170 bird species, including:
  - Globally threatened species such as the endangered Red-crowned Crane;
  - >1% of the Fyway population of more than five species, especially 10—30% of the population of the vulnerable Swan Goose.



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Research and monitoring

- One dedicated researcher
- Needs support, e.g. equipment, field guide etc

Education and awar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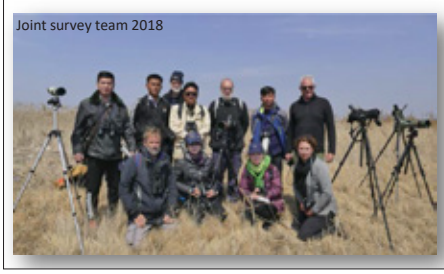
- Office building with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a visitor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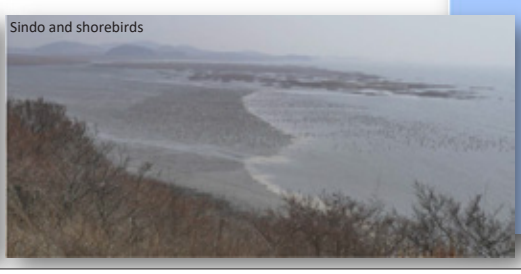
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 Ecosystem services

Types of service	Description	Example	Level
Provide	Cereal	Rice	H
	Non-cereal production	Seafood, reed	L
Regulate	Maintain water system	Water for agriculture	H
	Prevent natural disasters	Prevent flood; stabilize coasts and rivers	H
Cultural	Research	Long term monitoring	H
Support	Biodiversity	Water birds, fish	H

DPRK West Coast Shorebird Surveys (2015-2018)

- 2009, the Korea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Fund (DPRK) and Pukorokoro Miranda Naturalists' Trust (PMNT, New Zealand), completed a joint survey of shorebirds at Mundok MBR;
- 2014 a joint agreement between the Nature Conservation Union of Korea (NCUK, DPRK) and PMNT to extend the shorebird surveys along the West Sea coast from 2015 - 2018.


Joint survey team 2018


Sindo and shorebird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wareness

- Genuine desire to learn;
- Access to computers in schools, universities and museums;
- Intranet with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 Lack of information on environment issue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wareness - Pyongyang Natural History Museum

Opportunitie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dentific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key coastal areas

- Identification of key coastal areas, e.g. for biodiversity, livelihood etc;
- Designation of those key areas for protection;
- Promote good practic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to benefit people and the environment;
- Promote regular monitoring of the key areas and sharing of data;
- Develop education and awareness materials and programs.

Education and awareness

- Provide latest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DPRK government to upload on to the intranet;
- Joint celebration of international events, e.g. World Migratory Bird Day, World Wetland day etc

LEE, Jae-Young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Office Bldg., DENR Compound, Visayas Avenue, Quezon City, Philippines

As PEMSEA's Deputy Head of Planning and Partnership Development, Dr. Lee promotes collaboration among PEMSEA partners through joint planning and development of projects in support of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eas of East Asia Sea (SDS- SEA). He is also acting as PEMSEA's Country Manager for RO Korea. Before becoming a government officer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of RO Korea in 2007, Dr. Lee had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scientific researches relating to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rine pollution management. He worked in various divisions of the MOF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Policy Division, Marine Ecology Division, Marine Conservation Division and Promotion of Export and Processed Fisheries Products Division.

Tel: +63-2-929-2992(loc. 105) Fax: +63-2-929-9712 Email: jlee@pemsea.org

PEMSEA

Progress and Plan for ICM Implementation in DPR Korea

Jae-Young Lee
Planning and Partnership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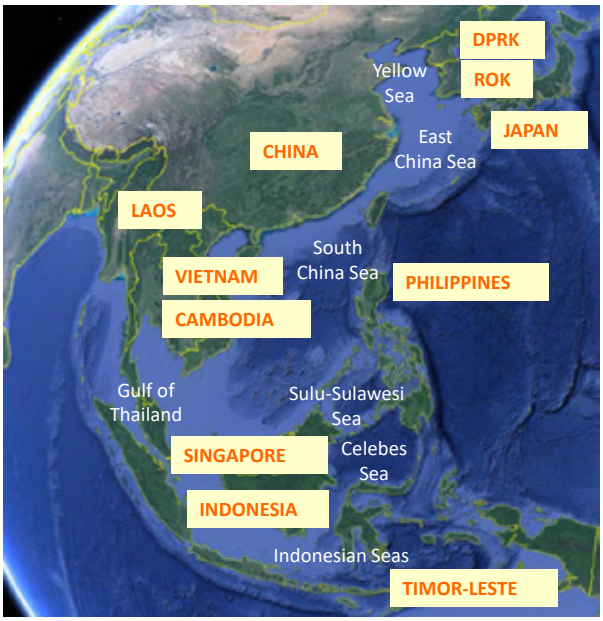
BACKGROUND & HISTORY

PEMSEA

Partnership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 with vision of Healthy Oceans, Peoples and Economies

- **1994 – 1999 (PROJECT)**
  -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 the East Asian Seas**
  - UNDP/IMO (11 countries, US$ 8M)
- **1999 – 2007 (2nd Phase of the project, PEMSEA)**
  - Building intergovernmental, interagency and multi-sectoral partnerships in environment management was supported by GEF (11 Countries, US$ 16.2M)
- **2003**
  - Endorsemen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as of East Asia (SDS-SEA)** by participating governments and collaborative partners (Ministerial Forum in EAS Congress, Putrajaya, Malaysia)
- **2007**
  - GEF Council approved Phase I (2007-2017) of a project to implement SDS-SEA
  - PEMSEA's transformation into a **self-sustaining regional operating mechanisms**

PEMSEA Country Partners



- **2015 (Da Nang Compact, updated SDS-SEA, Reginal Support for UN SDGs with post-2015 Targets)**

2/15

BACKGROUND & HISTORY

DPR Korea
ICM Imple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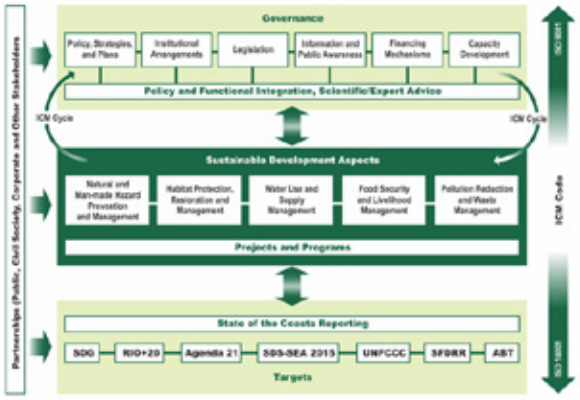
- **1993: Initiated Implementing ICM within the country**
- **2000: Nampo, ICM demonstration site**
  - ('01) PMO, PCC, Scientific Committee
  - ('01) IIMS(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2003: Committed to adopt and implement SDS-SEA (Putrajaya Declaration)**
  - ('03) Identification of Key Stakeholders for Public Awareness
  - ('04) ICM Training Center / TOT (Training of Trainers)
  - ('05) Integrated Coastal Use Zoning Plan (workshop)
  - ('08~'09) Project Development of SDS-SEA Implementation
  - ('09) ICARM Plan (Taedong River Proposal)
- **2015: Re-established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PEMSEA and agree to designate Wonsan as an ICM Site**
  - ('15) Regional TOT Workshop/Nampo Case Study
- **2015: Developed a Comprehensive plan for ICM Project Implementation (2016-2021)**

3/15

ICM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Guiding Instruments for ICM Programmes of DPR Korea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Areas through ICM Implementation (SDCA)



Post-2015 Targets (Da Nang Compact)

1. By 2017: A self-sustained PRF managing and coordinating a suite of products, services and financing mechanisms for SDS-SEA implementation
2. By 2018, a **regional SOC reporting system** to monitor progress, impacts and benefits of SDS-SEA implementation
3. By 2021, **national** coastal and ocean **policies** and supporting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et up and functional in 100% of countries
4. By 2021, **ICM programs covering 25% of the region's coastline** & contiguous watershed areas, supporting national priorities & commitments

4/15

ICM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 VISION

Implementing ICM Programmes at 25% of DPR Korean coastal areas by 2021 with Strengthened capacities of the stakehold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OBJECTIVES

1. Strengthen Governance for ICM Implementation
2. Build Capacity for ICM Implementation
3. Scale up ICM Programmes to Cover 25% of Coastal Areas
4. Establish State of the Coasts(SOC) Reporting System
5. Implement Priority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EMSEA

5/15

ICM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 OBJECTIVE 1: Strengthen Governance of ICM Implementation

➢ (Action Programmes)

1.1: Establish Functional ICM Coordinating Committee

- National ICM Coordinating Committee (NICMCC) / interagency Technical Working Group (TWG)

1.2: Set up a National Coastal and Ocean Policy

- (TWG) draft the National Coastal and Ocean Policy

1.3: Conduct Studies on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

❖ OBJETIVE 2: Build Capacity for ICM Implementation

➢ (Action Programmes)

2.1: Develop a National ICM Capacity Development Programme

- (NICMCC / TWG) assessment on needs and gaps and identifying existing capacities

2.2: Strengthen the National ICM Learning Center

- National ICM LC in Kim IL Sung Univ. (2000) / Curriculum / training model course / etc

2.3: Promote Knowledge Sharing and Public Awareness

- National ICM Data Center at ICM Learning Center

PEMSEA

6/15

ICM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 **OBJECTIVE 3: Scale up ICM Programmes to cover 25% of Coastal Areas**

➢ **(Action Programmes)**

3.1: Develop the ICM Scale up Plan

- (Nampo) ⇒ Hwanghae Namdo Province / (Wonsan) ⇒ Mt. Kumgang and Mt. Chilbo

3.2: Develop ICM Programmes at New Sites

- Designating new ICM sites with establishment of ICM coordinating office at each local sites

❖ **OBJETIVE 4: Establish State of the Coast (SOC) Reporting System**

➢ **(Action Programmes)**

4.1: SOC Reporting System at Nampo and Wonsan

-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IMS) / upgrade and newly establish in Nampo and Wonsan, respectively ; Data gathering by local TWG

4.2: Scale up SOC Reporting System to NEW ICM Sites

- Establishing IIMS and SOC Reporting System/ IIMS and Training workshop at new ICM Sites

PEMSEA

7/15

ICM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 **OBJECTIVE 5: Implement Priority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ction Programmes)**

5.1: Conserve Coastal Biodiversity

5.2: Develop Sustainable Fisheries

5.3: Manage Natural and Man-made Hazards

PEMSEA

8/15

PRIORITY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PRK

❖ **PRIORITY PROJECT 1: Conserve Coastal Biodiversity**

- (2014) Wonsan-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Area (WKITA)
- (Survey) Endangered Marine Mammals and Migratory Bird Species
-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and Development of Conservation Plans)
  - Mt. Kumgang Biosphere Reserve / Anbyon RAMSAR Site
- (Promotion of Ecotourism) Anbyon (bird-watching ecotourism program/red-crowned crane)

PEMSEA

9/15

PRIORITY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PRK

❖ **PRIORITY PROJECT 2: Develop Sustainable Fisheries**

- Assessment on Fisheries Capacity and Training Needs
- Training on Aquaculture Techniques
- Establishment of Pilot Scale Salmon Culture System

PEMSEA

10/15

PRIORITY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PRK

❖ PRIORITY PROJECT 3: Manage Natural and Man-made Hazards

- ➢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Hazard Mapping at Priority Coastal Areas**
- ➢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Plan**
- ➢ **Development of Disaster Early-Warning System at Priority ICM Sites**

DPR Korea's food production hit by the worst drought since 2001

Food insecurity expected to seriously scale up

DPR Korea's crop production, including staple rice, maize, potatoes and soybean, has been severely damaged this year by prolonged dr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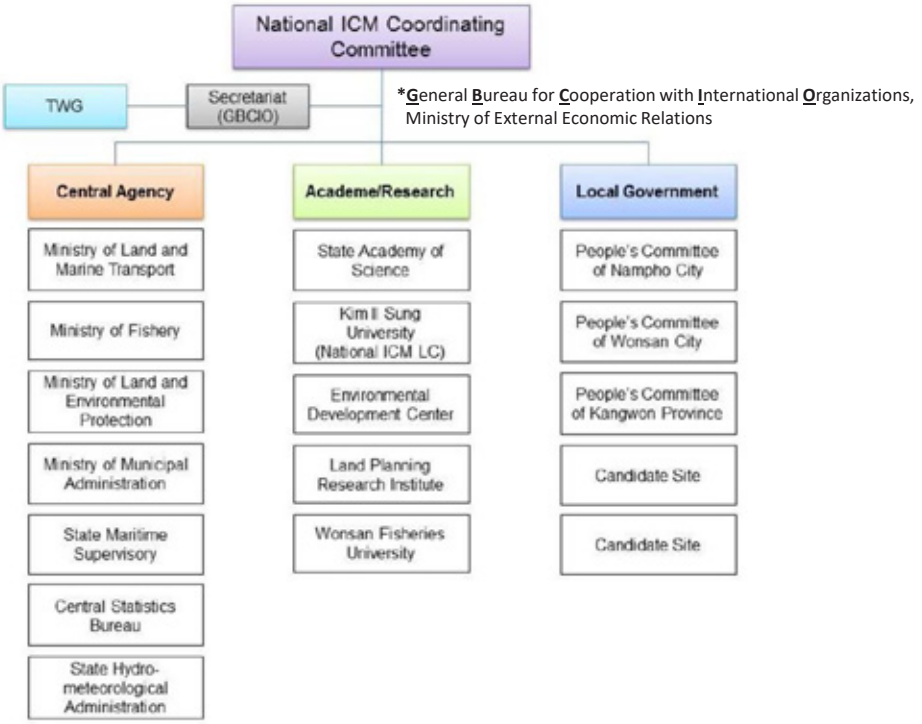
20 July 2017, Rome - DPR Korea's crop production for 2017, including staple rice, maize, potatoes and soybean, has been severely damaged by prolonged dry weather conditions, threatening food security for a large part of its population, according to a new FAO update prepar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r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PEMSEA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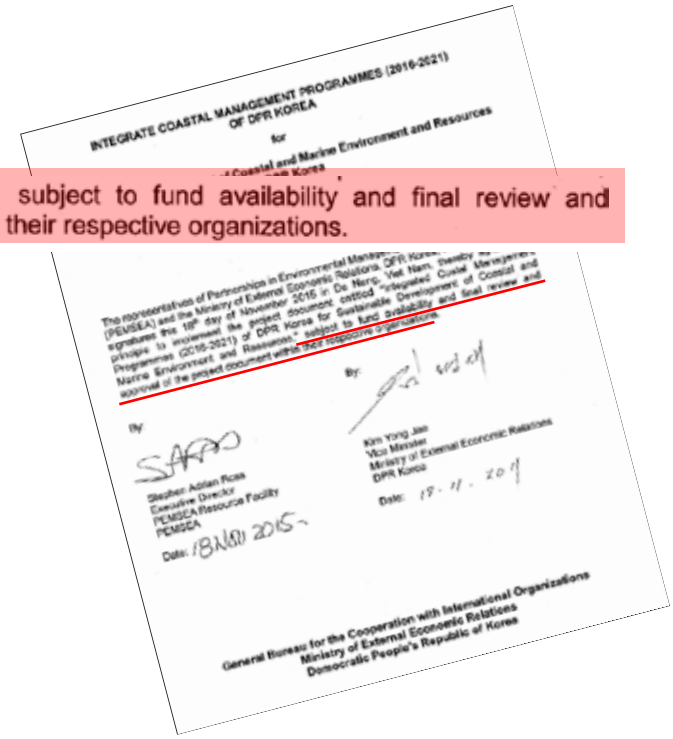
IMPLEMENTING MECHANISM OF ICM PROGRAMMES OF DPRK



PEMSEA

12/15

COLLABORATION WITH PEMSEA & ROK NON-COUNTRY PARTNERS


INTEGRATE COASTAL MANAGEMENT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subject to fund availability and final review and approval of the project document within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Stephen Adrian Ross
Executive Director
PEMSEA Resource Facility
PEMSEA

Kim Yong Jae
Vice Minister
Ministry of External Economic Relations
DPR Korea

General Bureau for th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inistry of External Economic Rel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MSEA

ICM PROGRAMMES (2016-2021) OF DPR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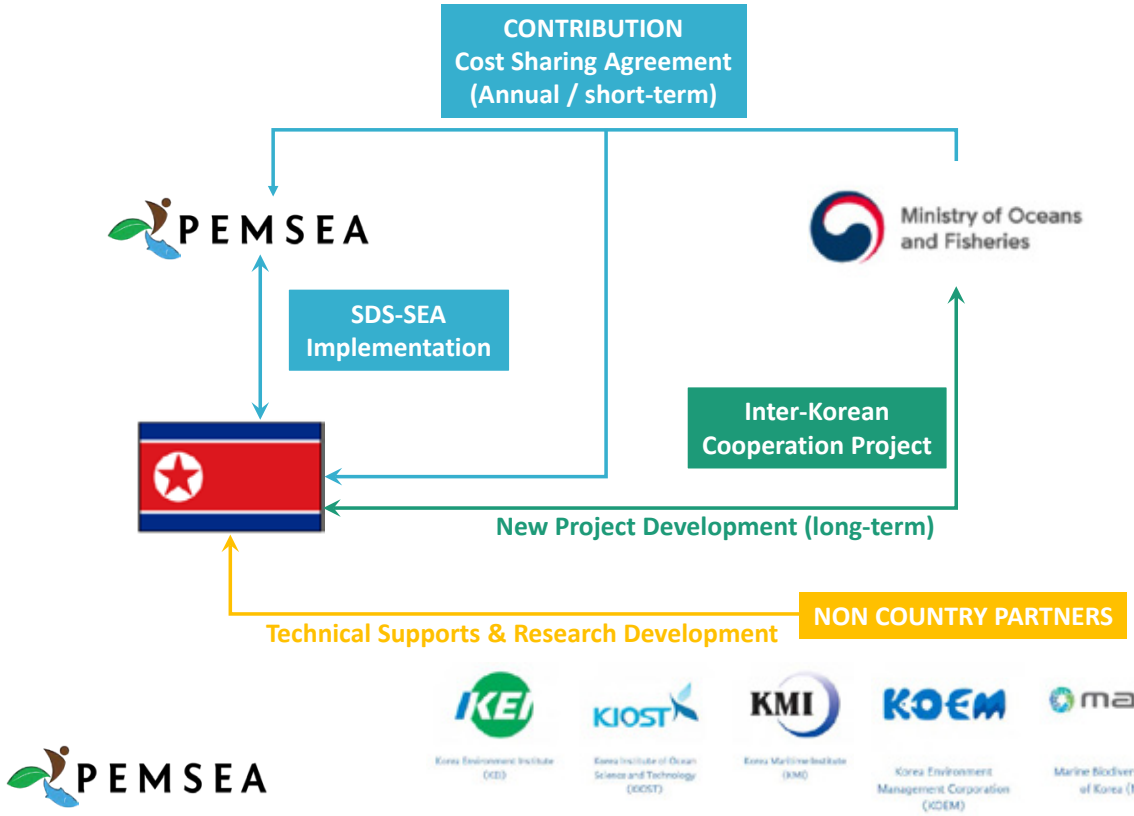
Action Programme	Expected Output	Budget (US$)
Objective 1. Strengthen Governance for ICM implementation		
1.1 Establish Functional ICM Coordinating Committee	1.1.1 National ICM Coordinating Committee established and functional	1,000
	1.1.2 National ICM Coordinating Office established and functional	5,000
	1.1.3 Technical Working Group established and operational	1,000
1.2 Set up National Coastal and Ocean Policy	1.2.1 National coastal and ocean policy drafted	5,000
	1.2.2 National coastal and ocean policy approved	1,000
1.3 Conduct Studies on Sustainable Financing Mechanism	1.3.1 Studies on sustainable financial mechanism conducted	5,000
	1.3.2 Report on sustainable financial mechanism approved	1,000
Objective 2. Build Capacity for ICM Implementation		
2.1 Develop a National ICM Capacity Development Programme	2.1.1 A comprehensive needs and gap analysis on national ICM capacity conducted	5,000
	2.1.2 A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me drafted and submitted for approval	1,000
2.2 Strengthen the National ICM Training Center	2.2.1 ICM curriculum, special skills training and training model course developed	5,000
	2.2.2 Training equipment and facility upgraded and modernized	10,000
2.3 Promote Knowledge Sharing and Public Awareness	2.3.1 National ICM Data Center established	50,000
	2.3.2 Yearly public awareness activities conducted	20,000
	2.3.3 Videos, posters and fliers for public awareness published	5,000
Objective 3. Scale up ICM Programmes to Cover 25% of Coastal Areas		
3.1 Develop the ICM Scale up Plan	3.1.1 Site identification survey and stakeholder consultation conducted	5,000
	3.1.2 ICM scaling up plan developed and submitted for approval	1,000
3.2 Develop ICM Programmes at New Sites	3.2.1 ICM coordinating office at each new ICM site set up	10,000
	3.2.2 ICM programme with work plan and budget developed	5,000
Objective 4. Establish State of the Coasts Reporting System		
4.1 Establish SOC Reporting System at Nampho and Wonsan	4.1.1 Nampho IIMS upgraded and Wonsan IIMS established	30,000
	4.1.2 IIMS and SOC training workshops conducted	20,000
	4.1.3 SOC Reporting System at Nampho and Wonsan established	50,000
	4.1.4 SOC reports for Nampho and Wonsan published	10,000
4.2 Scale up SOC Reporting System to New ICM Sites	4.2.1 IIMS and SOC Reporting System established at new ICM sites	50,000
	4.2.2 IIMS and Training workshops at new ICM sites conducted	20,000
	4.2.3 SOC reports at new sites published	30,000

Objective 5. Implement Priority Projec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1 Conserve Coastal Biodiversity	5.1.1 Survey on marine mammals and migratory bird species conducted	50,000
	5.1.2 Coastal biodiversity conservation plans for marine mammals and Wonsan-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Area developed	20,000
	5.1.2 Kumgang Biosphere Reserve and Anbyon RAMSAR site designated	10,000
	5.1.3 Anbyon ecotourism plan developed and implemented	30,000
5.2 Develop Sustainable Fisheries	5.2.1 Fisheries capacity and training needs assessment prepared	10,000
	5.2.2 Trainings on aquaculture techniques organized	20,000
	5.2.3 Pilot scale salmon culture system in Wonsan established	50,000
5.3 Manage Natural and Man-made Hazards	5.3.1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hazard mapping at priority coastal areas conducted	20,000
	5.3.2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plan developed	20,000
	5.3.3 Disaster early-warning system at priority ICM sites developed	50,000
Total budget	2016-2021 (6 years)	**627,000**

Action Programme	Budget (US$, K)
OB 1. Strengthen Governance	20
OB 2. Build Capacity	96
OB 3. Scale up ICM Programmes	21
OB4. Establish SOC Reporting System	210
OB5. Implement Priority Projects	280
Total Budget (2016 ~ 2021, 6years)	**627**

PEMSEA

FUTURE COLLABORATION



THANK YOU!

PEMSEA

www.pemsea.org

fb.com/pemsea

twitter.com/pemsea

NERETIN, Lev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5-5 Ushijimashin-machi, Tower 111-6F Toyama City, 930-0856 Japan

Dr. Neretin was appointed Senior Coordinator of NOWPAP in July 2016. He has over 15 years of experience in environmental science, policy-making and management, primarily leading and managing complex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the intergovernmental processes at the UNEP,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s a Programme Officer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Panel of the GEF (STAP) from 2008 to 2016, he provided technical advice to GEF policies, strategies, and programs on various global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marine litter, emerging chemicals, climate mitigation and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2013 to 2014 while working on the assignment for the UNEP Regional Office for Europe, Dr. Neretin led the preparation of the largest cross-sectoral international program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Russian Arctic “Arctic Agenda 2020”. Prior to joining the STAP, Mr. Neretin served as a GEF portfolio manager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UNEP and the regional project portfolio in the Russian Federation, Kazakhstan, Mongolia, and P.R. China. He was a primary technical advisor for the UN Inter-Agency Arctic Group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Resident Coordinator during that time. Earlier in his career, he worked as a Biodiversity Expert in the Caspian Environment Programme (2005-2006) and held a joint position a scientist at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Marine Microbology and the Federal Institute for Geo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Germany) (from 1997 to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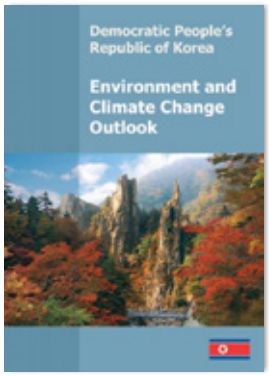
TEL: +81-76-444-16-11 FAX: +81-76-444-27-80 Email: lev.neretin@un.org

UNEP and NOWPAP past experience in collaboration with the DPRK: Lessons learned and ideas for the future

Lev Neretin, UNEP NOWPAP Senior Coordinator | 11 May 2018

Disclaimer: Views expressed in the presentation are solely of the presenter and do not imply the expressions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UNEP or contributory entities

Environmental situation in the DPRK



- ✓ DPRK is endowed with a wealth of natural resources.
- ✓ DPRK is at the highest risk from floods and is among the top 30 countries world wide most at risk of environmental emergencies.
- ✓ UNFCCC 2nd NC (2013) and INDC (2016) outlined priority mitigation and adaptation options.
- ✓ 5th CBD NBSAP (2014): DPRK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and their wetland habitats and the endangered plant & animal species of regional and global significance.
- ✓ Pollution issues: Air quality, ODS, Dust and Sand Storms, Freshwater Pollution

Source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2012),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PRK; DPRK's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2012);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2007)

DPRK Signed or Party to Several MEA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 ✓ The essence of the UN's work in the DPRK is not principally about resource transfer but about sharing and transferring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values.
- ✓ The Framework identifies four strategic priorities:
    1. Food and Nutrition Security
    2. Social Development Services
    3.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4. 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 ✓ **Strategic Priority 3 Outcomes:** Local communities can better cope with and respond to impacts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Local communities hav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government agencies apply integrated and equitable approaches to environmental management, energy,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Past Activities in the DPRK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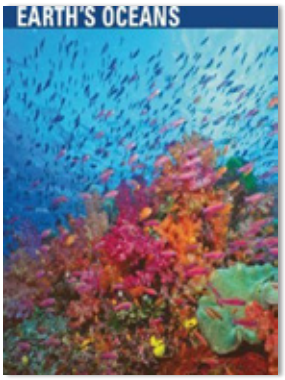
- Framework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Environment between UNEP and DPRK (2004)
- A National Biosafety Framework, a national policy on biosafety and biotechnology, draft interim regulations; draft law on biosafety (2002-2004)
-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 (2003)
- GEF- project: Updating of NBSAP and 2nd National Report to CBD (2007)
- Compliance Assistance Programme through Data Reporting, Policy Support,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HCFC Phaseout (also UNIDO)
- UNEP-UNDP: Strengthen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completed in 2006)
-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Report (2012)
- DPRK UNEP Trust Fund (2007 - …)

Past UNEP Activities: Lessons Learned

Effectively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onditions in DPRK requires iterative management process through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anagement, and knowledge sharing across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investment and policy responses should be assessed against sustainability principles and criteria:

-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actions with co-benefits that improve food security, strengthen local livelihoods and provide alternative energy sources so as to reduce the key drivers of ecosystem degradation, especially deforestation.
- Gradually shift towards mainstream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 Interest in low carbon growth and replacement of coal with renewable energy alternatives.
- Legislation and policy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by measurable targets

UNEP Thematic Priorities for Oceans: Achieving SDG 14



- ✓ **Oceans and Climate Change**
- ✓ **Coral reefs**
- ✓ **Application of ecosystem-based management at the regional level - Regional Seas Programmes (incl. NOWPAP)**
- ✓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and GPA source categories (nutrients, wastewater, and marine litter)**
- ✓ **Blu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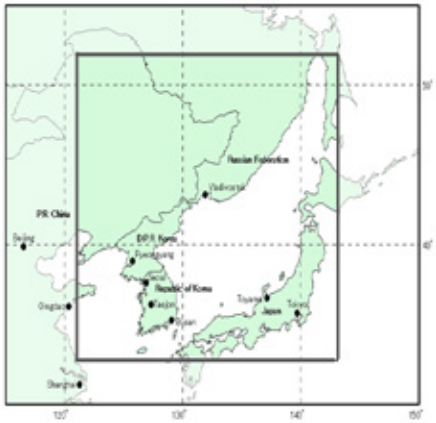
Through the Looking Glass: Ideas for cooperation principles

- ✓ Focus on the achievement of SDGs, particularly SDG 14 - environmental mainstreaming into sustainable ocean development (green-blue economy)
- ✓ Develop further initiatives/projects that have been proposed earlier or already tested
- ✓ Single-sector solutions may be tempting, but focus on systems (food, energy, and water) and how to improve their sustainability
- ✓ Build coastal resilience to climate impacts
- ✓ Embrace local to national to regional to global in each initiative - transboundary is a word
- ✓ Look for tangible projects combining technical assistance (knowledge and capacity building), policy support, investment (programs are better than projects), and public outreach
- ✓ Partner with UN organizations and MDBs as trust-building brokers (with ease of economic sanctions)

Support DPRK to Develop Sustainable Ocean Economy

- ✓ Support development of the DPRK's Blue Growth Coastal Master Plan leading to Blue Growth Investment
- ✓ Select two pilot transboundary sites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and West Se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for the development of two regional 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s
- ✓ Develop the Portfolio of Blue Growth Strategic Projects in DPRK
- ✓ Establish Regional Blue Economy Partnership (China, DPRK, Russia, and South Korea) with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and global institutions

NOWPAP potential role in the DPRK engagement



- ✓ As a regional UN mechanism, NOWPAP will look for ways and means to bring DPRK as an observer and eventually as a full member
- ✓ All current 4 priority areas of NOWPAP MTS 2018-2023 are of relevance to DPRK
- ✓ Two existing regional plans (RCP and RAP MALI) and planned (RAP MABI) are incomplete without DPRK
- ✓ NOWPAP (and COBSEA) are a conduit/intermediaries in engaging DPRK into UN marine-related issues and UN-led ocean partnerships
- ✓ NOWPAP offer: knowledge transfer,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as well as policy development support to DPRK

SELIGER, Bernhard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13 Hannamdaero 20-gil, #401 (Sooyoung Bldg., Hannam-dong),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Dr. Bernhard J. Seliger is currently resident representative of Hanns Seidel Foundation in Korea, based in Seoul, consulting NGOs,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s in questions of unification.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where he implements capacity-building projects, among others in forestry, biodiversity, organic agricul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e serves as associate of North Korean Review as well as founding editor of the website www.asianintegration.org.

For 10 years, he also work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 the inner-Korean border area. In 2006 the honorary citizenship of Seoul was conferred by the later president of South Korea, then mayor Lee Myung-Bak, on Bernhard Seliger. In 2012 he became honorary citizen of Gangwon province, partner province of Hanns-Seidel-Foundation in implementing proj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order area.

From 1998 to 2002 he worked a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r. Seliger holds a habilitation (postdoctoral lecture qualification) at the University of Witten-Herdecke from 2007 and a doctorate (Dr.sc.pol.) at the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Christian-Albrechts-University at Kiel (Germany) from 1998. Dr. Seliger also holds a degree (Maitrise en sciences économiques) from 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France).

Tel: +82-2-790-5344 Fax: +82-2-790-5346 Email: info@hss.or.kr

Hanns Seidel Stiftung

HSF and Environment Cooperation with DPRK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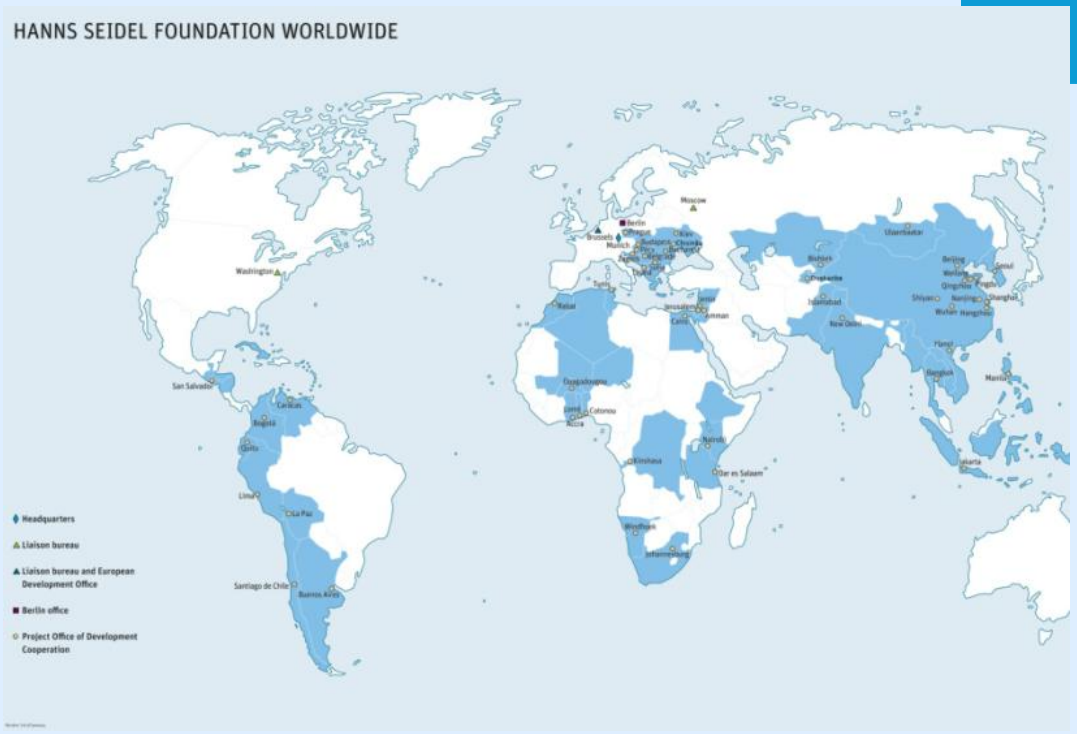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May 11, 2018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HSF worldwide

Hanns Seidel Foundati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Our goal: helping North Korea to reconnect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 Through knowledge transfer and training
- Through joint research
- Through supporting activities in a diversity of fields: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2010-2014)
- Sustainable Forestry (since 2007/ 2014-present)
- Wetland conservation and bird protection (since 2015)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Knowledge transfer and traini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Joint research: research project on aquaculture 2011-2012

조선 동서해 바다가양식상황 및

발전전망과 관련한 자료

주체 101(2012)년 7 월

농림수산식품 제82130호

표 창 장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젤리거

귀하는 양식어업 제도 발전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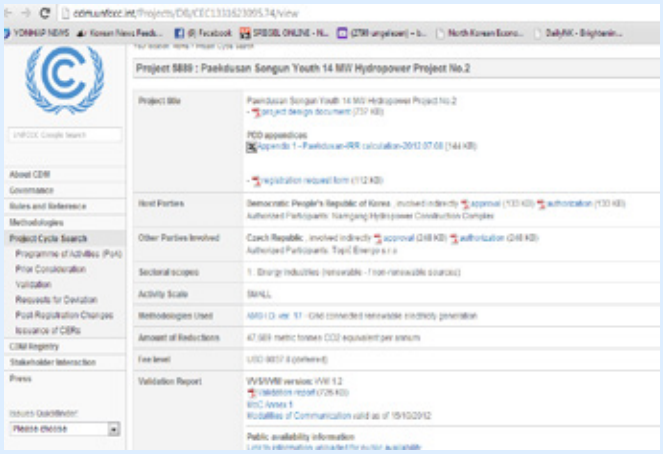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Renewables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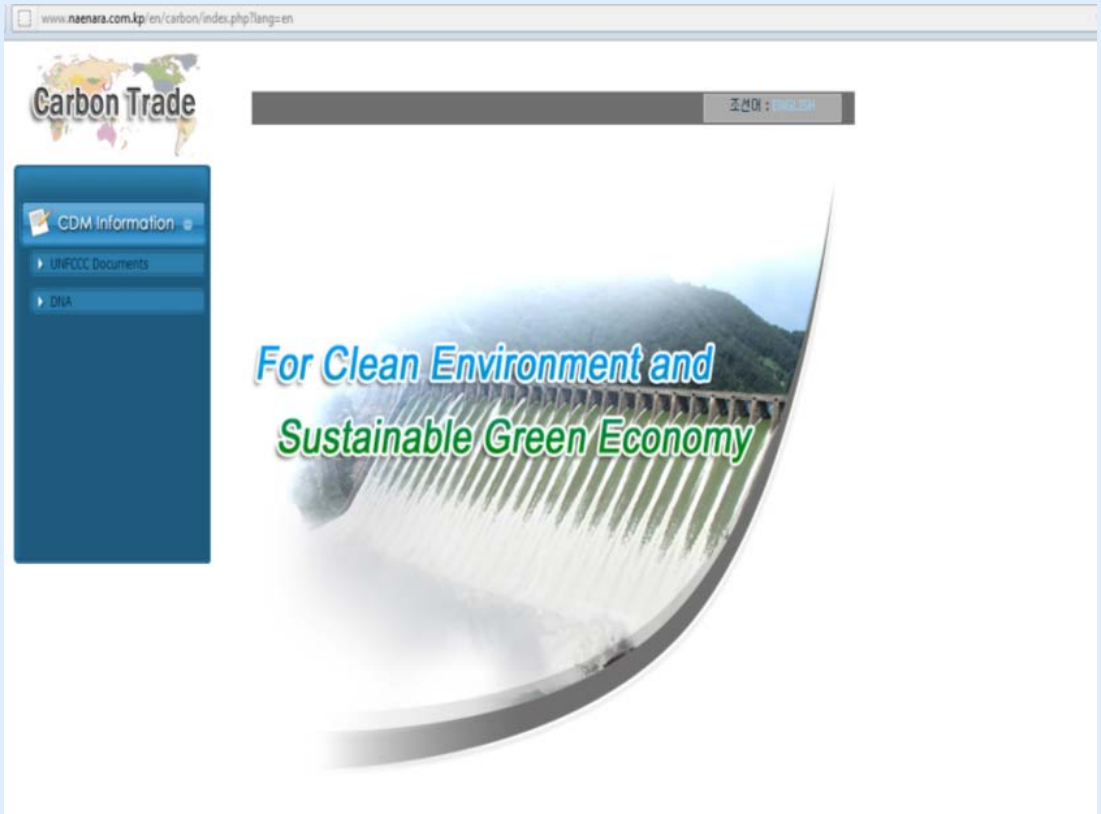
Registration of CDM-Projects since 2010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Pilot projects on renewable energies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Consulting and Training since 2010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Sustainable Forestry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Consulting and training in forestry since 2008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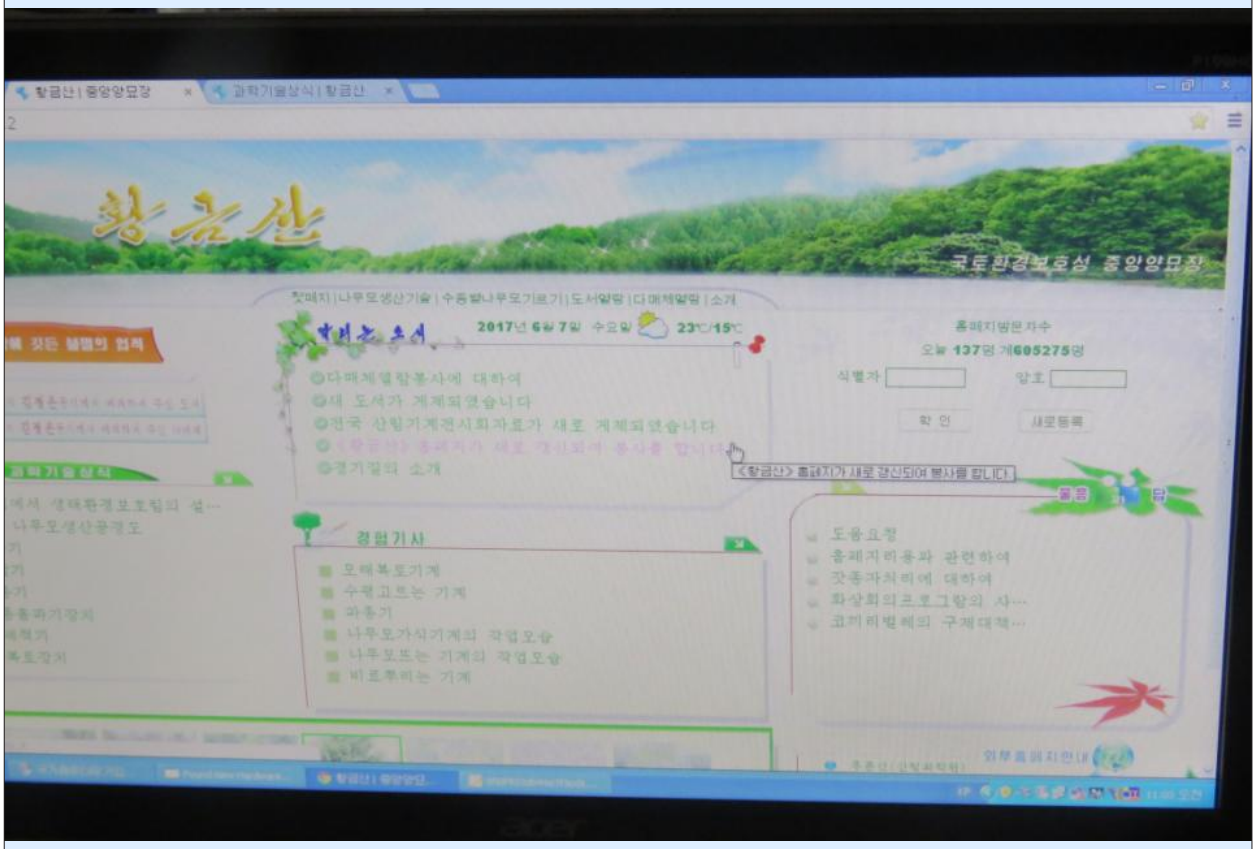
Sangseo-Ri 2012…

Start of a EU funded project on sustainable forestry (training centre and model afforestation) in 2014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Sangseo-Ri 2016…

und Entwickl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a common thread of all activities: trust-building between North and South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Work on wetlands

North Korea became the 170th member of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and the 35th member of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This is the result of 3 years cooperation, capacity-building and dedicated work by many partners, foremost the MoLEP of North Korea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DPRK in international flyway and wetland cooperation – recognition of efforts, but also new responsibilities...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let's work on it together!

Awareness raising (Rason Trade Fair 2017)

Research (East Coas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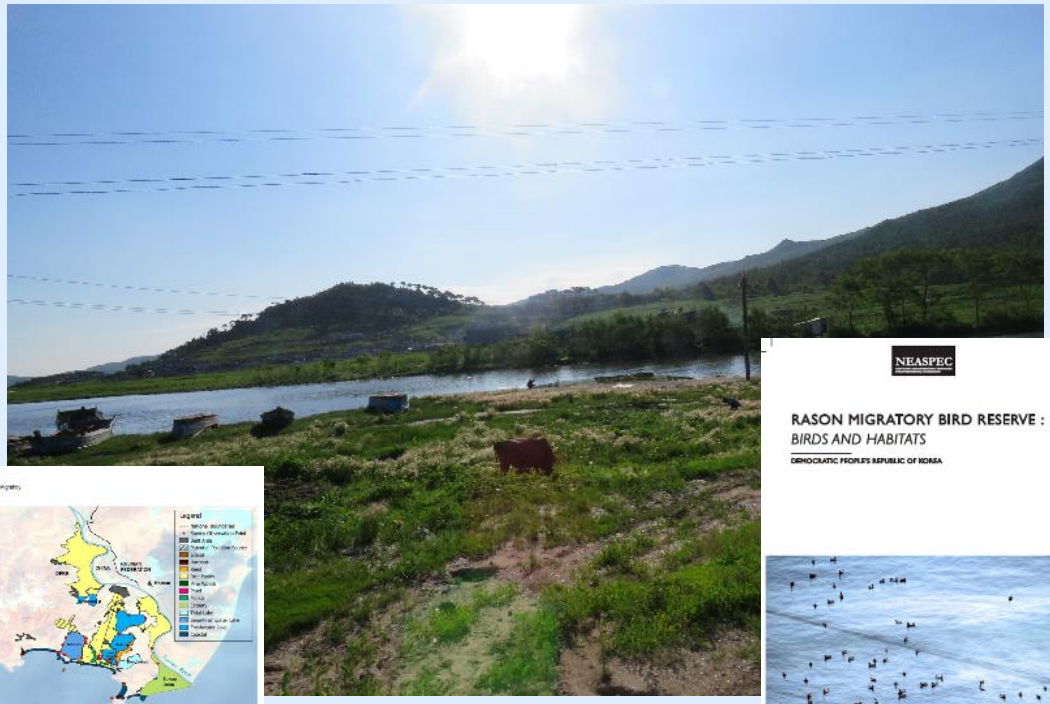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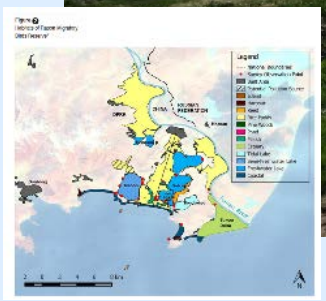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 key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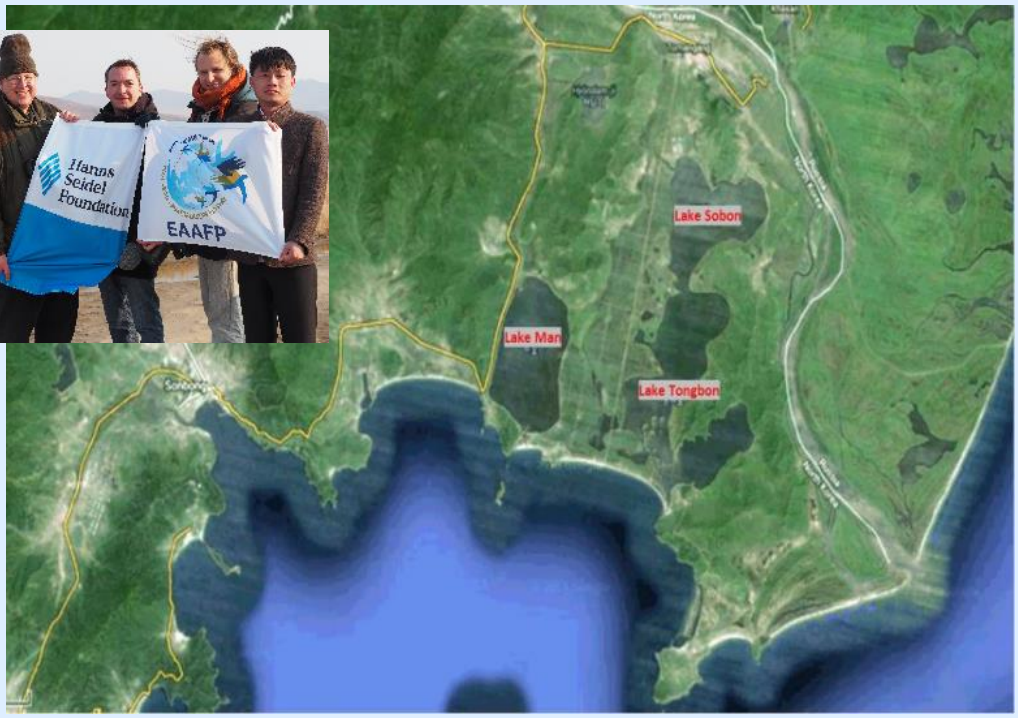
The example of Rason migratory bird reserve





Im Dienst von De klung

An update of Rason (March 2017)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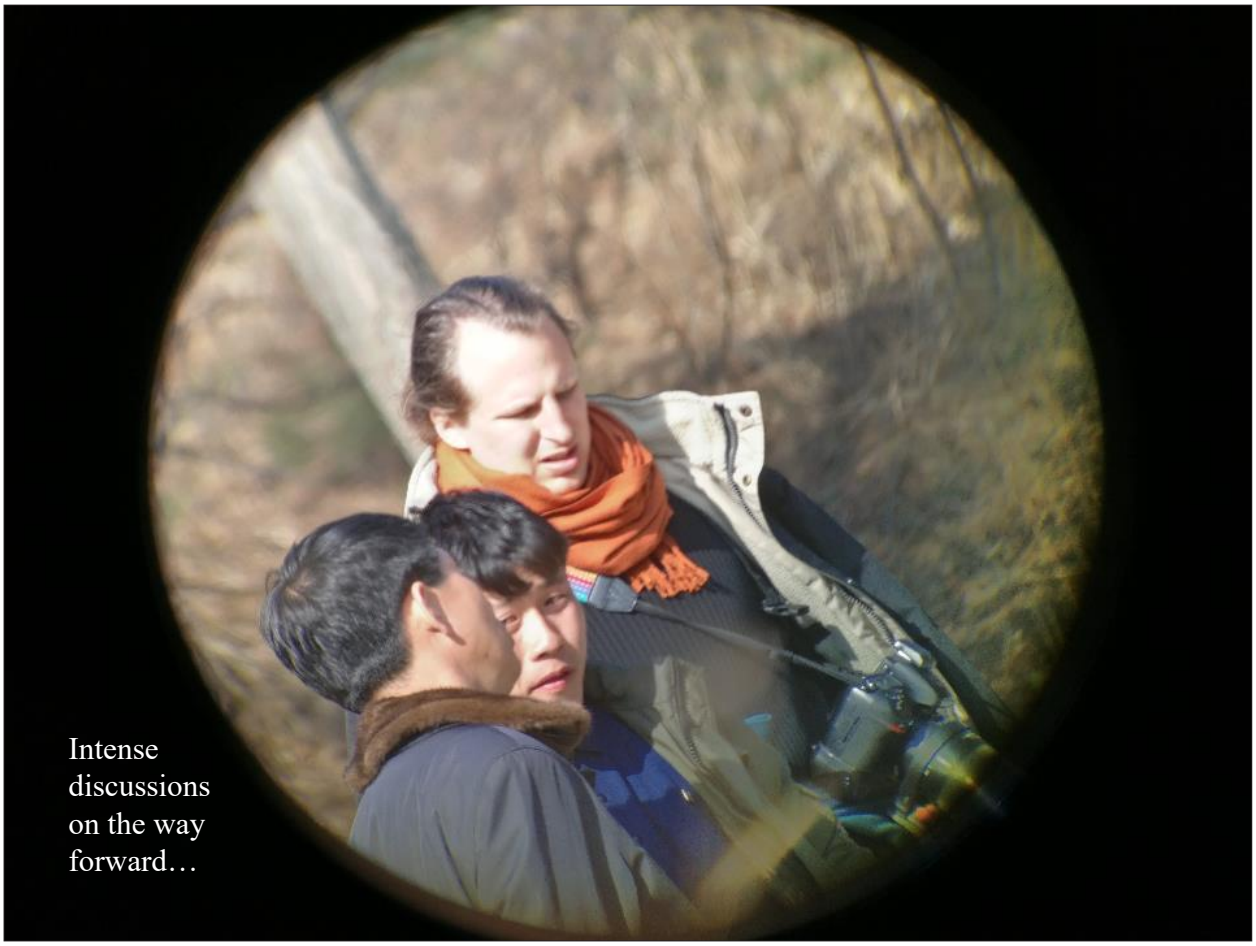
Some rare species confirmed and/ or newly documented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Rason – city of swans…

220 Whooper swans and 200 Mute Swans were counted, and for the first time at least two Tundra swans were documented (left, in the center)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Intense discussions on the way forward…

Coming challenges in Rason

-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training for the new Ramsar site (e.g. reedbed management)**
- **Eco-tourism to attract attention,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generate local income**
- **…reaching beyond the borders?**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Towards a Swan Festival in R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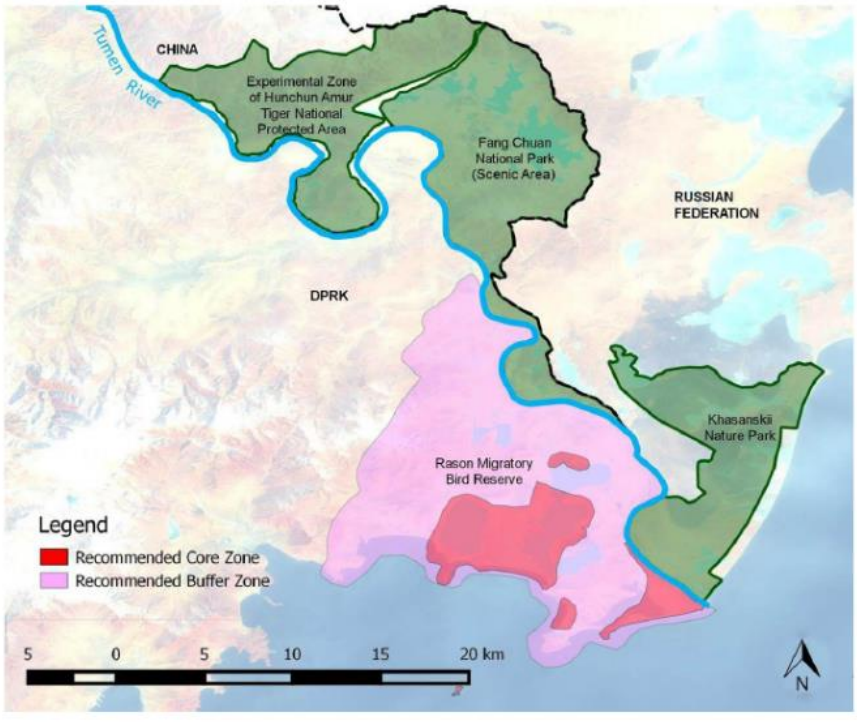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Boat based tourism to Al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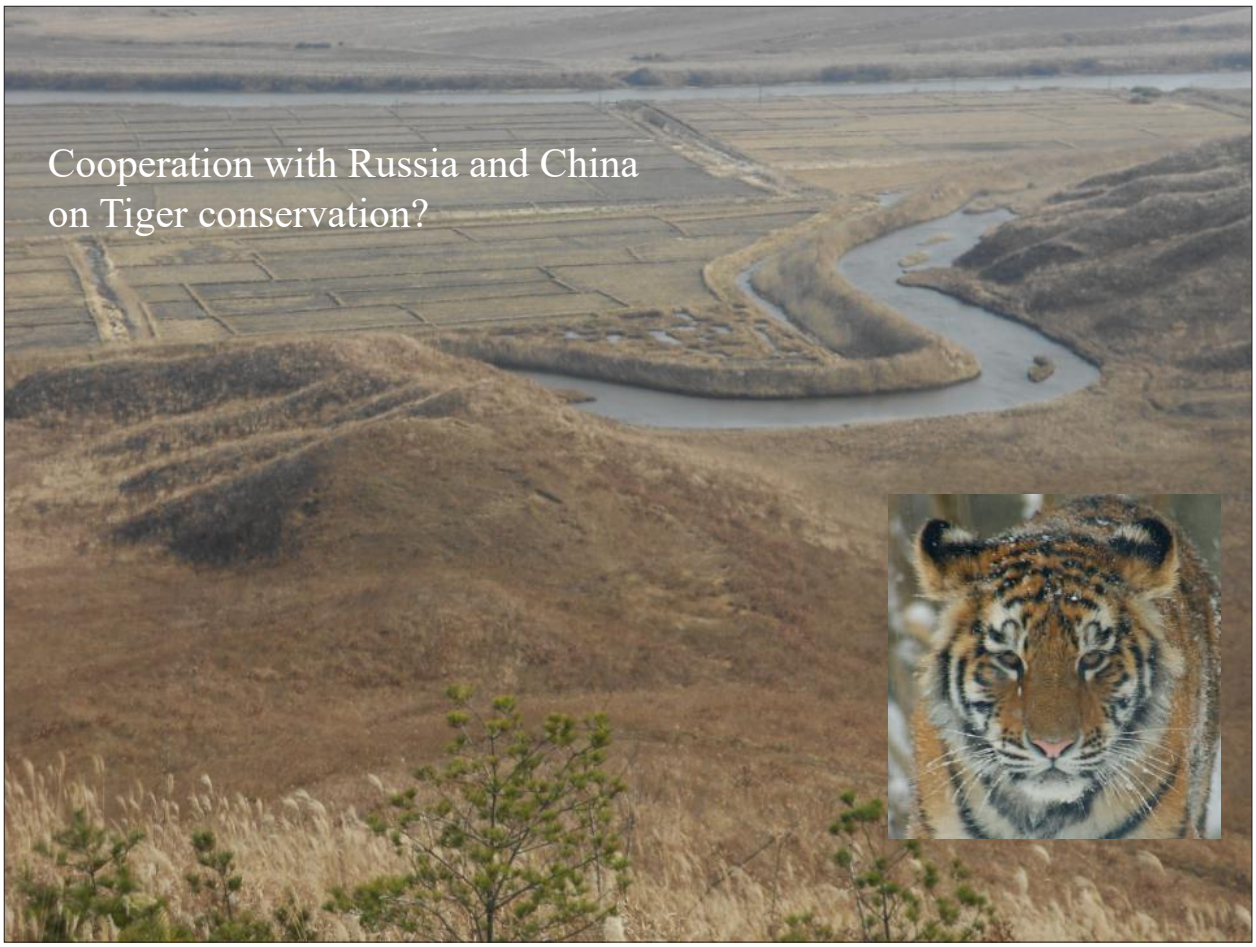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Figure 4
Wetlands and Key Protected Areas in China,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Tumen River Delta

Towar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Tumen Delta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What did we learn? Some general principles of interaction

- Interaction should not undermine sanctions, pressure
- Interaction must be transparent, though not everything has to be said always immediately (trust of dialogue partners must be achieved)
- Interaction can only work when treating the North Korean side as a partner (not a target to destabilize)
- Information flows will change North Korea in various ways, and „subversive“ information might not be the most effective one
- Invest in people and knowledge, not in „hardware“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Some proposals based on our experience

- Make the inter-Korean fund available for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scientist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 Support North Korea‘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 training, membership fees, travel cost)
- Support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scholarships for North Korean students
- Propose joint research projects (e.g. GEF, GCF)
- Support international research activities in North Korea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고맙습니다

Hanns Seidel Stiftung

Im Dienst von Demokratie, Frieden und Entwicklung

한반도 주변해역 현황 및 남북협력 방향

Status of Marine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Direction of Cooperation

KHIM, Jong S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Dr. Jong Seong Khim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obtained a B.S. Degree in Oceanography and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Marine Bi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n expert in the fields of Marine Benthic Ecology and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His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a broad spectrum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topics: biodiversity, bioassays, ecological quality, marine pollution, sediment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He edited 2 books (American Chemical Society Symposium Series) and 3 book chapters, and published over 140 peer-reviewed SCI journal articles, with total citations of >4,500 and Hirsch (h)-index of 34 at present. He also made about 200 abstracts rea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He is a recipient several research awards including 2014 International Cooperation Award for Young Scientist awarded by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He currently serves as editors for several international journals including PLoS ONE, Ocean Science Journal, Frontiers in Marine Science,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Chemospher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el: +82-2-880-6750 Fax: +82-2-871-3269 Email: jskocean@snu.ac.kr

지속가능한 연안해양생태계와 남북협력 국제워크샵
2018. 05. 11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Status of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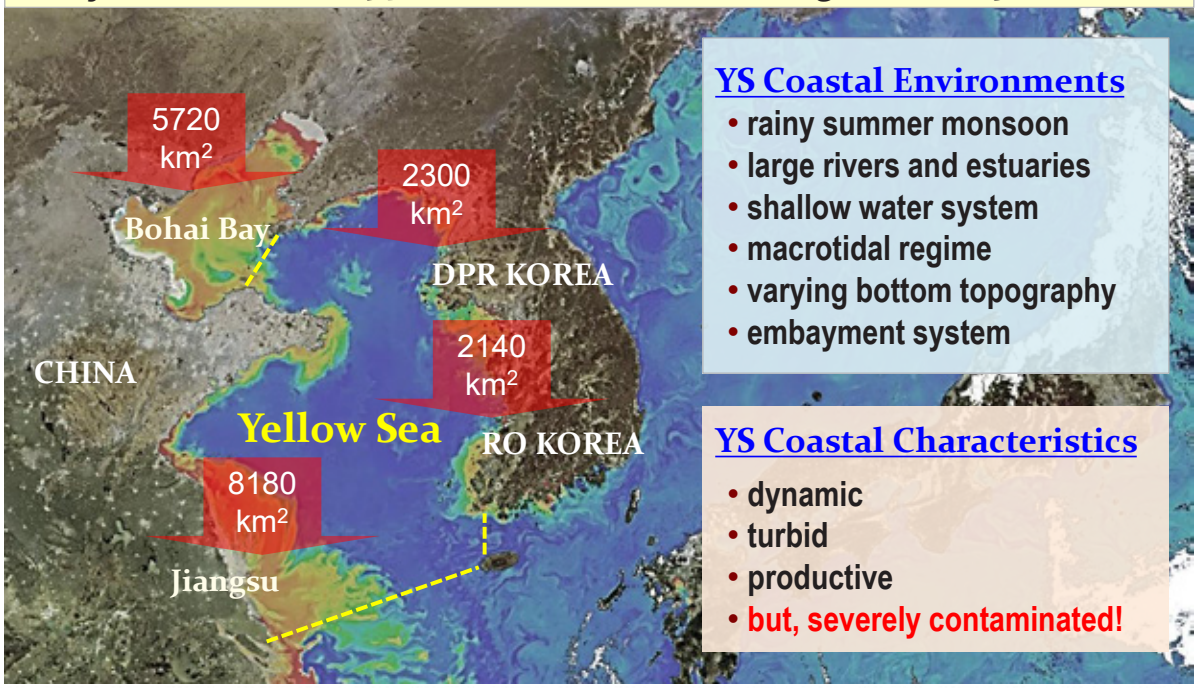
Jong Seong Khim, Ph.D.

Professor of Marine Biology
Laboratory of Marine Benthic Ecology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ttp://benthos.snu.ac.kr
jskocean@snu.ac.kr

Today's Focus: the Yellow Sea

Total area of tidal flats in the Yellow Sea: ~18,000 km²
(*cf.* Wadden Sea: ~4,700 km² or Australian mangroves: ~11,500 km²)



YS Coastal Environments
- rainy summer monsoon
- large rivers and estuaries
- shallow water system
- macrotidal regime
- varying bottom topography
- embayment system

YS Coastal Characteristics
- dynamic
- turbid
- productive
- but, severely contaminated!

CONTENTS

YES: Yellow Sea Ecosystem Symposium

Yellow Sea Study
1. Backgrounds
2. Goals, approach, & methods
3. Monitoring efforts
4. Key results
5. Remarks

Acknowledgements

BENTHOS
Laboratory of Marine Benthic Ecology

YES 2016; 2nd Meeting in Seoul, KOREA; ~100 people

Keynote speakers

Symposium

Banquet w/ JPG

30 papers in V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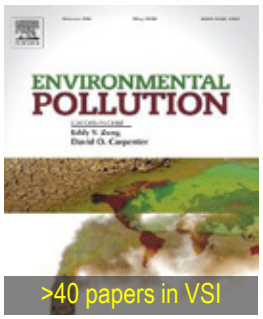
YES 2017; 3rd Meeting in Beijing, CHINA; ~120 people

Keynote speakers

Dr. Nam's talk

Banqu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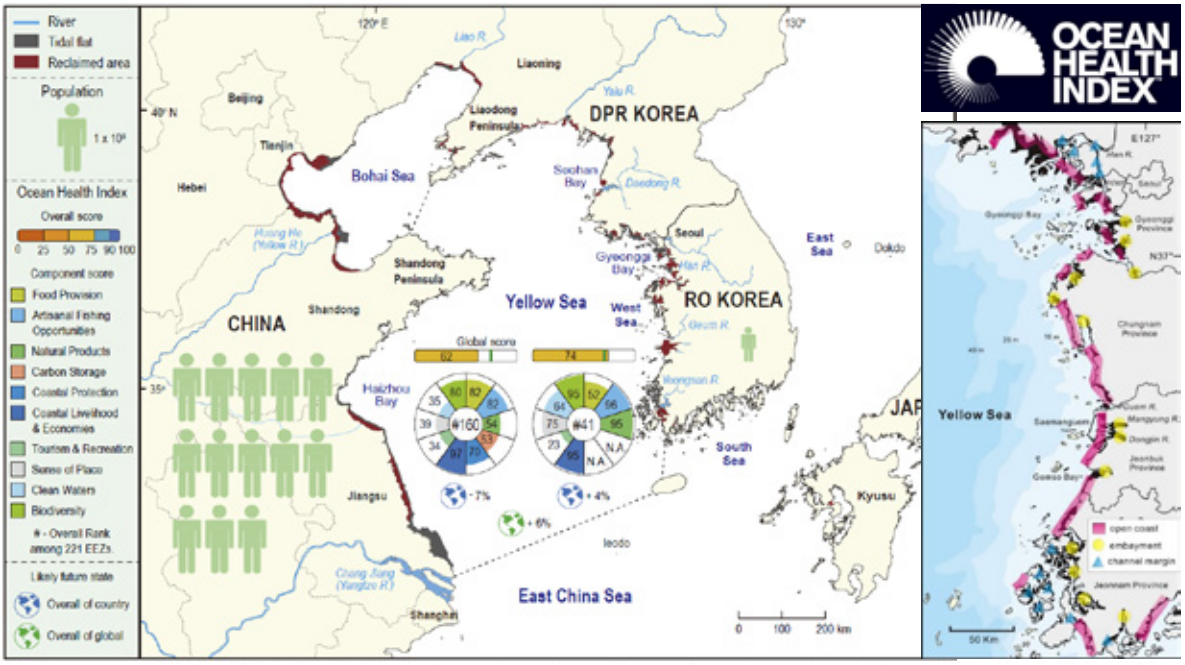
Field-trip



>40 papers in VSI

1. Backgrounds: Yellow Sea coastal pol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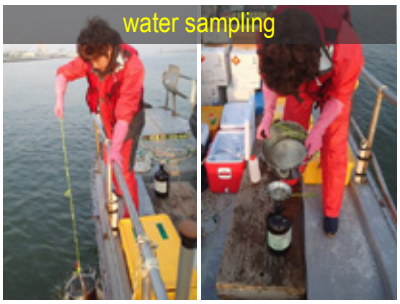
Continuing significant issues of coastal pollutions in the Yellow Sea densely populated, highly industrialized, & grand land reclam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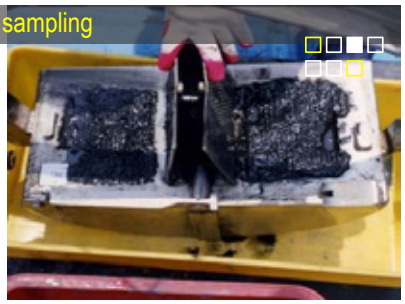


2. Goals, approach, and methods

Integrated assessments of the coastal environment & ecosystem
a triad approach encompassing three compon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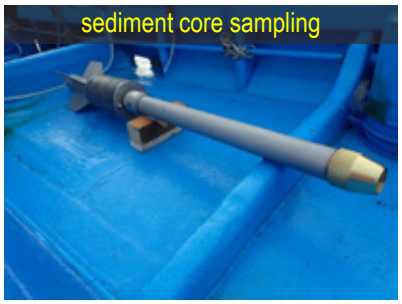
C Chemistry	T Toxicology	E Ecology
Metals Pesticides PAHs PCBs PCDD/DFs PBDEs PFCs Alkylphenols Bisphenol A Plasticizers Pharmaceuticals	Comet H4IIE MVLN MDA H295R Microtox Copepod Amphipod Fish Embryos Fish Larvae Adult Fish	Microbiome Microphytobenthos Macroalgae Meiofauna Macrofauna F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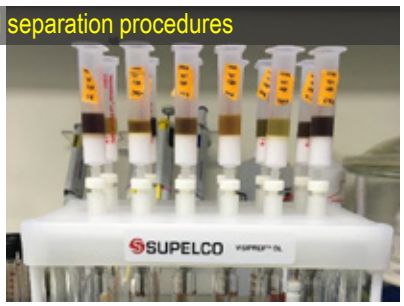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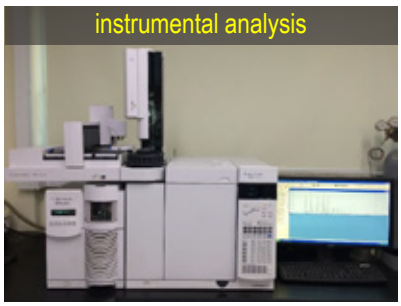


C Chemistry

Instrumental analyses of target chemic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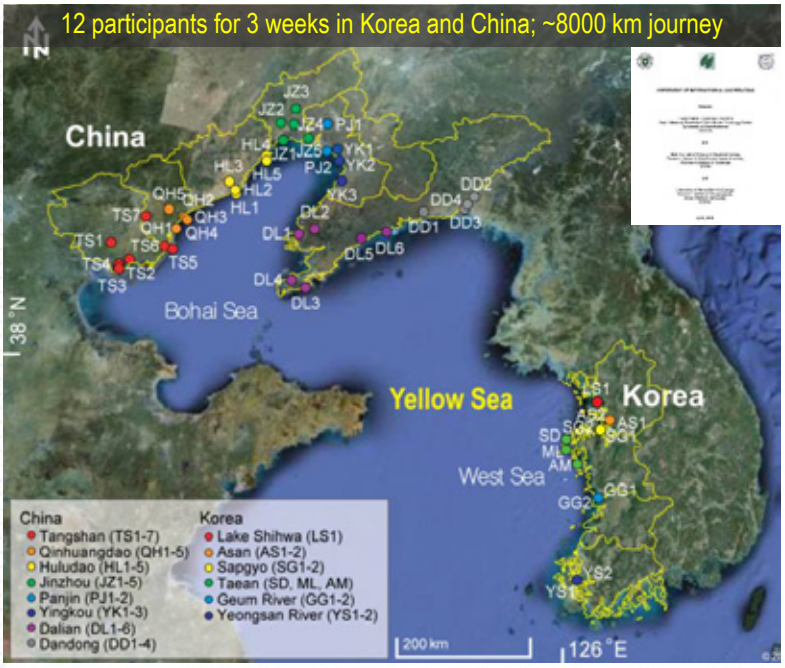


H4IIE-luc & MVLN in vitro bioassays
Microtox total toxicity test
Microalgal test
Adult fish test
T
Toxicology
In vitro bioassays
In vivo bioassays
Starfish toxicity test
Zebrafish & Marine medaka embryo test
Amphipod toxicity test

Microphytobenthos
Meiofauna
Macrofauna & Fish
Indoor test: population change
E
Ecology
Indoor & Outdoor mesocosms
Indoor test: community responses
Outdoor test: nutrient effects
Outdoor test: oil contamination + purification methods applied
Nut.+Straw
OSE II
Nut.+EM
Nut.+Microorgainsm
Nutrient
Cont.

3. Monitoring efforts: Survey of the Yellow Sea coasts

The coastal pollution study in the Yellow Sea, since 2008
>200 of water, soil, sediment, & biota sampled from ~50 locations



group photo at Qinhuangdao, China

soil

sediment

water

biota

3. Monitoring efforts: Survey of the west coast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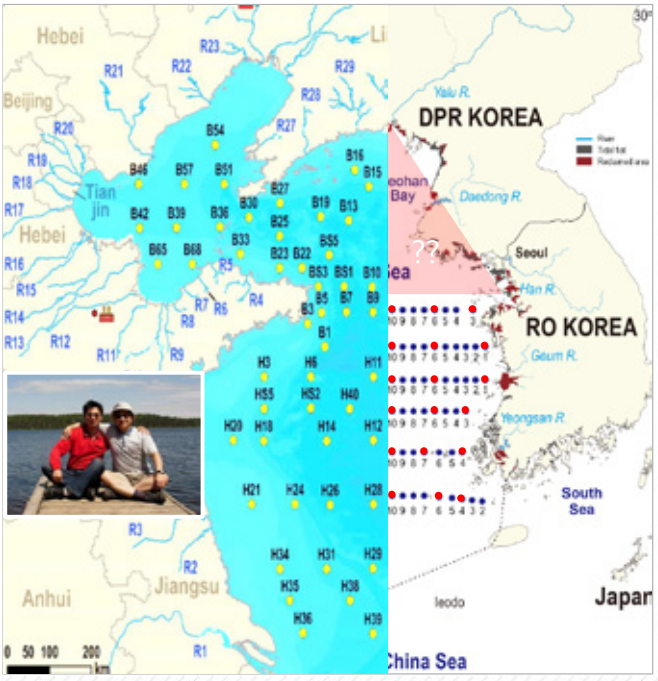
Long-term monitoring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since 2008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5-20 stations annually

3. Monitoring efforts: Survey of the Yellow Sea offshore

Extended to offshore monitoring in the Yellow Sea, since 2017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0 stations in Aug 2017 and Feb 2018

Offshore survey in summer, Aug, 2017

Offshore survey in winter, Feb, 2018



3. Monitoring efforts: Survey of the Yellow Sea coasts

A break!
photos at the border of the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view on board at the Yalu River

North Korea view at the Yalu River

at Cheonji in the Paektu Mountain

4. Key results: Selected review 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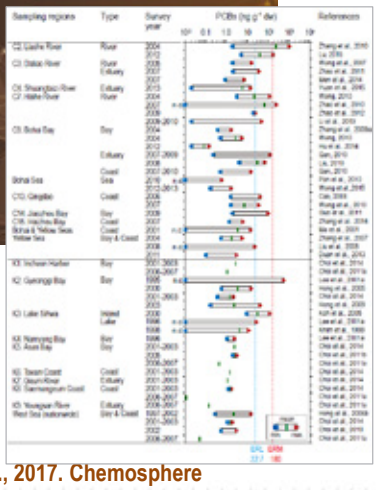
Key review papers from our coastal pollution study since the 1990s
approach or idea improved: TIE → SQT → EDA → S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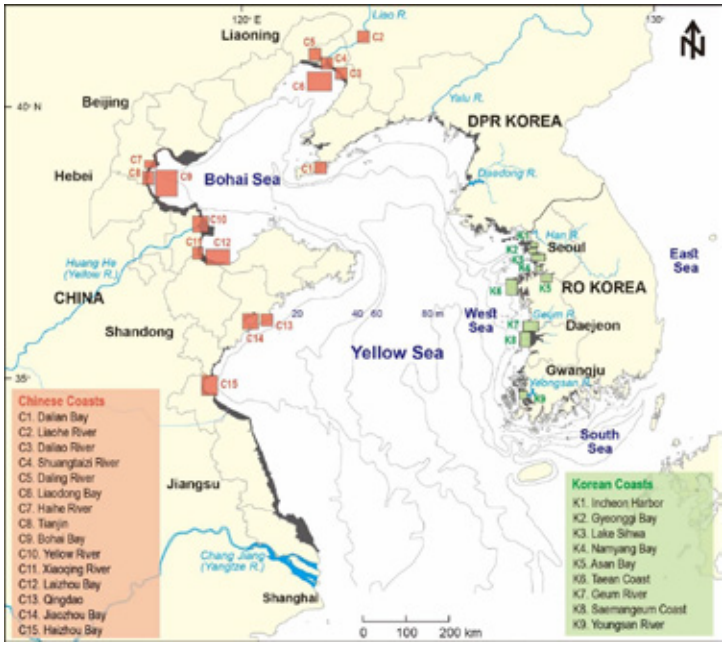
P-I 1990s — Sediment TIE → P-II 2000s — SQ-Triad → P-III 2010s — EDA

C (Chemistry) — T (Toxicology) → C — T — E (Ecology) → C ↔ T ↔ E

4. Key results: Chemistry

Traditional & new POPs along the coasts of Korea and China
OCPs, PCBs and PFASs were the most widely contaminated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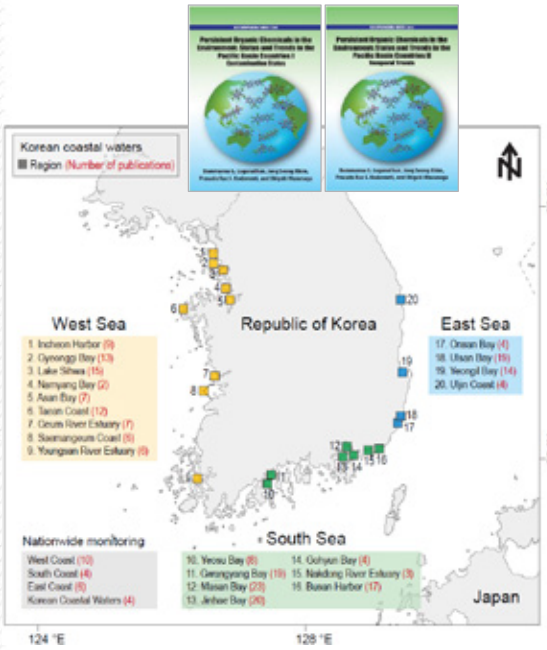




Meng et al., 2017. Chemosphere

4. Key results: Chemistry

Persistent toxic substances in sediments of Korean coastal waters
A Review: meta-data analyzed for the 12 groups of PT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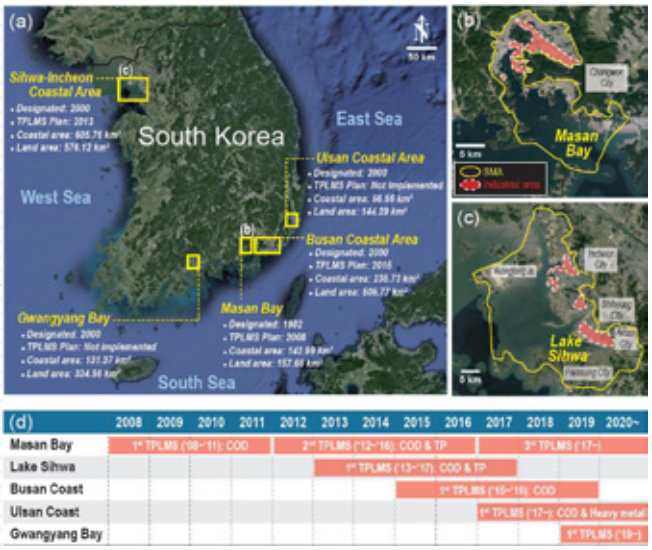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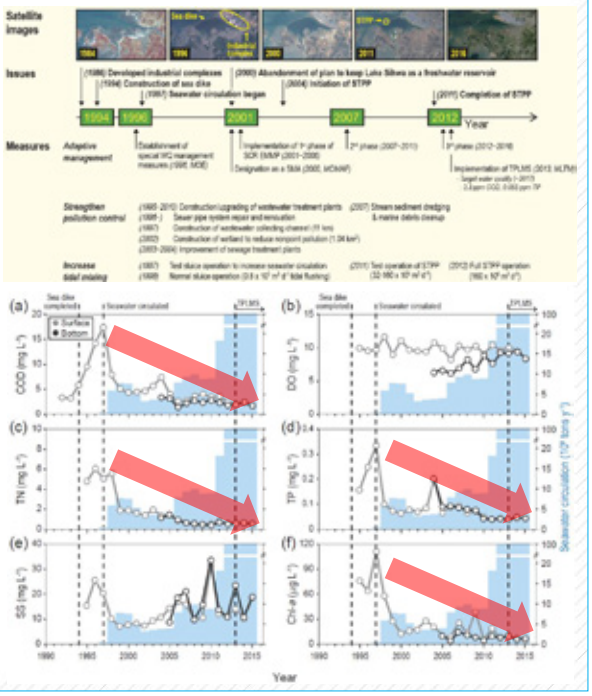
Chemicals	Key sources	Hotspot area		
		1st	2nd	3rd
PCDD/Fs	By-product (combustion)	Sihwa	Yeongil	Masan
PCBs	Dielectric fluids	Gyeonggi	Busan	Yeongil
DDTs	Insecticide	Masan	Ulsan	Incheon
HCHs	Insecticide	Masan	Sihwa	Yeongil
CHLs	Insecticide	Incheon	Ulsan	Masan
PAHs	By-product (combustion)	Yeongil	Ulsan	Gwangyang
Alkyl-PAHs	Oil spill accident	Taean	-	-
NPs	Industrial chemical (detergent)	Sihwa	Yeongil	Masan
BTs	Biocide and anti-fouling paint	Ulsan	Busan	Jinhae
PBDEs	Flame retardant	Sihwa	Busan	Ulsan
HBCDs	Expanded polystyrene foam	Jinhae	Onsan	Yeosu
SOs	Polystyrene plastics	Sihwa	-	-

Hong et al., 2016. ACS Symposium Series 1243 & 1244

4. Key results: Chemistry vs. Ecology

Temporal trends of coastal pollutions & ecosystem responses
Case studies for Special Management Area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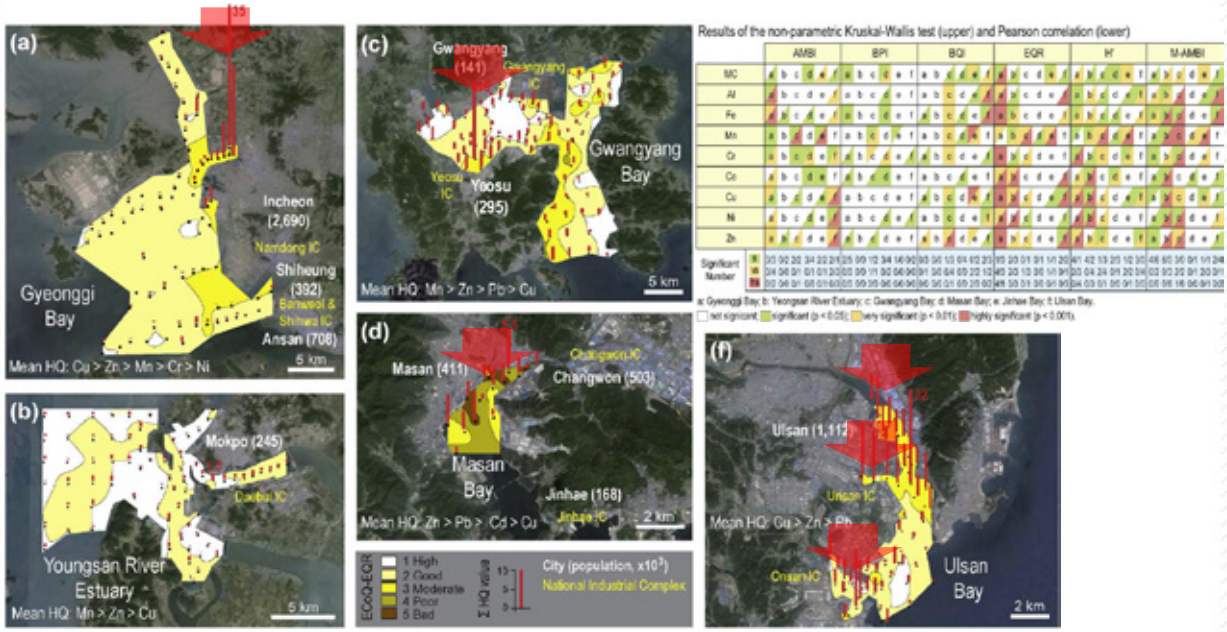




Lee et al., 2016. ACS Symposium Series 1244

4. Key results: Chemistry vs. Ecology

Assessment of benthic ecological quality in the Korean coastal areas
Benthic community linked to pollution gradients of heavy metals



Ryu et al., 2016. Sci Total Environ

4. Key results: Ecological quality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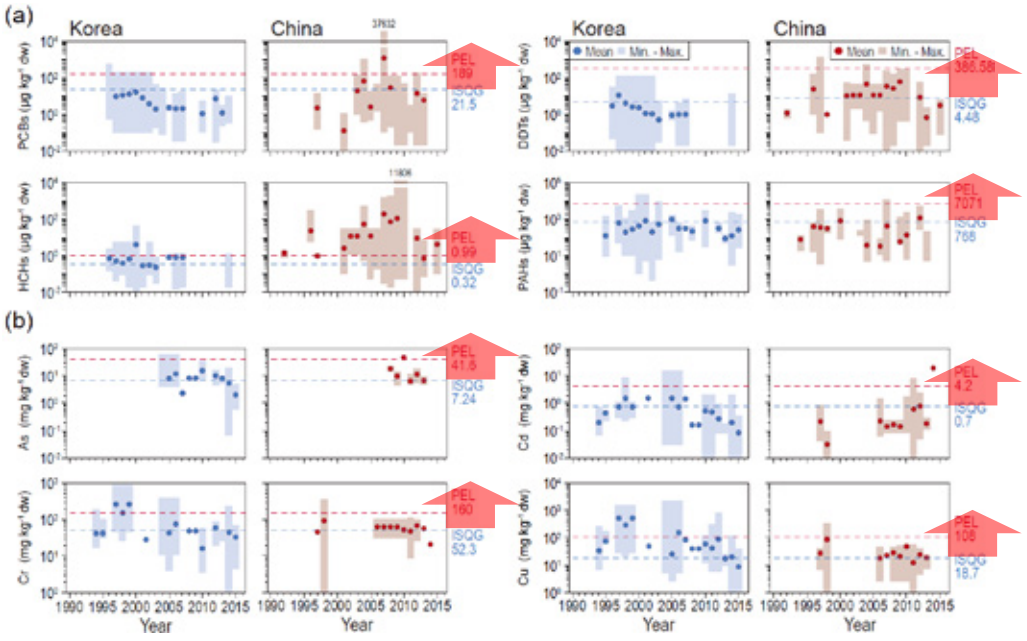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tentative ecological quality objectives
meta-data obtained from the coasts of Korea and China analyzed

Ecological Quality Elements	Ecological Quality Objectives	Status of Ecosystem Health: Korea	Status of Ecosystem Health: China
Biodiversity	*Number of species and richness?*	👍	👍
Invasive species	*Newly introduced invasive species?*	?	?
Eutrophication	*DIN and DIP concentrations?*	👍	👍
	Hypoxia and red-tide occurrences?	👎	👎
Pollutants	*Sedimentary PTSs and metals concentrations?*	👎	👎
Marine litter	*Marine litter and microplastics densities?*	👎	👎

Khim et al., 2018. submitted

4. Key results: Ecological quality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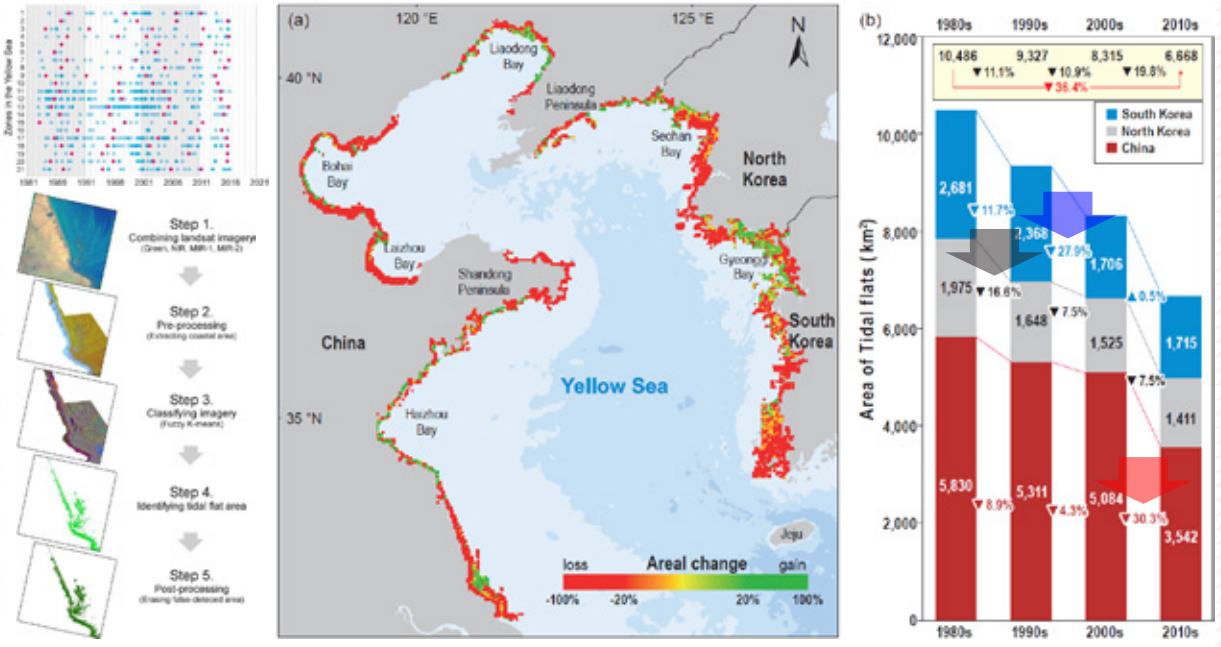
[EcoQO 5] Conc. of sediment pollutants should not exceed the SQGs conc. exceeding SQGs found in Korea/China; failed to meet the goal



Khim et al., 2018. submitted

4. Key results: Ecosystem services, loss or 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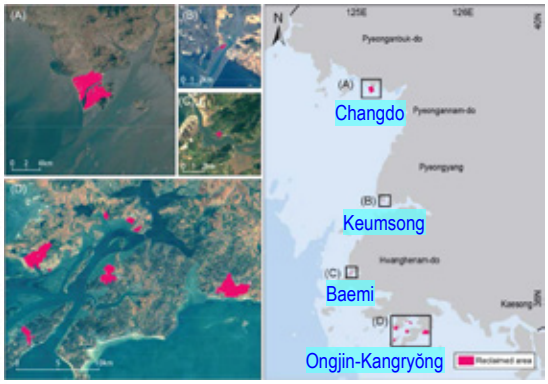
40 years long changes in coastal land use (cover) of the YS
1% annual loss of tidal flats; ~9,700 km² loss expected in the 202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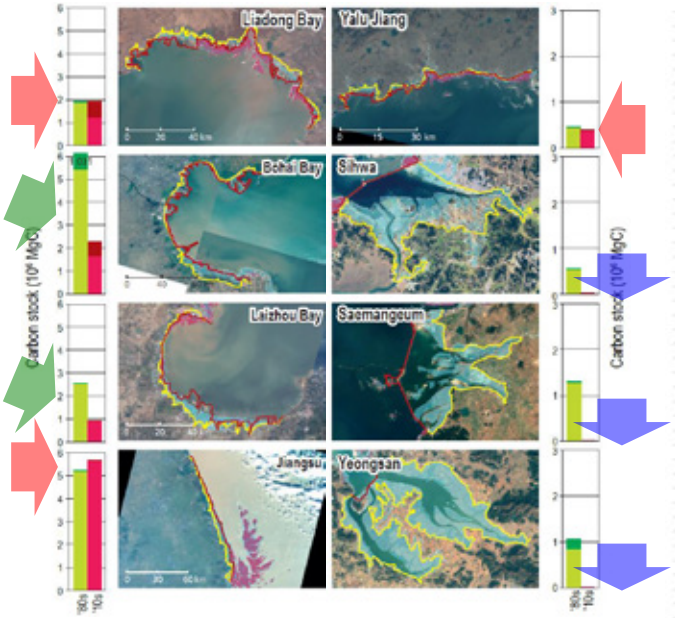


Yim et al., 2018. revision submitted

4. Key results: Ecosystem services, loss or gain?

Newly updated for North Korea: ~30 km² reclaimed in the 2010s
A huge loss of total ESVs in the Yellow Sea: ~8 Billion USD for 4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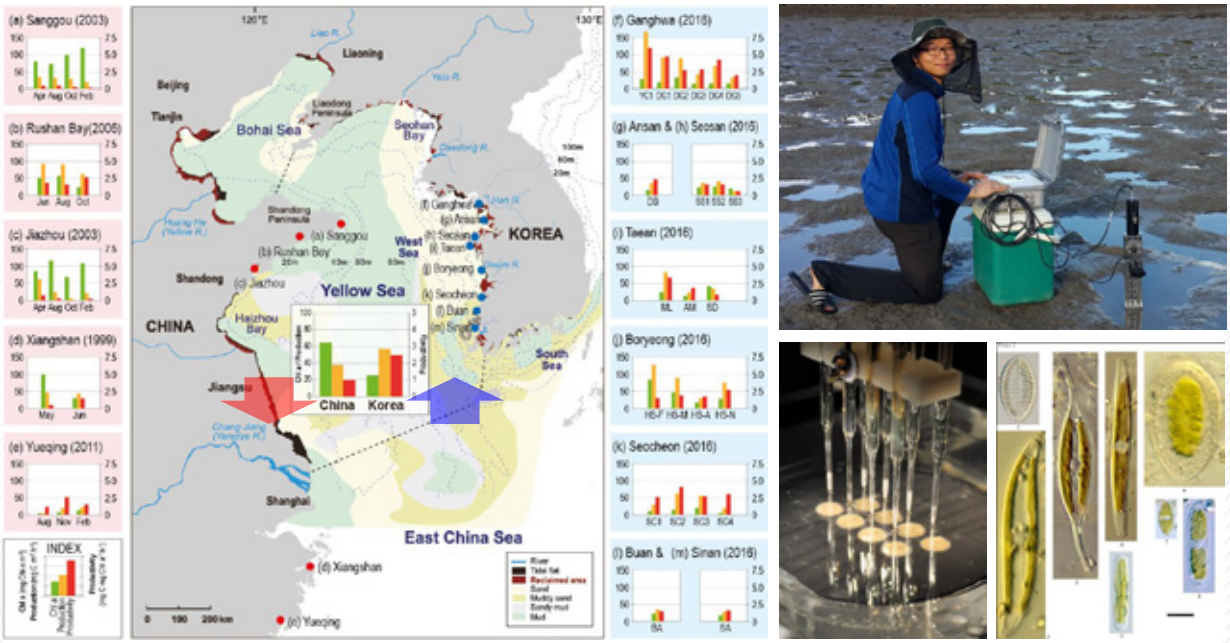


Region	Total ESVs (Billion USD yr⁻¹)		
	1980s	2010s	%-change
CHINA	12.4	7.5	▼ 39
RO KOREA	5.2	3.3	▼ 36
DPR KOREA	3.8	2.7	▼ 29
Yellow Sea	21.4	13.5	▼ 37

Yim et al., 2018. revision submitted

4. Key results: Ecological function?

In situ benthic primary production system applied
coastal productivity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Korea than China



Kwon et al., 2018. in prep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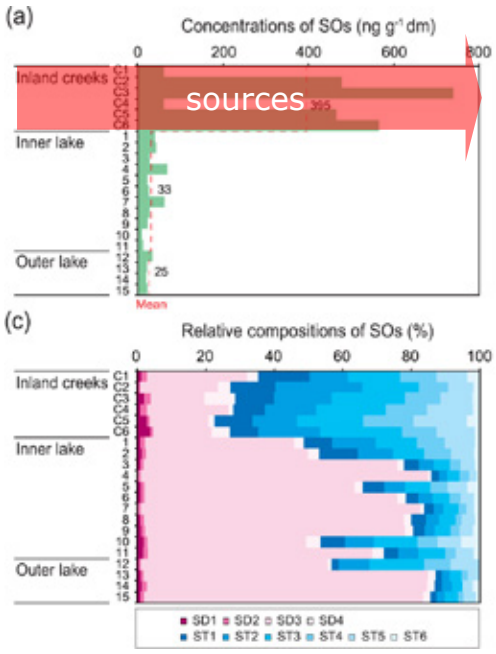
5. Remarks: Past, present, and future

Our understandings & limitations from 20 years study
Summary from phase I (1990s) to phase-III (2010s) & future directions

P-I 1990s	P-II 2000s	P-III 2010s
Sediment TIE	SQ-Triad	Advanced -EDA
C – T	C – T – E	C ↔ T ↔ E
Toxicity not fully explained by chemistry data	*Better mass-balance, but not fully linked to benthic community*	*Unknown proportion reduced, but mechanism unclear*
analyses of unmeasured or new chemicals needed	***more data for benthic community required***	***source to outcome pathways approach suggested***

5. Remarks: Lessens lea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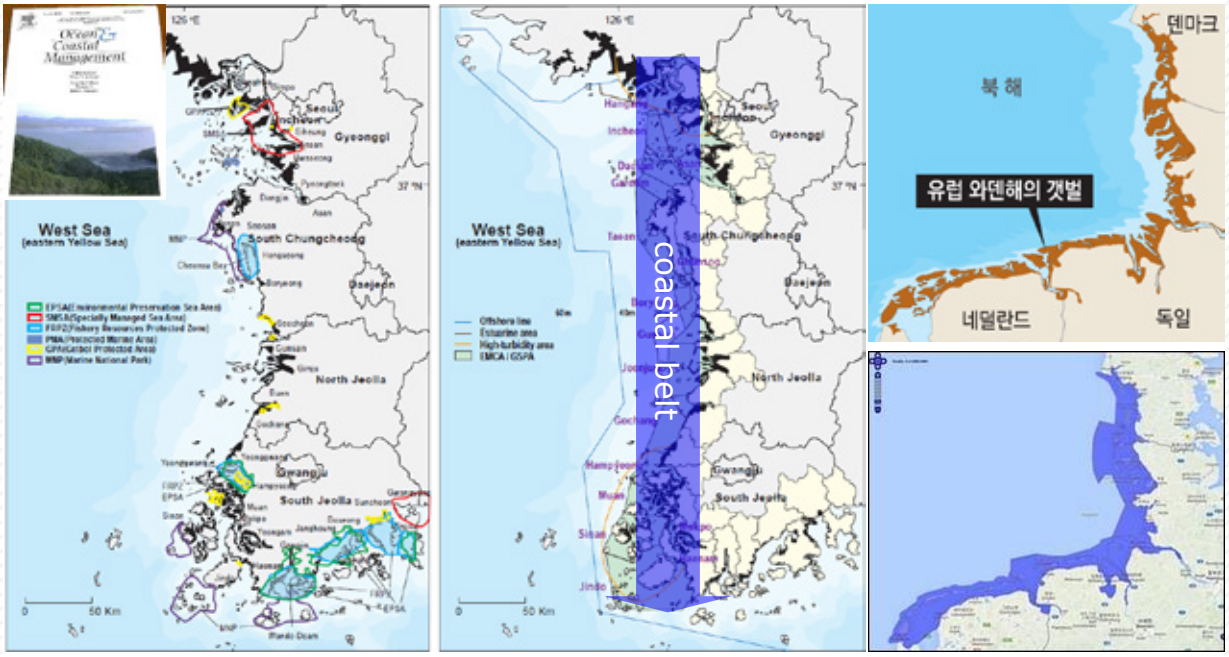
Pollution reduced, but what about unknown or new chemicals?
"Styrene oligomers" first reported in sediments of Sihwa



Hong et al., 2016. Environ Pollut

5. Remarks: Our job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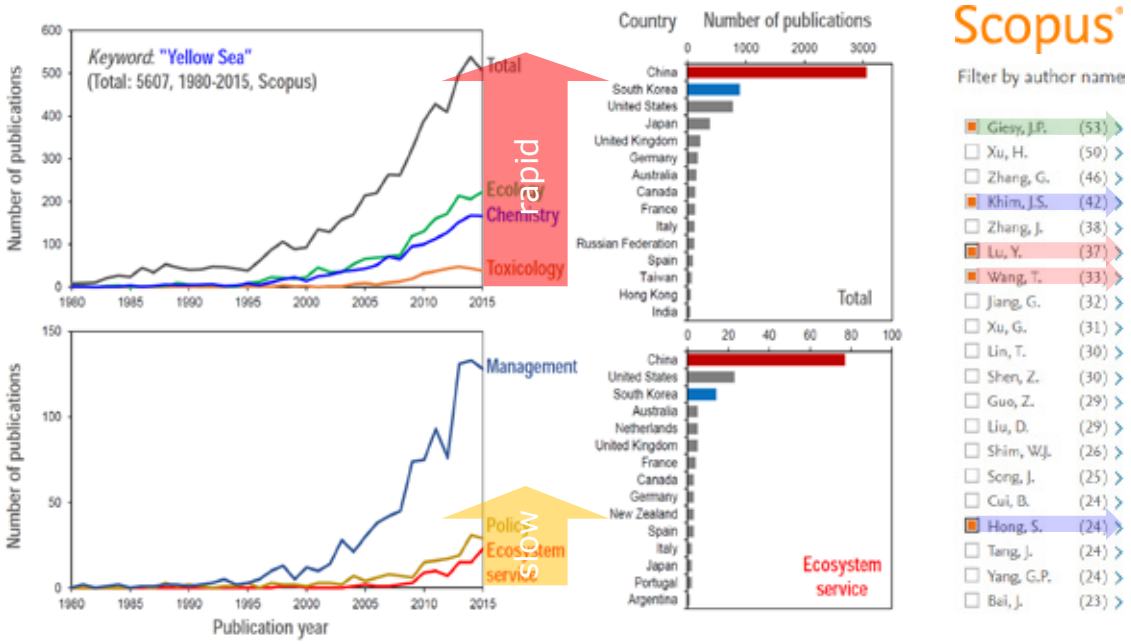
The Korean tidal flat system, O&CM SI, 19 chapters, edited by Prof. Koh
Ecosystem (12), land reclamation (5), & protection and challenge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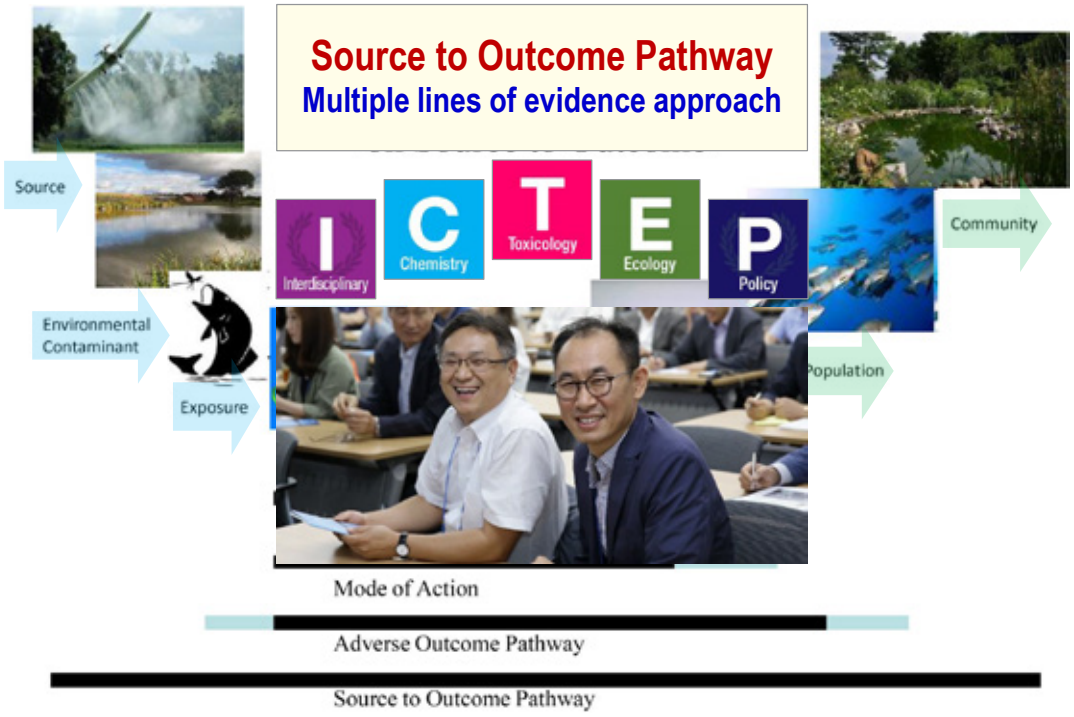
Koh and de Jonge, 2014. Ocean Coast Manag

5. Remarks: Our job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Increasing concerns on the Yellow Sea ecosystem
much acknowledged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 China



5. Remarks: what is the next?, a paradigm shift~



Thank You Very Much!

NAM, Jungho

Korea Maritime Institute

#26, Haeyang-ro 301beon-gil, Yeongdo-gu, Busan, Republic of Korea

Dr. Nam, Jungho has been working at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ince 1996, which is a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entity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His researches cover integrated coastal plann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marine ecosystem protection, coastal conflict resolution, transboundary marine environmental affair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pplication etc. He has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of marine policies for his government and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s. He also has been involved in glob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eir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land-based activities control, marine debris management, coastal watershed management,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etc. He contributed to activities of PEMSEA, COBSEA, NOWPAP, YSLME and World Ocean Forum. He served as members of Prime Ministerial Advisory Boar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ational Commission on Coastal Management, and National Commission on Land Use Regulation. Now he is a member of National Council on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Tel: +82-51-797-4712 Fax: +82-51-797-4709 Email: jhnam@kmi.re.k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Areas

May 11, 2018
Koreana Hotel, Seoul, Korea
Regional Workshop on Putting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Jungho Nam (jhnam@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Presentation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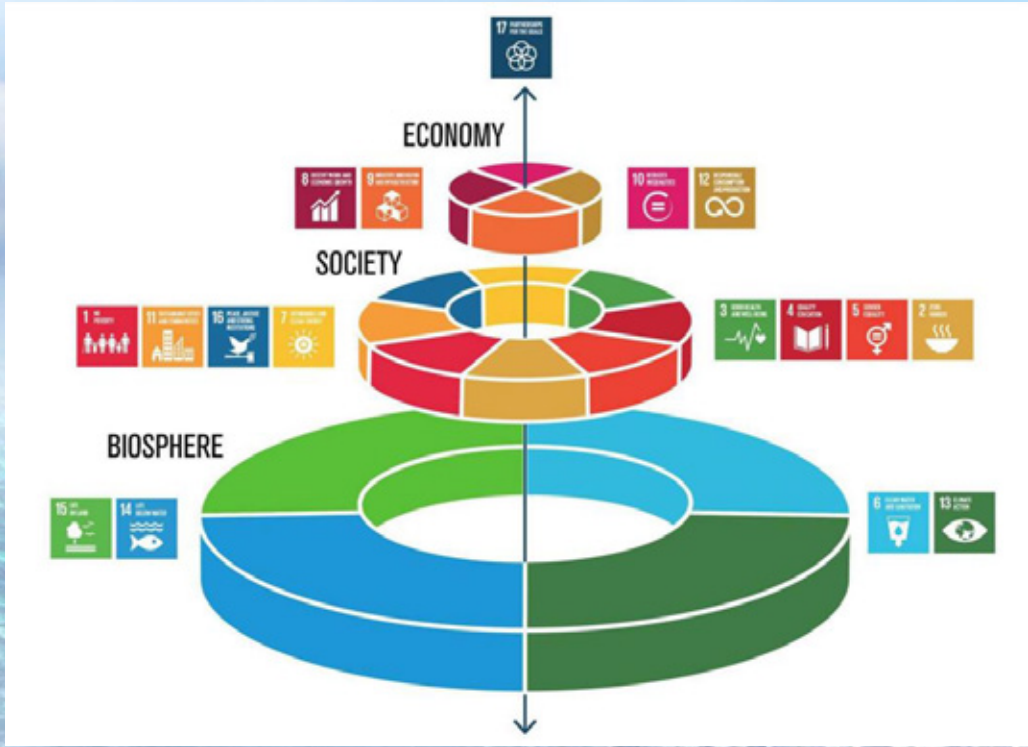
- ✓ *Sustainable Ecosystems and Socio-economic Prosperity*
- ✓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Features*
- ✓ *The Way Forward, Inter-Korea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Areas*

Sustainable Ecosystems and Socio-economic Prosperit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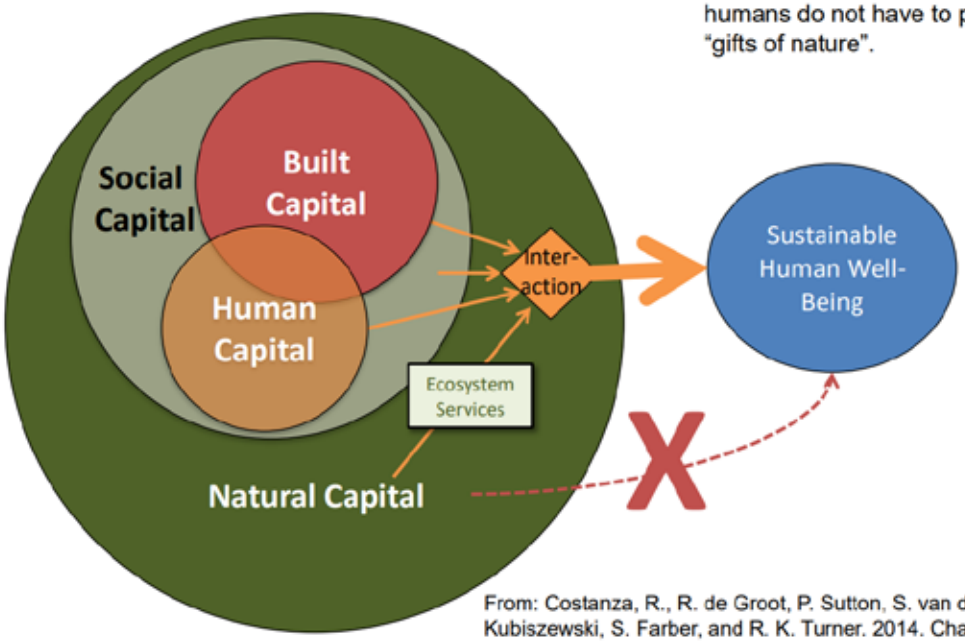
4

Sustainable Economy and Natural Capital



http://www.2017bioecosummit.eu/uploads/images/speakers/presentations/Summit%2014122017%20Robert%20Costanza.pdf

Natural Capital is everything in the world that humans do not have to produce or maintain – the "gifts of nature".



From: Costanza, R., R. de Groot, P. Sutton, S. van der Ploeg, S. Anderson, I. Kubiszewski, S. Farber, and R. K. Turner. 2014. Changes in the global value of ecosystem servic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6:152-158.

http://www.2017bioecosummit.eu/uploads/images/speakers/presentations/Summit%2014122017%20Robert%20Costanza.pdf

Loss of Socio-Economic Benefit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6 (2014) 152–158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we estimated the loss of ecosystem services from 1997 to 2011 due to land use change at **$4.3–20.2 trillion/yr.**

[e] University of Pittsburgh, United States
[f] University of East Anglia, Norwich, UK

$ 75.87 trillion in 2016 from World Bank data bank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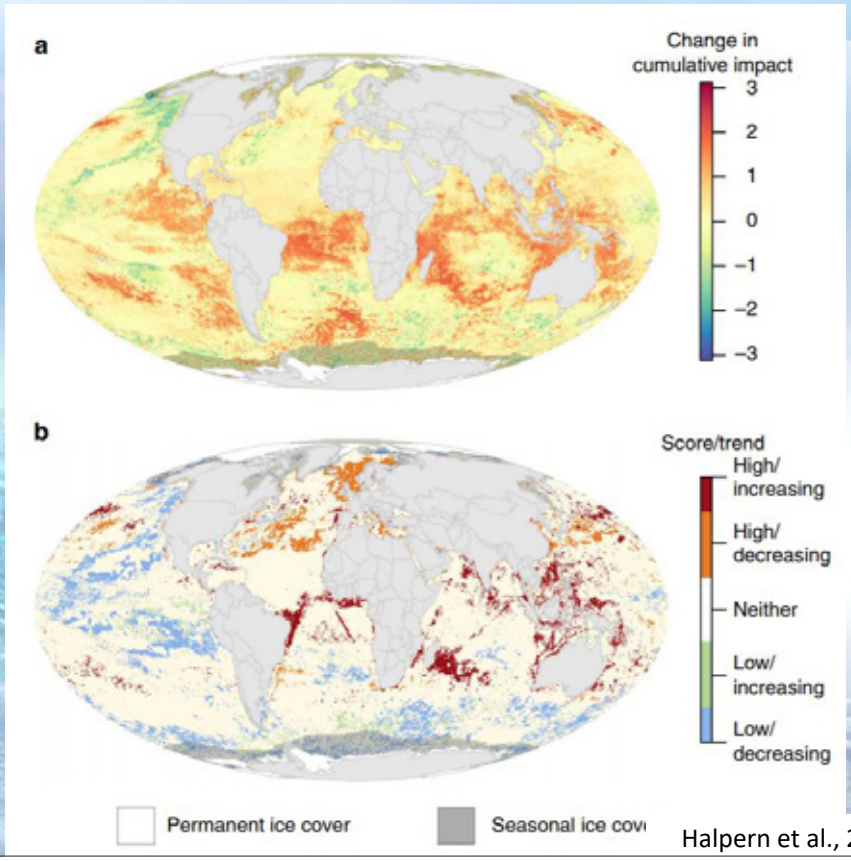
Globally Accepted Discourse : Ecosystem and Human Well-Being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 Ecosystem Services

ipbes Science and Policy for People and Nature

8

Increasing Human Impact in 60% of Oceans



Halpern et al., 2015 Nature communication

which places are experiencing the greatest increases. Managers and policymakers require such information to make strategic decisions and monitor progress towards management objectives. Here we calculate and map recent change over 5 years in cumulative impacts to marine ecosystems globally from fishing, climate change, and ocean- and land-based stressors. Nearly 66% of the ocean and 77% of national jurisdictions show increased human impact, driven mostly by climate change pressures. Five percent of the ocean is heavily impacted with increasing pressures, requiring management attention. Ten percent has very low impact with decreasing pressures. Our results provide large-scale guidance about where to prioritize management efforts and affirm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to maintain and improve the condition of marine ecosystems.

Halpern et al., 2015 Nature communication

Socio-economic and Ecological Features

Current Information on DPRK is Reliable?

MARINE POLLUTION

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

Jambeck et al, 2015, Science

Rank	Country	Econ. classif.	Coastal pop. [millions]	Waste gen. rate [kg/ppd]	% plastic waste	% mismanaged waste	Mismanaged plastic waste [MMT/year]	% of total mismanaged plastic waste	Plastic marine debris [MMT/year]
1	China	UMI	262.9	1.10	11	76	8.82	27.7	1.32–3.53
2	Indonesia	LMI	187.2	0.52	11	83	3.22	10.1	0.48–1.29
3	Philippines	LMI	83.4	0.5	15	83	1.88	5.9	0.28–0.75
4	Vietnam	LMI	55.9	0.79	13	88	1.83	5.8	0.28–0.73
5	Sri Lanka	LMI	14.6	5.1	7	84	1.59	5.0	0.24–0.64
6	Thailand	UMI	26.0	1.2	12	75	1.03	3.2	0.15–0.41
7	Egypt	LMI	21.8	1.37	13	69	0.97	3.0	0.15–0.39
8	Malaysia	UMI	22.9	1.52	13	57	0.94	2.9	0.14–0.37
9	Nigeria	LMI	27.5	0.79	13	83	0.85	2.7	0.13–0.34
10	Bangladesh	LI	70.9	0.43	8	89	0.79	2.5	0.12–0.31
11	South Africa	UMI	12.9	2.0	12	56	0.63	2.0	0.09–0.25
12	India	LMI	187.5	0.34	3	87	0.60	1.9	0.09–0.24
13	Algeria	UMI	16.6	1.2	12	60	0.52	1.6	0.08–0.21
14	Turkey	UMI	34.0	1.77	12	18	0.49	1.5	0.07–0.19
15	Pakistan	LMI	14.6	0.79	13	88	0.48	1.5	0.07–0.19
16	Brazil	UMI	74.7	1.03	16	11	0.47	1.5	0.07–0.19
17	Burma	LI	19.0	0.44	17	89	0.46	1.4	0.07–0.18
18*	Morocco	LMI	17.3	1.46	5	68	0.31	1.0	0.05–0.12
19	North Korea	LI	17.3	0.6	9	90	0.30	1.0	0.05–0.12
20	United States	HIC	112.9	2.58	13	2	0.28	0.9	0.04–0.11

*If considered collectively, coastal European Union countries (23 total) would rank eighteenth on the list

12

Ocean Health Index as Ocean Development Potential

RO Korea : global ranking 41 /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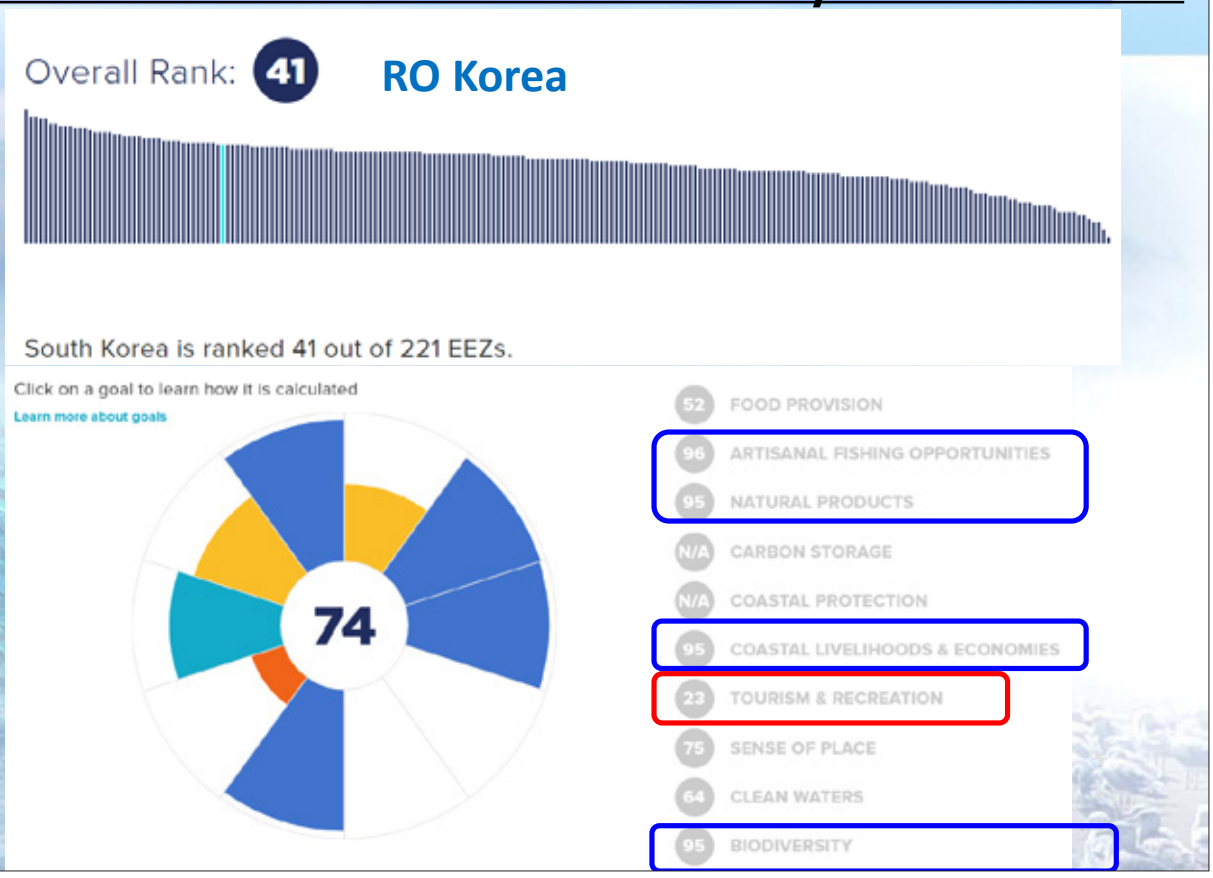
OVERALL SCORE	LIKELY FUTURE STATE	
	Overall	Global
74	4%	6%

DPR Korea : global ranking 207 / 221

OVERALL SCORE	LIKELY FUTURE STATE	
	Overall	Global
51	-8%	6%

http://www.oceanhealthindex.org

Ocean Health Index as Ocean Development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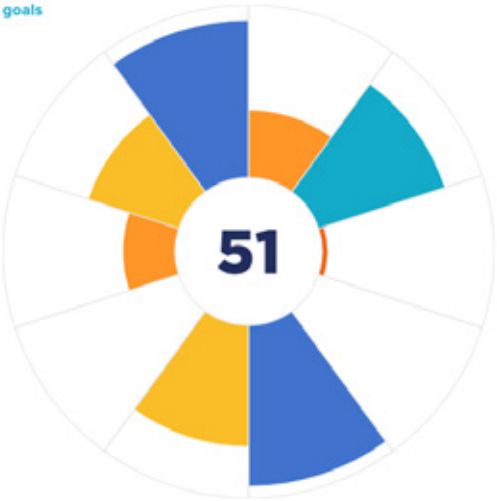
Overall Rank: 207

DPR Korea

North Korea is ranked 207 out of 221 EEZs.

Click on a goal to learn how it is calcu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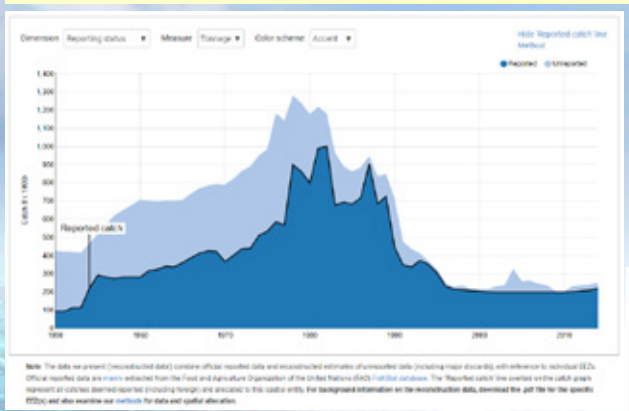
Learn more about goals



39	FOOD PROVISION
77	ARTISANAL FISHING OPPORTUNITIES
3	NATURAL PRODUCTS
N/A	CARBON STORAGE
93	COASTAL PROTECTION
70	COASTAL LIVELIHOODS & ECONOMIES
N/A	TOURISM & RECREATION
30	SENSE OF PLACE
55	CLEAN WATERS
91	BIODIVERSITY

Fisheries

DRPK : 1,281 kton('78)→251 kton('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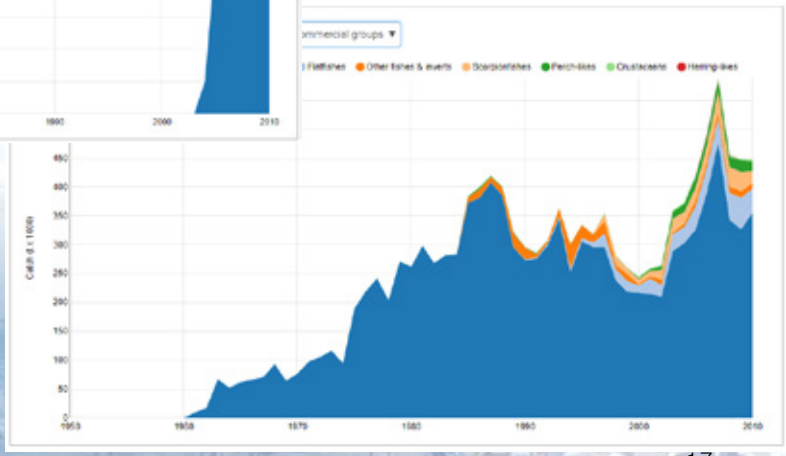
RO Korea : 2,286 kton('78)→ 3,731 kton('14)

http://www.seaaroundus.org 16

Mariculu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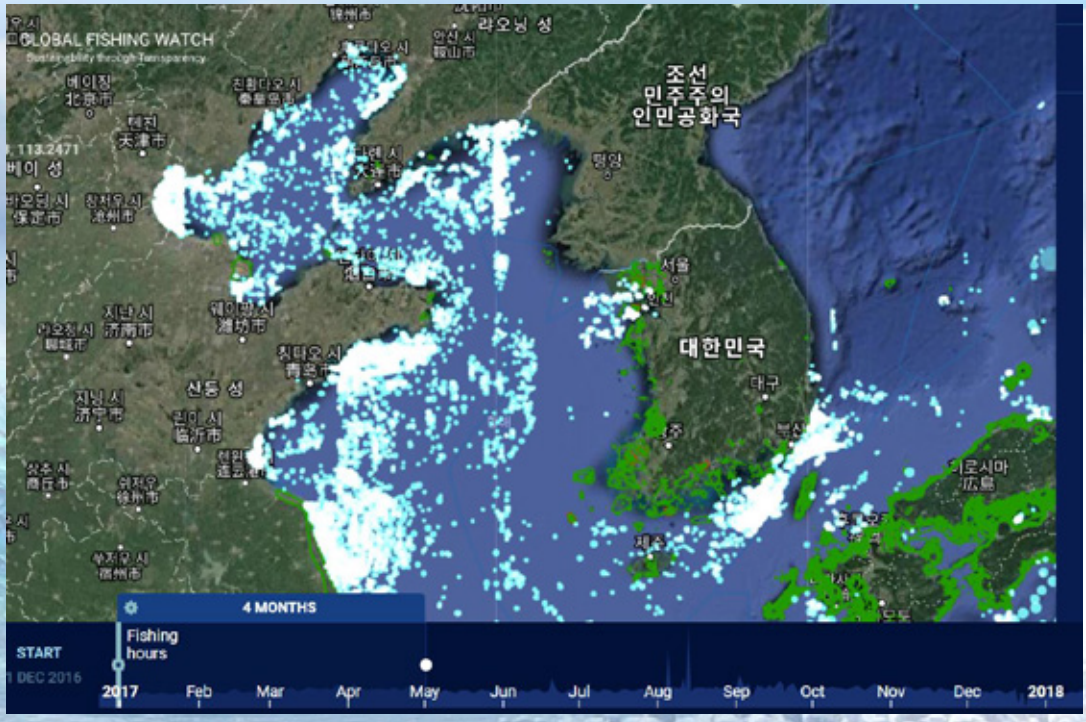
DRPK : 0.1 kton('10)

ROK : 448 kton('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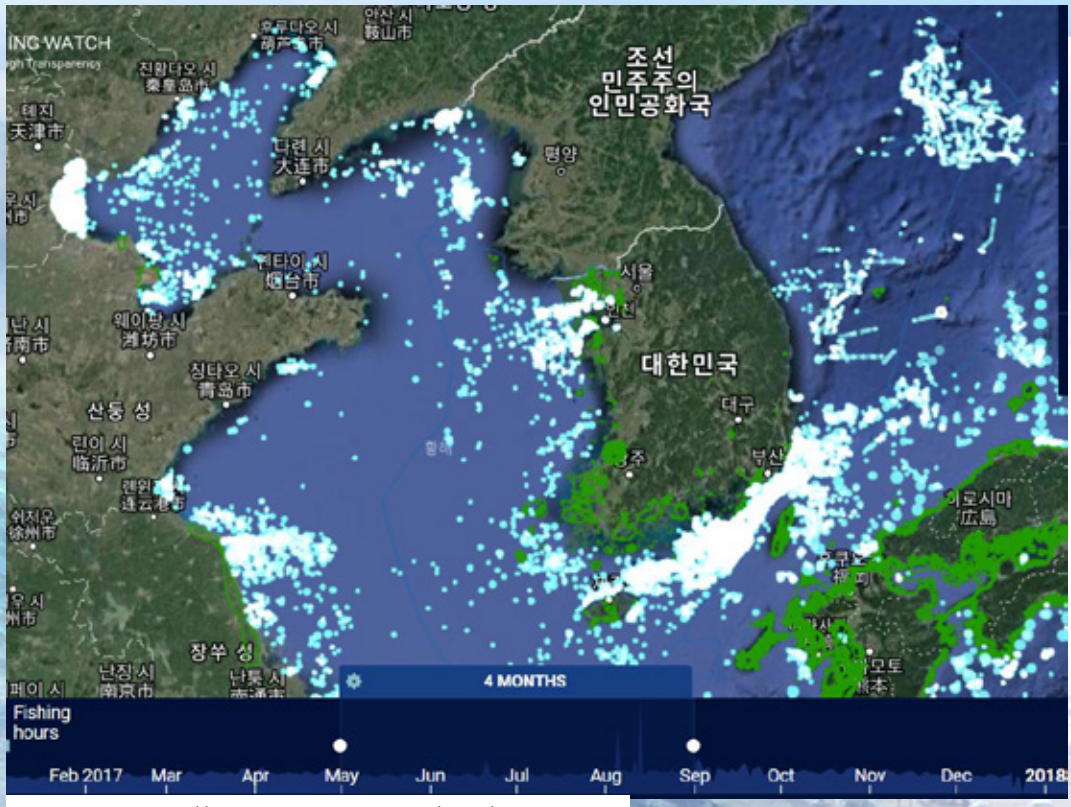
17

Fishing Activities in 2007



http://globalfishingwatch.org/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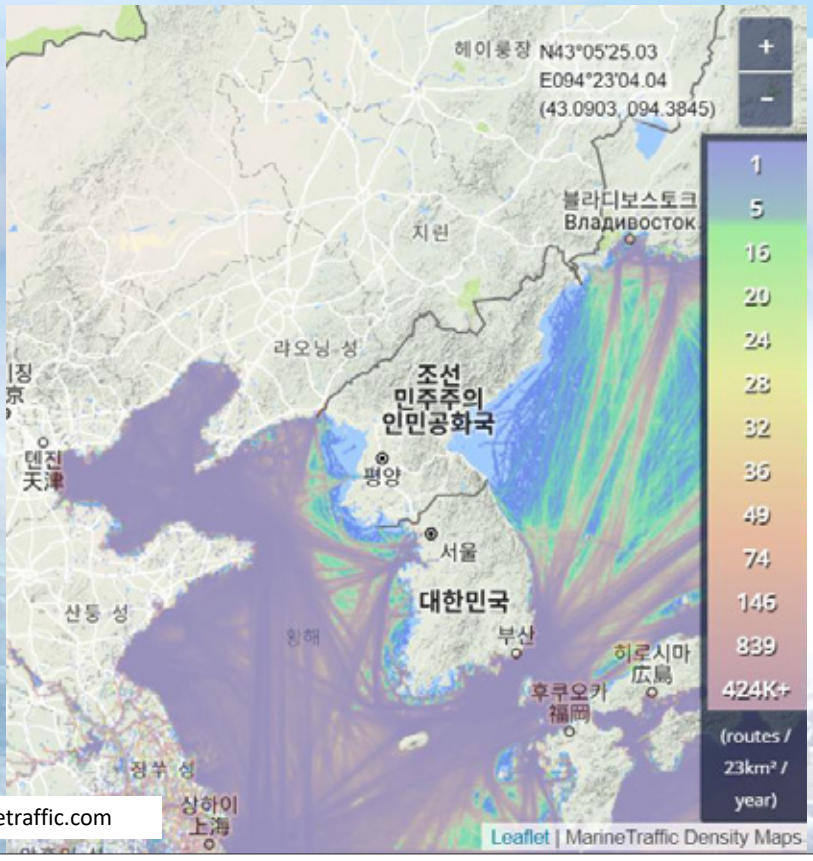
18



http://globalfishingwatch.org/ma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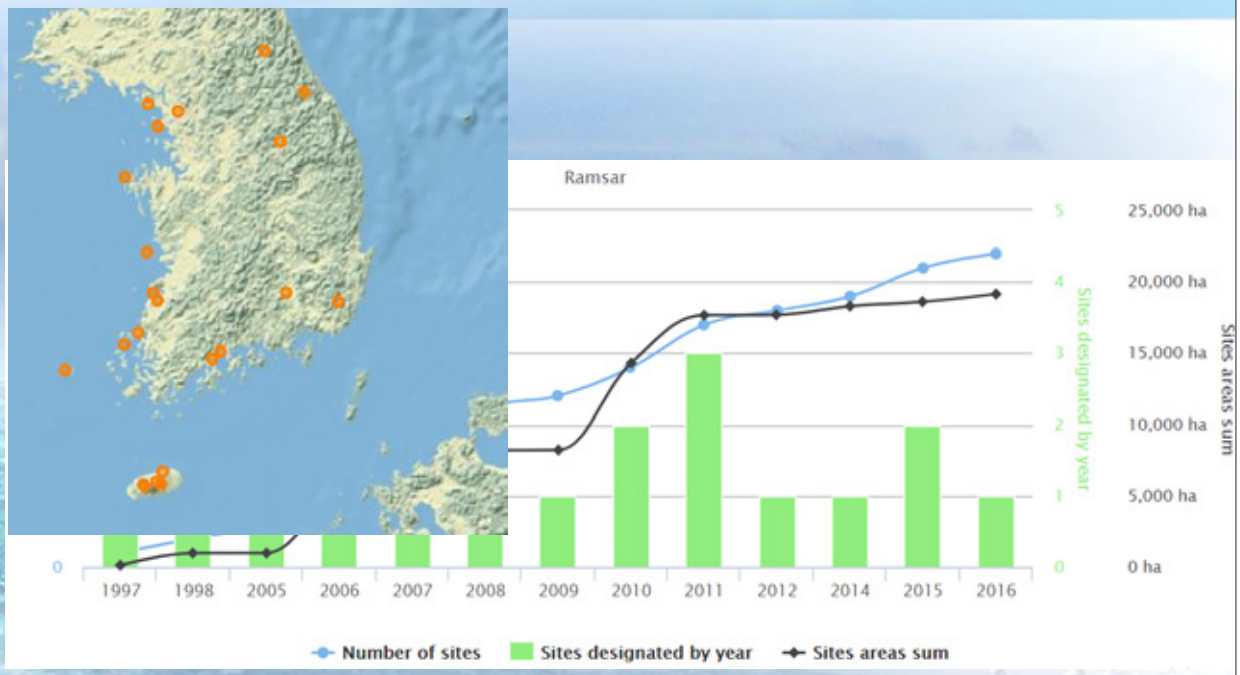
Marine Traffic Density



https://www.marinetraffic.com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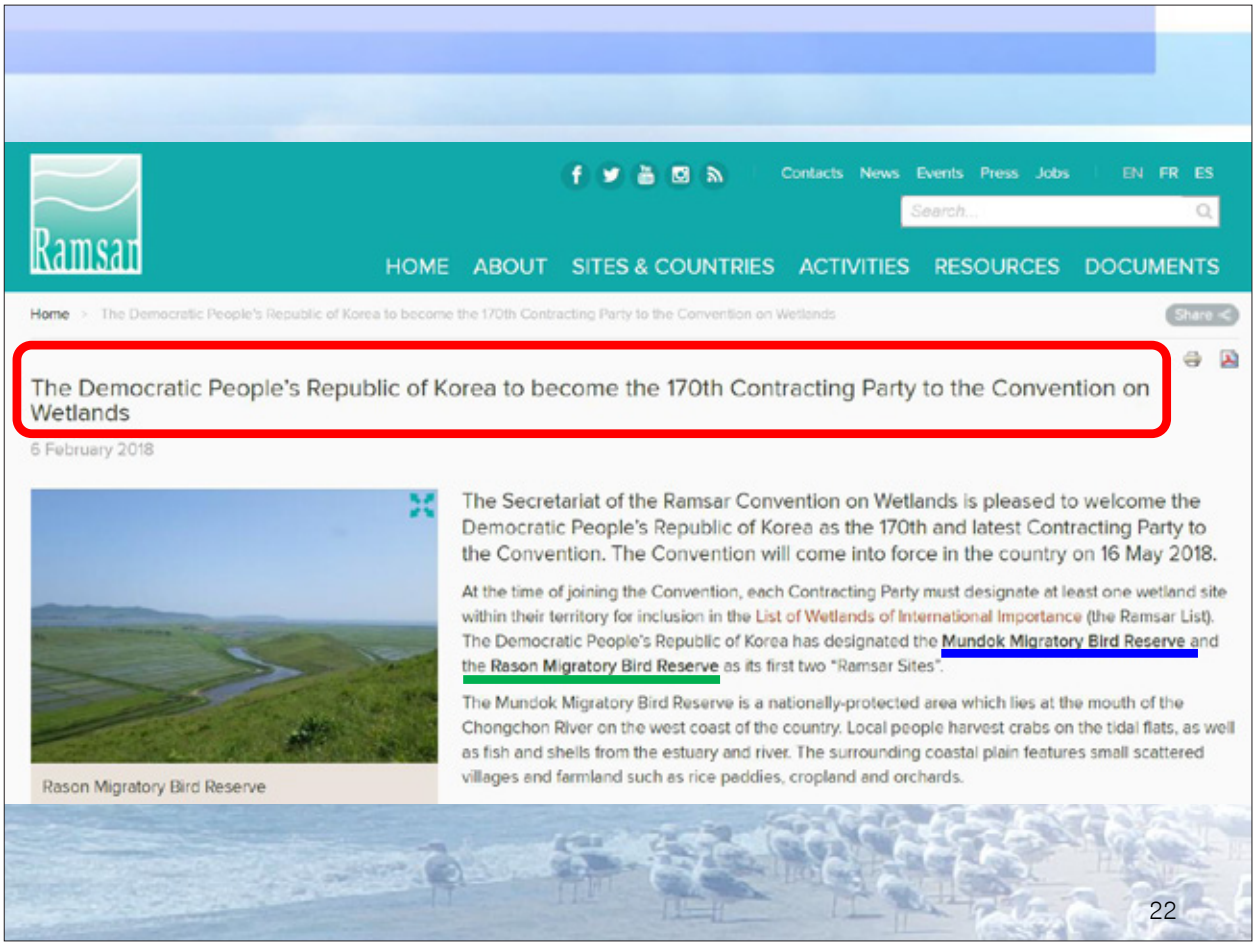
Coastal and Marine Protection



22 Ramsar sites, 19,164.85 ha in 2006

https://rsis.ramsar.org/ris-search/?f[0]=regionCountry_en_ss%3ARepublic+of+Korea&pageta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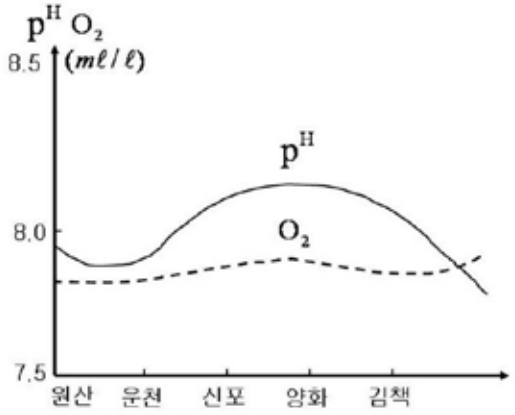
21



22

Environmental Features of DRP Korea

East Coastal Waters



자료 : 고종봉(2001)

Important coastal wetlands

자료 : 일본야조의회(1996) 자료를 이용하여 남정호 외(2005)가 도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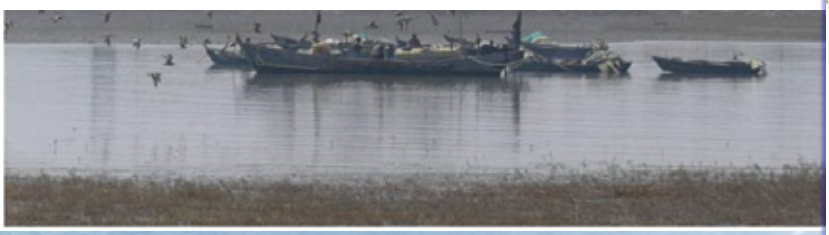
Magazine

Why North Korea is a safe haven for birds

North Korea's lack of development - compared to China and South Korea - means the country's mudflats are largely intact.

But the conservationists say the birds also benefit from there being fewer river-polluting factories, and lower levels of agricultural fertilisers and pesticides running off the land into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ansive mudflats - pictured next - are rich in molluscs, marine worms and crustaceans on which the shorebirds depend for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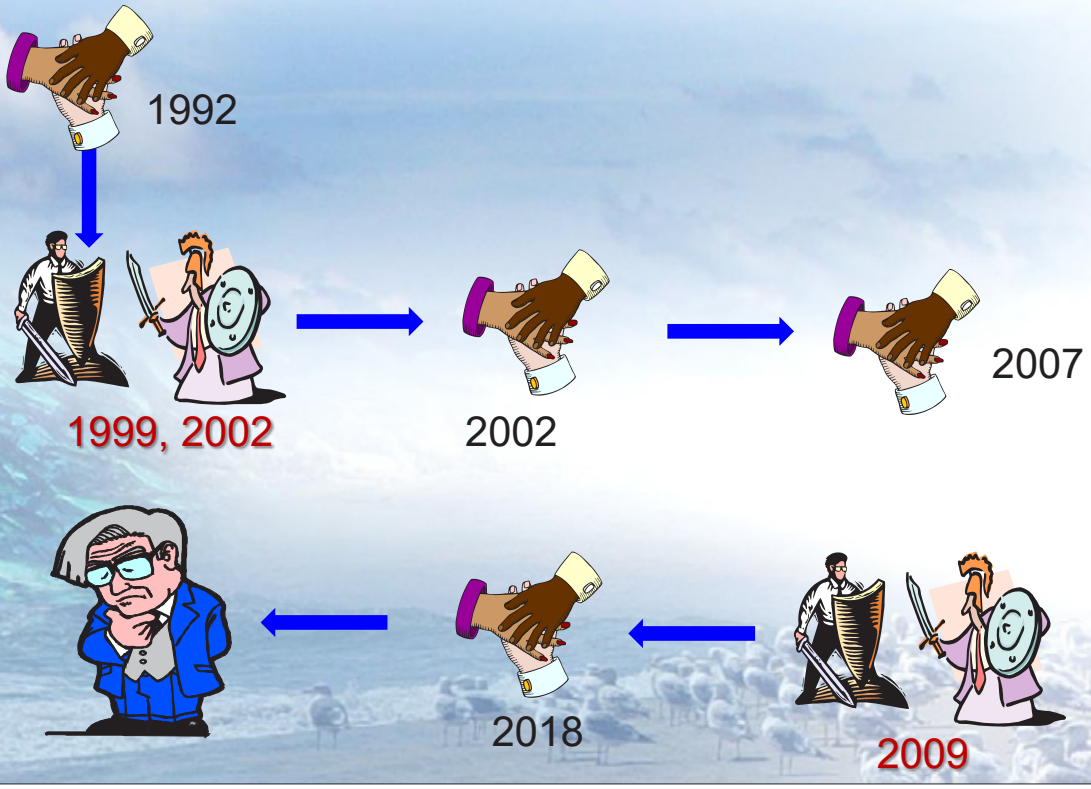


http://www.bbc.com/news/magazine-36533469

Nam et a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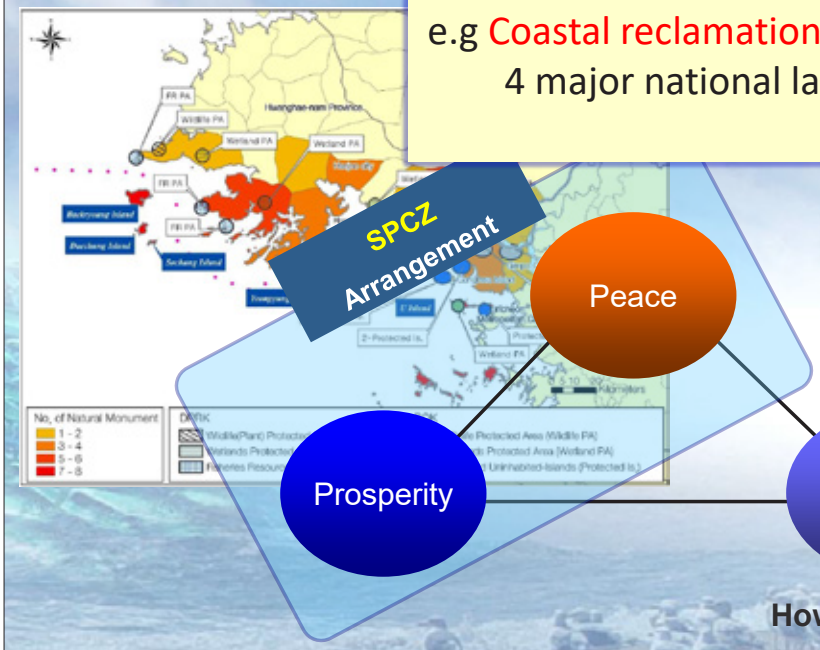
The Way Forward
Inter-Korean Cooperation for Sustainable Marine and Coastal Areas

Hoping "Beyond Hamster Wheel"



Circumstances on Sustainable Coastal and Marine System

Likelihood on Land and Economic Growth-oriented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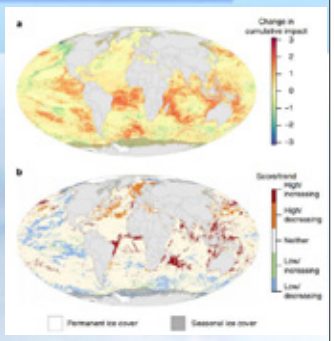
e.g Coastal reclamation will be recalled, one of 4 major national land reform projects

Nam et 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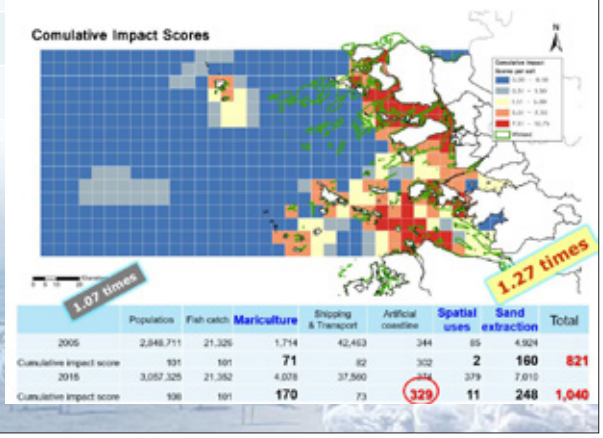
How to add the "Protection" component into the SPCZ arrangement?

Possibility of Cumulative Impact Increase caused by the imbalanced approach

Country	Impact score in 2013	Change over 5 years
DPR Korea	3.6102	-0.03106
RO Korea	4.8542	0.13060
China	5.1714	0.07045
Japan	4.2891	0.15299
Russia	2.3668	0.09861
U.S	3.5298	-0.11903



Halpern et al., 2015



Nam & Choi, 2017

DRRK's Affirmative Attitud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rine Development

The Environment Is So Bad in North Korea, They'll Even Let Americans Help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North Korean has become so severe, North Korea invited a group of five Americans to Pyongyang last month to talk about restoration and food security.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2/04/environment-so-bad-north-korea-theyll-even-let-americans-help/329758/

And here is coverage of the report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 **Marine Development Projects Underway in North Korea**
> 2015-7-30
>
> North Korea's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reported on July 24, 2015 that marin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Marine Technology Development Zone, are currently being pursued in North Korea.
>
> While KCNA repor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dvanced Marine Technology Development Zone is moving along, Choson Marine Association head clerk Kwak Il Hwan adds, "Protecting and increasing marine resources while actively developing and using them is becoming one of the state's main policies."
>
> The news agency also revealed, "As a marine space resource, ports will be constructed, navigation channels will be developed, and there were will be tidelands and marine tourist spots; on the west coast it will become a tideland capable of development as well as a wealth of information." This statement indicates that the Advanced Marine Technology Development Zone will be designated on the west coast.
>
> "A training system for our country's experts and engineers in the marine sector is in place, and a technologic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marine resources, including research bases in each field all over the country, has been secured," KCNA reported.

Similar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between two Koreas in marine and coastal management

<표 3-1> 북한의 해양환경 및 자원 보호 관련 법률 현황(남경호, 2005)

구분	법령	제개정연도	해양환경보호 관련 사항
환경보호 관련 기본법	환경보호법	1986. 4. 9(제) 1999. 3. 4(개) 2000. 7. 24(개)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명시(제1장),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제11조), 오염물질배출기준 등 환경보호기준 준수(제19조) ○ 정화시설 운영 및 오폐수 방류 금지(제24조) ○ 해역운항 선박의 기름, 오폐수, 쓰레기 투기 금지 및 자원개발시 환경보호 의무 준수(제26조) ○ 항, 포구, 갑문, 부두에서 오수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정화 등 항만환경관리(제28조)
	국토계획법	2002. 3. 27	○ 국토계획작성시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로 환경파괴 금지(제11조 제6호)
	환경영향평가법	2005. 12	
	토지법	1977. 4. 29(제) 1999. 6. 16(개)	○ 해양을 수역도지로 구분하고(제7조), 연안영해의 정비 및 수산자원 보호대책 마련 규정(제7조 제8호) ○ 수산자원보호 증식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제62조)
해양오염방지법률	바다오염방지법	1997. 10. 22(제) 1999. 1. 14(개)	○ 수역보호를 위한 수질보호구역 지정(제3조), 연안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제5조) ○ 항만 및 갑문수역 오염방지(제8조), 농업기인 농약유입방지(제9조), 해양자원 개발시 유류유출방지(제10조), 선박오염방지 시설 설치(제11조), 선박운영과정 폐기물 투기금지(제12조)
	항만법	1986. 9. 4(제) 1999. 3. 11(개)	○ 항만수역 내에 오염물질 투기 및 기름오염방지(제34조)
생태계, 문화유산, 수산자원 보호 관련 법률	문화유물보호법	1994. 3. 24(제) 1999. 1. 21(개)	○ 역사유적 보호구역 지정(제24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1995. 12. 31(제) 1999. 1. 14(개)	○ 명승지에 바닷가를 포함하고, 천연기념물에 동식물, 자연마위 등을 포함(제2조) ○ 보호구역의 지정(제18조) 및 자연환경의 원형보전(제23조)
	수산법	1995. 1. 18(제)	○ 수산자원보호 의무(제5조) 및 보호월간을 4월 7월로 지정(제31조), 수산자원 보호구 지정 등 관리지침 명시(제32조)

자료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에서 발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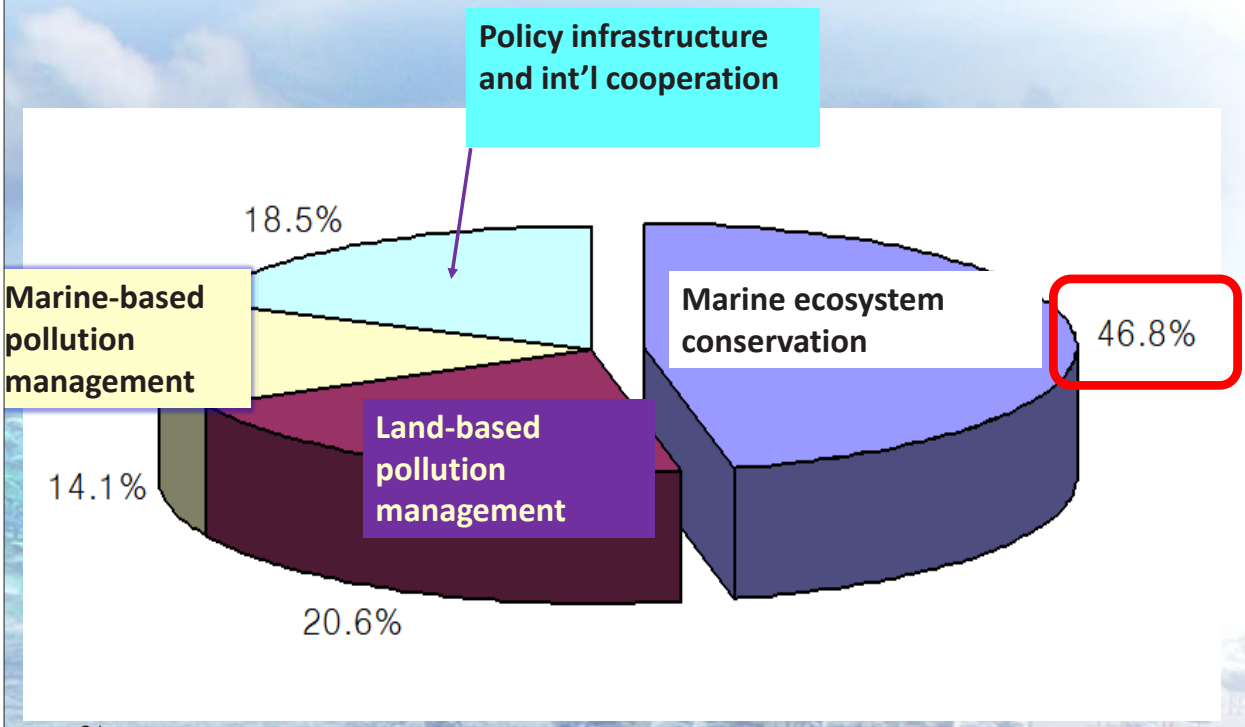
-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 ✓ Land Use Planning Act (2002)
- ✓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2005)
- ✓ Land Act (1977)

- ✓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1997)
- ✓ Port Act (1986)

- ✓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1994)
- ✓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Act (1995)
- ✓ Fisheries Act (1995)

- ✓ Tidal Lands Ac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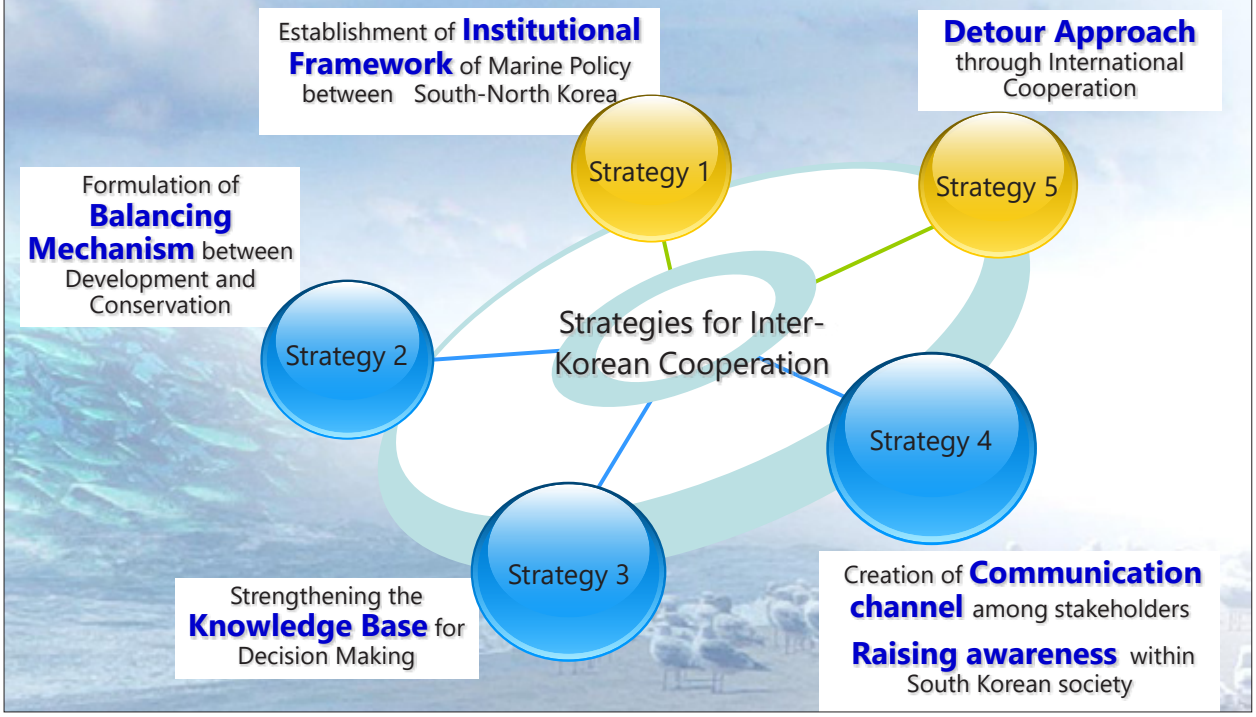
DRPK, more emphasis on Marine Ecosystem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than RO Korea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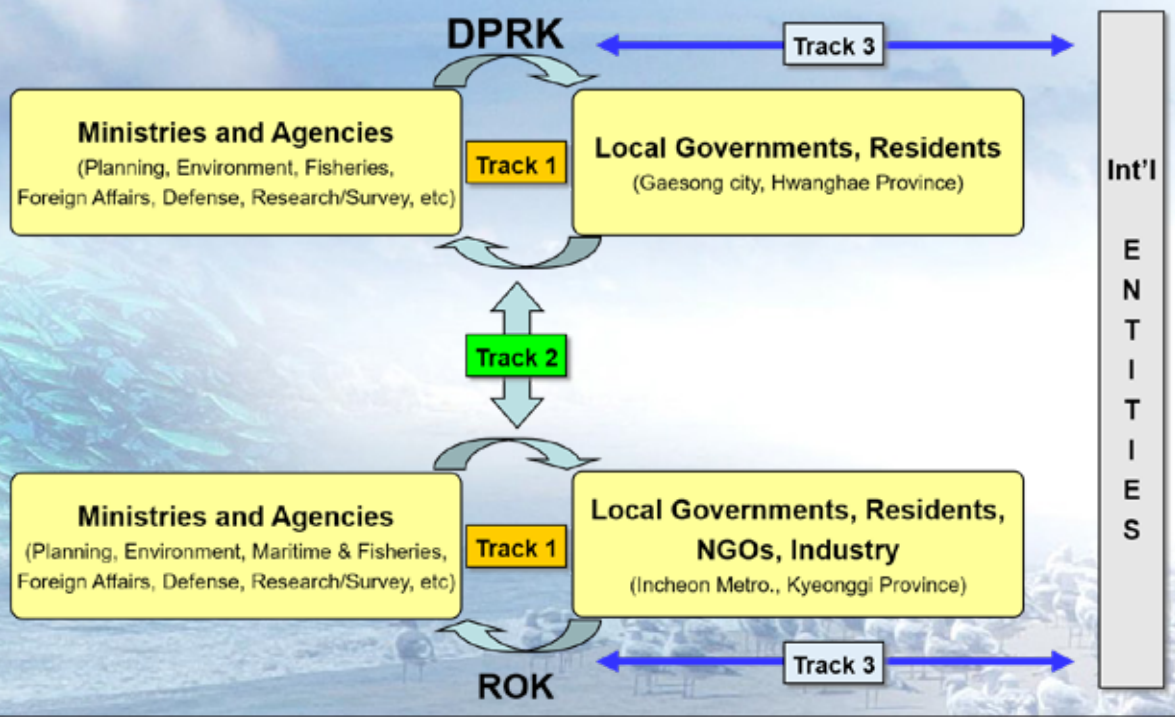
How to Incorporate Marine and Coastal Sustainability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FIVE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Korean Cooperation



How to Incorporate Marine and Coastal Sustainability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Three Track Approach



Suggestion 1

International Advisory Group for Inter-Korean Marine Cooperation

Organization of IAG in late 2018 or early 2019
NOWPAP, PEMSEA, EAAFP, YSLME etc
UNESCO(IOC), RAMSAR, IUCN, EU etc

Along with organization of National Advisory Group

Invitation of DRPK to meetings/conferences at regional and global levels

Preparation of Roadmap for Inter-Korean Marine Cooperation

Suggestion 2

Joint Survey and Knowledge Base Enhancement

Survey design and knowledge & data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in 2019
in cooperation with member entities of IAG

Pilot Survey on pilot sites with pre-selected survey items in late 2019
- considering accessibility, effectiveness, and transferability (e.g Mundeok/Nampo)

Suggestion 3

Capacity Building in Science, Technology and Management

Needs identification for building capacity in late 2018

Setting priority for capacity building in 2019

Invitation of DRPK to training program by int'l entities

Suggestion 4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Center in Gaesung City

Feasibility assessment in late 2018 or 2019
including COCOM and UN Sa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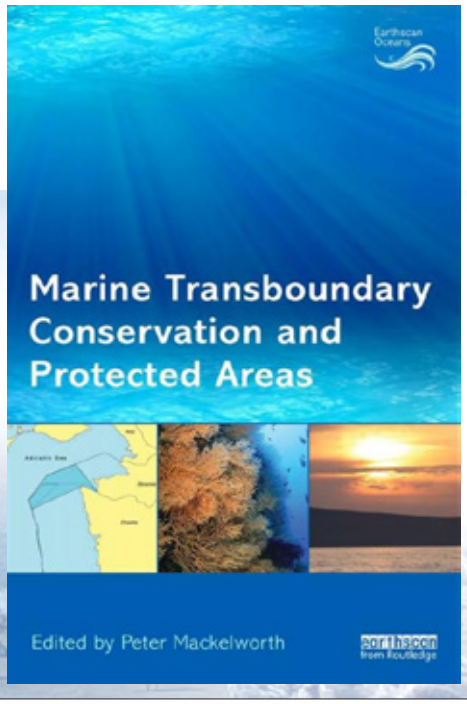
Suggestion 5

Inter-Korean Networking for Establishment of Maritime Peace Zone

ROK Working Group operation in 2018

Inter-Korean WG in 2019

Strategic Action Plan in late 2019



Additional suggestion for Establishment of Maritime Peace Zone

- Overarching 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 (CMSP)
- Practical Approach to joint fishing ; activity-, zone-, benefits-based (joint company)
- Establishing Co-Rangers for cooperative management with int'l entities

- Developing Haeju Harbor as a peaceful port & a national tourism site
- Establishment of Seasonal fish market
- Loop ring Tourism Development
  - Seoul~Han river~Haeju, Ganghwa, Bakryung, etc

- Joint preparation of an oil-spill contingency plan
- EIA application to suggested development projects
- Designation of MPA and cooperative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 Joint survey and monitoring
- Community based approach and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center in Gaesung or Ganghwa

Oceans and Coasts As a Force That Unites Parties, Rather Than Divides them.

They create COMMUNITIES with the shared vision.

Thank you for listening!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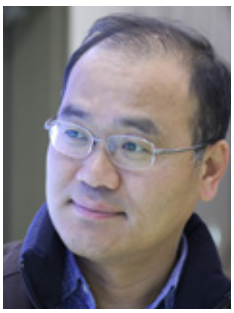
Drafting Recommendation and Suggestions to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KOH, Chul-Hwan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Prof. Koh has over thirty years of research and teaching experiences in marine ecology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emeritus in the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interest lies in coastal wetlands (Getbol in Korean) ecology and protection, and coastal sediment pollution. He has published books on introductory marine biology, Korean tidal flats, and over a hundred scientific papers on ecology of Korean coastal seas. Recently, he edited a special issue entitled 'The Korean tidal flat systems: Ecosystem, land reclamation and struggle for protection' in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OCM) of Elsevier (102PB, 2014), which is considered as a milestone of Korean coastal wetlands research and protection. Prof. Koh received his Bachelor of Science and Master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Botan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earn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Kiel, Institute of Marine Science, in Germany.

Tel: +82-10-2330-8037 Email: chulhwankoh@gmail.com



KANG, Seong-Gi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hips and Ocean Engineering
#32, Yuseong-daero 1312 beon-gil,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Dr. Kang, Seong-Gil has been working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hips and Ocean Engineering (KRISO) since 2000, and currently serves as Head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His researches cove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including marine pollution preparedness & response, carbon storage in offshore sediments, etc. Since 2008, he also serves as Director of the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 (MERRAC) of UNEP's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MERRAC, established at KRISO, is responsible for regional cooperation on marine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He is also acting as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AOSTS). KAOST is founded in 1998 by the membership of 6 major academic societies in Korea such as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ing and The Korean Society of Costal and Ocean Engineers. He received the Ph.D. degree in Marine Ecology at Department of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0.

Tel: +82-42-866-3620 Fax: +82-42-866-3630 Email: kangsg@kriso.re.kr

□ 협의회(KAOSTS) 소개

(설립목적)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인의 자질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학술단체가 '99년에 설립

(회원학회) 6개 학회(회장: 윤종성 한국해양공학회장/사무총장: 강성길)

* 한국해양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등 회원 약 7천여명

(주요활동) 해양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 국내·외 해양과학기술 교류(매년 5월중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사업 및 간행물 발간

- 2018년도 공동학술대회('18.5.24-25, 제주ICC)- "하나의 터전, 나눔과 상생의 바다" 주제로 약 2,000명 참석, 1,000편 논문발표 예정
- "해양과학기술과 남북 및 국제협력" 공동 워크샵(협의회 주관),
  "남북관계 전망과 해양수산 협력방향" 기획세션(해양환경·에너지학회) 예정

□ 남·북 학술교류 플랫폼으로서 학술단체 활용성

○ 다양한 남북한 협력사업 일환으로서 학회 등 남북한 학술단체들이 학술교류 플랫폼으로 참여 가능

- 특히 학회 등의 학술단체는 특정 기관·단체나 단위사업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해당 학문분야의 학술연구 촉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자들의 모임이므로, 상대적으로 'soft'한 관점에서 남북한 연구자들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적합

○ 특히 남북한은 해양 지리학적 특성상 하나의 환경 및 생태권이며 해양경제 활동권이 일부 겹치고 있으므로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분야 학술교류 협력은 양쪽 모두 시너지 창출 가능

- 특히 KAOSTS를 연계시 해양과학, 해양환경·에너지, 해양공학, 조선해양공학, 연안공학, 항해·항만 등 해양과학기술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민간분야 남북 학술교류 추진 가능(분산/단편적 이벤트성 지양)

□ 해양과학기술분야 남북한 협력사업 우선 추진가능분야 및 방식(안)

〈추진가능한 협력분야 예시〉

○ (해양과학 공동조사 프로그램) 한반도 인근 해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해양시스템'에 대한 해양과학적 이해 제고를 위한 공동 조사

* 지역해 특성연구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전지구적 이슈 포함가능, 남북한 양자간 또는 관련 국제적 프로그램과 연계한 동해 또는 서해 공동탐사 프로그램 추진가능 (PICES/CREAMS 등과도 연계가능)

○ (해양환경 및 연안 통합관리 수행) 남북한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평가, 오염해역 개선작업, 연안역 통합관리 프로그램 운영가능

* 관측자료 관련 공유, 방법론 등 기술경험 공유, 관련 협력프로그램 개발 (관련 국제프로그램 예시 UNEP/NOWPAP 및 PEMSEA, YSLME 등)

○ (해양재해 및 재난 공동 대비대응) 태풍, 연안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및 관련 유출사고 등에 공동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상·해황정보 공유, 해양사고 발생시 공동 대비 및 대응, 방제작업 등 수행 (NOWPAP/MERRAC 등 연계)

○ (해양에너지 등 개발) 해양에너지 기반 융복합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공동 개발 (파력, 조류, 해수열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보급 전제)

○ (항해, 항만, 조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 고려 가능

* 관련 기술 및 경험 공유, 인력양성 등 역량강화 등을 우선 추진가능)

〈KAOSTs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

○ KAOSTs는 해양과학기술 세부 전문분야들을 아우르는 순수 민간 학술단체들의 협의체로서, 관련 분야의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다학제적 융복합 전문성 보유

– 해양과학기술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학술교류 및 역량 강화활동 플랫폼 역할 가능

○(컨퍼런스 등 공동개최) 남북한 학술교류 일환으로 제반 학술성과 및 관련 연구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동 컨퍼런스 또는 워크샵, 심포지움 등을 KAOSTs의 참여하에 정기적/비정기적 개최 가능

* 남북한 학술단체 주관으로 “한민족 해양과학기술 공동컨퍼런스(가칭)” 등 정기 개최

○ (공동사업 발굴) 남북한 연구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프로그램 사업 등과 연계하여 남북한 공동연구 및 개발 사업에 학술단체를 매개로 참여 가능 (산학연 다학제 연구진 구성 가능)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KAOSTs 공동학술대회 등 학술행사에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초청, 연구성과 전시회 개최,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주관(대학 등과 연계) 등을 수행 가능

□ **향후 협력사업 추진단계 (제안)**

○협력 파트너 확보 및 참여의지 공유

○학술교류 추진 프로그램 구축 (사업내용/일정/예산 등)

○해양과학기술분야 유관 협력사업들과의 체계적 조정·연계

○남북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국제기구 등의 프로그램에의 참여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하에 남북한 및 국제사회 현안해결 노력 등

KIM, Kwang-ryong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ejong Government Complex, 94, Dasom2-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Mr. Kwang-ryong Kim is a director at Marine Environment Policy Division, Marine Environment Policy Bureau, Marine Policy Offic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He has been working at MOF since 1997. His working experiences includ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ipping policy, Yeosu World Expo, etc. He was a former director general of Pyeongtaek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Mr. Kim has a BA in Hispanic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University of Colorado, USA.

Tel: +82-44-200-5280 Fax: +82-44-200-5299 Email: kr0kim@korea.kr

MOK, Jinyoung

Korea Maritime Institute

#26, Haeyang-ro 301beon-gil, Yeongdo-gu, Busan, Republic of Korea

Dr. Mok, Jinyoung has been working at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since 1992, which is a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entity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He has been participating in major marine environmental policies including marine environmental comprehensive plan, public waters reclamation plan, and ocean and fisheries development basic plan. His research interests cover integrated coastal planning, uninhabitable islands, marine litter, etc.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marine policy committee of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He has PhD in the law of maritime affairs.

Tel: +82-51-797-4701 Fax: +82-51-797-4709 Email: jymok@kmi.re.kr

PARK, Byoung-Jick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KIMST)

9F Dongwon F&B Bldg., Mabangro 60, Seocho-gu, Seoul 06775, Korea

Dr. Park, Byoung-Jick has been working at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hcnology promotion(KIMST) since 2007, which is a public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or planning and evaluating R&D projects and the promoting their commercialization. He has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directions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D, survey of technological demand and discovery of technological items. Now he is responsible for R&D project's rules revision and research expenses settlement.

Tel: +82-2-3460-4011 Fax: +82-2-3461-4090 Email: bjpark@kimst.re.kr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박병직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으로 그 어느 시절보다 남북간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분위기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남북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남북이 모두 나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11월 “과학자·기술자 대회”를 열고 “과학기술에 강성국가 건설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KISTI가 최근 발표한 ‘북한 과학자 SCI 분석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출판된 SCI는 112편,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SCI 148편 특히 2015년 한해에만 65편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평양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을 조성하는 등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4년기준 GDP 기준 R&D 투자는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색이 없는 과학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1990년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지기전 과학기술분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7년 동서독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에 합의하여 60여개의 공동연구가 추진되었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상호간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자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경험은 통일 후 과학기술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학술평의회에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통합에 관한 12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꾸준히 추진한바 현재 여러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가지 기본방침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연구환경과 제도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연구기관이 남한의 R&D 사업에 응모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직접 참여 형태는 거의 불가능 하므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프라·시설·인력양성 사업이나 우리의 사업에 북한 과학기술자를 포함시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과제 선정시 북한 과학자를 참여연구원 형태로 진행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 등에 명문화 시킨다면 남북한 소통과 교류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R&D를 통하여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과거 행사위주의 교류를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교류 나아거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포함시킨다면 법정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YUN, Sang-Kyung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385, Haeyang-ro, Yeongdo-gu, Busan 49111, Republic of Korea

Dr. Byun, Sang-Kyung is the Emeritus Research Fellow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in Busan, Korea and the former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of UNESCO in Paris, France. Dr. Byun has been involved in and dedicated to the mission of IOC since he became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Delegation to IOC in 1997.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IOC for 2011-2015. He graduated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2 with the bachelor degree in Oceanography and then completed doctoral degree in physical oceanography from the Université de Bretagne Occidentale in Brest, France in 1980. He also spent one and half year in 1984-1985 at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USA, as a guest investigator. After his return to Korea, he had involved in various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and projects. He served with a series of executive and academic posts, including President of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fomer KIOST) (2002-2005), Chairman of the Korean Oceanographic Commission (2004-2006),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of Oceanography (2006-2007) and Vice-Chairman of IOC/UNESCO (2009-2011).

Tel: +82-51-664-9059 Email: skbyun@kiost.ac.kr

“남북해양과학공동연구센타” 설립과 “UN Decade of Ocean Science (2021-2030)”에 동참

변상경(전 IOC/UNESCO의장,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남북한 정상 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에는 정치적 화해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해양과학 분야에서도 다각도의 협력 방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남북한 간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은 많지 못했다. 대표적 경우 두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UN 산하 해양과학 전담기구인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현재 149개 회원국과 함께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기구이다. 남한은 1961년 이전에 그리고 북한은 1978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나 추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남북한 공동 해양조사는 1998년 KEDO사업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팀이 해양연구선과 함께 방북하여 북한 신포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 80km x 40km 해역에서 계절별로 4회에 걸쳐 해양관측을 북한 해양학자들과 함께 실시하고 자료를 교환한 바 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정치 상황에 따라 단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속되지 못해 보다 깊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양자료정보 축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우리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협력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진행-중단-단절의 반복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을 기회로 개시될 교류와 협력에서도 과거와 같은 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단절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이 절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은 남북한 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로부터 남북한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성이 우선 고려되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에,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보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고,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통해 각자의 능력과 역량 개발도 이루어지는 시너지효과도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 남북 해양협력은 현장 상황의 이해와 서로 간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각적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은 해양과학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 및 페루 정부와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타를 설치 운영중이며 인도네시아와도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타의 설립과 운영 경험을 살려 남북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남북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타” 설립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공동 연구센타를 이용하여 연안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을 포함하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 및 광물자원 개발, 독도를 비롯한 분쟁해역과 EEZ 관할권 대응, 남북 해양과학용어 통일 등 여러 가지 공동 관심 사항들을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UN은 2030년까지 추진할 지구촌 과제로 17개 항목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채택하였는데(2015. 9), 그 중에는 해양과 관련된 SDG 14가 포함되어 있다.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해양과학 발전을 위해, 제29차 IOC총회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해양과학 10년(2021-2030):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 추진을 결의하였고(2017.6), 제39차 UNESCO총회(2017.11)와 제72차 UN총회(2017.12)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IOC는 향후 3년에 걸쳐 이행계획서를 준비하여 제75차 UN총회(2020. 10)에서 승인받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IOC가 이행주체로 앞장 설 계획이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 준비 계획서 작성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해양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에 적극 동참한다면 현재의 북한 해양과학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JANG, Jiyoung

Eco-Horizon Institute
2F, 22, Seongmisan-ro 22-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Ms. Jiyoung Jang has been working at Eco-Horizon Institute, an NGO where field and theory meet since 2006. She participated the conservation campaign of Saemangeum tidal flats from 1996 to 2005 a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She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on conservation of tidal flats agains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designation the tidal flats as a marine protected area along with the local communities who coexist with nature. She believes that it is important to devise a win-win strategy for discovering the value of tidal flats and lo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she contributes to the MPA management policy based on civil-government cooperation such a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tidal flats education program, establishment of the citizen monitoring system, support for local communities'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of MPA managers. In addition, it is actively pursu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the countries of the Yellow Sea and the Wadden Sea.

She is a member of the National Wetlands Deliberative Committee, a member of the MPA Central Management Committee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 chairperson of the Network for Local MPA Visitors' Center, and the CEPA NGO focal point of Ramsar Convention, and a member of National Working Group Habitat & Governance of YSLME. She also is participating in the inscription of Korean Tidal Flats, Getbol, in the World Heritage List.

Tel: +82-2-338-9572 Fax: +82-2-338-9575 Email: ecojangjy@gmail.com

토 론 문

장지영(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1. 향후 전망

○ 오래전부터 세계 냉전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군사적 대치 지역이며 긴장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DMZ 일대와 서해 연안 접경지역은 전쟁과 평화라는 갈등의 핵심적인 지역임

○ 그러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완화와 충돌을 오가던 중, 여전히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4.27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다시 화해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됨. 현재까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으로 볼 때 남-북 관계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을 가능성 있음

○ 65년간 단절의 역사는 이들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오히려 기여한 점이 있으나, 남-북한 간의 화해와 교류 활성화, 군사시설 감축에 따른 개방은 보전된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상황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보전전략과 시간적 로드맵이 통합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함

2.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연안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

1)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함

2) 2007년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함

○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

○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 협력 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함

3) 2018년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함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로 함

4)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경문제

○ 과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건설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현재 흐름대로라면 서해 연안 접경지역의 개방과 선박 직항로 개설, 경제특구 등 연안지역 개발과정에서 생태적·환경적인 문제는 소외될 가능성 높음

○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모래 채취로 인해 남한에서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와 갯벌생태계의 급격한 파괴 예상

○ 북한의 경제 개방은 남한 기업과 자본 진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북한지역의 환경문제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65년간 토지이용 규제와 지역개발이 제한되었던 이들 지역이 공격적으로 개발될 가능성 높음.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및 첨단산업의 거점도시 건설, 국제 해양관광 위락단지 조성 등이 이미 계획되어 있음

○ 이러한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대규모 간척, 매립이 요구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 해양생물 등의 서식지를 위협할 가능성 높음

3. 향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항

○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남획 및 서식환경 훼손방지 대책 수립

○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정보 교환

○ 서해 연안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 서해 연안해양생태계에 대한 보전전략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로드맵 수립

○ 특히 남과 북의 서해연안을 서식지로 이동하는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과 이들의 서식지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 남-북한 관련 법, 제도 정비

이러한 계획 등은 남측에서 먼저 수립한 후 북측에 제안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4. 향후 생태지평연구소의 남-북 해양환경 협력사업 추진계획

1) 남-북한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황해보전에 대한 결의문이 통과된 이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에 가장 중요한 중간기착지로서 황해보전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됨. 한국-북한-중국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황해 갯벌지역에 대한 핵심 보전전략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함

○ 현재 남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작업은 행정적으로 5개 시·군(서천군, 고창군, 신안군, 보성군, 순천시)의 갯벌을 대상으로 추진중임. 이처럼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단계적인 확대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음(1단계: 5개 시·군 등재, 2단계: 다른 갯벌지역으로 확대 등재, 3단계: 북한 갯벌지역으로 확대 등재). 중국은 옌청지역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임

2) 한반도 평화의 상징, 멸종위기종 물범 보호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 겨울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남-북한 서해에서 여름을 나는 점박이 물범은 남한의 백령도와 북한의 기린도 등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평화의 상징임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 물범은 서해 해양생태계의 중요성과 남-북한 평화 정착의 상징물로 매우 대중친화적인 해양포유류임. 점박이 물범을 주제로 남-북 공동조사 및 정보 교환, 종 및 서식지 보전방안 수립, 교육프로그램 등 대중인식사업 등 추진계획 수립 중

○ 특히 생태지평연구소는 3국이 공동협력하여 물범 보호를 잘 하고 있는 와덴해 3국과 2009년부터 긴밀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바, 와덴해 공동사무국과 함께 와덴해 지역에서 남-북 물범 보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음. 안정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재정확보 모색중임

Choi, Jinyong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28, Songpa-daero 28-gil, Sonpa-gu, Seoul, Korea 05718

J.Y.Choi is the Professor of Department of Oceanography, Kunsan National University. His major is geological oceanography, especially focused on the origin of fine-grained sediments on the Yellow Sea, the sediment transport and coastal erosion, and the evolution of tidalflat deposits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He is now working at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Marine Conservation. Monitoring of water qualities,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respons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treatment of polluted deposits and marine litters are the important fields of his Division.

Tel: +82-2-3498-8503 Email: jychoi@koem.or.kr

부 록

Appendix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2.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3.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년 10월 4일)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1월 16일)

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년 11월 16일)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 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흥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① 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②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③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④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 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⑥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①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②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①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②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③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최고사령관	사령관

미 육군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마크 W.클라크	김 일 성	팽 덕 희

〈 참 석 자 〉

국제연합군대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미육군중장	조선인민군 대장
윌리암 K.해리슨	남 일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산하에「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산하에「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북남총리회담
남측수석대표	북측단장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내각총리
한덕수	김영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북남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북측 단장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내각총리
한덕수	김영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문 재 인	김 정 은

.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momentous period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enduring aspiration of the Korean people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ld an Inter-Korean Summit Meeting at the 'Peace House' at Panmunjeom on April 27, 2018.

The two leaders solemnly declared before the 80 million Korean people and the whole world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The two leaders, sharing the firm commitment to bring a swift end to the Cold War relic of longstanding division and confrontation, to boldly approach a new era of national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and to improve and cultivate inter-Korean relations in a more active manner, declared at this historic site of Panmunjeom as follows :

1. **South and North Korea will reconnect the blood relations of the people and bring forward the future of co-prosperity and unification led by Koreans by facilitating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Improving and cultivating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prevalent desire of the whole nation and the urgent calling of the times that cannot be held back any further.**

① South and North Korea affirmed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the destiny of the Korean nation on their own accord and agreed to bring forth the watershed moment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y fully implementing all existing agreements and declarations adopted between the two sides thus far.

②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dialogue and negoti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t high level, and to take ac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reached at the Summit.

③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with resident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in the Gaeseong region in order to facilitate close consult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as well as smoot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④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ncourage more active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at all levels in order to rejuvenate the sense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the two sides will encourage the atmosphere of amity and cooperation by actively staging various joint events on the dates that hold special meaning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June 15, in which participants from all level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arliament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organizations, will be involved. On the international front, the two sides agreed to demonstrate their collective wisdom, talents, and solidarity by joi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2018 Asian Games.

⑤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endeavor to swiftly resolve the humanitarian issues that resulted from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o convene the Inter-Korean Red Cross Meeting to discuss and solve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this vein,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proceed with reunion programs for the separated families on the occas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August 15 this year.

⑥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implement the projects previously agreed in the 2007 October 4 Declaration, in order to promote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 As a first step, the two sides agreed to adopt practical steps towards the connec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railways and roads on the eastern transportation corridor as well as between Seoul and Sinuiju for their utilization.

2. South and North Korea will make joint efforts to alleviat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practically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lleviating the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ing the danger of war is a highly significant challenge directly linked to the fate of the Korean people and also a vital task in guaranteeing their peaceful and stable lives.

①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is vein, the two sides agreed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peace zone in a genuine sense by ceasing as of May 1 this year all hostile acts and eliminating their means,

including broadcasting through loudspeakers and distribution of leaflets, in the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②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devise a practical scheme to turn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nd guarantee safe fishing activities.

③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take various military measures to ensure active mutual cooperation, exchanges, visits and contacts.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frequent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including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in order to immediately discuss and solve military issues that arise between them. In this regard, the two sides agreed to first convene military talks at the rank of general in May.

3. South and North Korea will actively cooperat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ringing an end to the current unnatural state of armistice and establishing a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historical mission that must not be delayed any further.

① South and North Korea reaffirmed the Non-Aggression Agreement that precludes the use of force in any form against each other, and agreed to strictly adhere to this Agreement.

②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as military tension is alleviated and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i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③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turning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④ 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shared the view that the measures being initiated by North Korea are very meaningful and crucial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d to 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regard.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seek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leaders agreed, through regular meetings and direct telephone conversations, to hold frequent and candid discussions on issues vital to the nation, to strengthen mutual trust and to jointly endeavor to strengthen the positive momentum towards continuous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as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visit Pyongyang this fall.

April 27, 2018
Done in Panmunjeom

Moon Jae-in
President
Republic of Korea

·

Kim Jong Un
Chairman
State Affairs Commiss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